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朴 時 翼

과주지역 향교와 서원에
대한 풍수지리적 입지분석

2 0 0 7 年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風水地理專攻

黃 修 淵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朴 時 翼

과주지역 향교와 서원에
대한 풍수지리적 입지분석

A Feng-shui Analysis of the Location
of Hyang-gyo and Seo-won in Paju Area

위 論文을 不動產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 0 0 6 年 12 月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風水地理專攻

黃 修 淵

黃 侈 淵의 不動產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 0 0 6 年 12 月

심사 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2
 제 2 장 풍수지리의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풍수지리의 개요	4
1. 풍수지리의 의의	4
2. 풍수지리의 원리	4
3. 풍수지리의 이론구조	6
4. 삼신오제와 음양오행	6
5. 한국풍수지리의 발전과정	9
제 2 절 풍수지리의 입지이론	15
1. 간룡법	15
2. 장풍법	23
3. 득수법	30
4. 정혈법	35
5. 형국론	39
제 3 절 양택풍수의 적용	41
1. 택리지의 가거지	41
2. 건물의 배치	43
3. 건물의 형태	46
4. 건물의 방위	50
 제 3 장 향교와 서원의 고찰	53
제 1 절 향 교	53
1. 향교의 성립과 발전	53
2. 향교의 기능	54
3. 향교의 구성과 배치	55
제 2 절 서 원	58

1. 서원의 성립과 발전	58
2. 서원의 기능	59
3. 서원의 구성과 배치	60
제 4 장 파주지역 향교·서원의 풍수지리 분석	64
제 1 절 파주의 역사·지리적 환경	64
1. 파주의 역사	64
2. 파주의 지리적 환경	66
3. 파주지역 조종산의 행룡분석	67
제 2 절 향교의 풍수지리 분석	71
1. 교하향교	71
2. 파주향교	78
3. 적성향교	85
제 3 절 서원의 풍수지리 분석	91
1. 용주서원	91
2. 자운서원	98
3. 파산서원	105
제 4 절 분석결과 종합	111
제 5 장 결 론	114
참고문헌	116
ABSTRACT	119

도 목 차

<도 1> 오행의 배치와 상생상극	9
<도 2> 명당의 지세	15
<도 3> 용의 종류	16
<도 4> 용의 5단계 변화과정	17
<도 5> 용의 개장과 천심	18
<도 6> 용의 위이	20
<도 7> 용의 마디	20
<도 8> 용세 12격	22
<도 9> 산의 형태에 따른 3품격	23
<도 10> 오행산의 형태	24
<도 11> 사신사와 바람	25
<도 12> 사신사 반사경의 작용	26
<도 13> 혈관의 구조	36
<도 14> 혈의 4가지 종류	38
<도 15> 배산임수에 따른 흥가와 명당의 배치방법	44
<도 16> 건물평면의 3품격	48
<도 17> 오행산과 지붕형태	50
<도 18> 8방위의 구분	52
<도 19> 1919년도 교하향교 지형도	73
<도 20> 최근의 교하향교 지번 위치도	74
<도 21> 교하향교 전경과 백호	75
<도 22> 교하향교 평면 배치도	77
<도 23> 1919년도 파주향교 지형도	80
<도 24> 최근의 파주향교 지번 위치도	81
<도 25> 파주향교 현무봉	82
<도 26> 파주향교 평면 배치도	84
<도 27> 1919년도 적성향교 지형도	86
<도 28> 최근의 적성향교 지번 위치도	87
<도 29> 삼문에서 본 적성향교의 안산과 조산	88

<도 30> 사당 뒤에서 본 적성향교의 안산과 조산	89
<도 31> 적성향교 평면 배치도	90
<도 32> 1919년도 용주서원 지형도	93
<도 33> 최근의 용주서원 지면 위치도	94
<도 34> 용주서원 현무봉 8부능선의 바위	95
<도 35> 용주서원 전경과 현무봉	96
<도 36> 용주서원 배치도	97
<도 37> 1919년도 자운서원 지형도	99
<도 38> 최근의 자운서원 지면 위치도	100
<도 39> 자운서원 진응수	102
<도 40> 자운서원 내명당 전경	103
<도 41> 자운서원 배치도	104
<도 42> 1919년도 파산서원 지형도	106
<도 43> 최근의 파산서원 지면 위치도	107
<도 44> 파산서원 청룡의 바위(홀)	108
<도 45> 파산서원 전경과 현무봉	109
<도 46> 파산서원 배치도	110
<도 47> 분석결과 비교표	113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 조상들은 땅을 삶의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땅을 중심으로 주변의 자연환경 즉 해와 달, 물과 바람, 산과 강, 지형과 지질 등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이를 이용하게 되면서 풍수지리라는 독창적인 문화를 이루었다.

현대는 무한한 과학의 힘에 의존하여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풍수환경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예외가 될 수 없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초고속의 교통·통신수단이 개발되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양질의 고농축 에너지 이용수단이 탄생하고 있다. 살아 움직이며 함께 호흡하는 자연은 사라지고 무생물의 재료로서의 자연만이 존재한다. 자연 생태계가 조화를 이룬 곡류하천(사행천)은 인위적 직강공사로 생태계가 파괴된 무생물의 직류하천으로 변하고 인공의 대형 호수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움은 옛것과 현재의 것에 대한 새로움이고 변화이다. 옛 것을 알고 탐구하여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한 다음에야 그에 바탕하여 새로운 것을 알고 제대로 된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다.

고려중기 이후 설립된 향교는 조선조 전반에 걸쳐 공교육 기관으로, 16세기 이후 설립된 서원은 사교육 기관으로 국가 인재를 양성하고 민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하였다.

유교를 국가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은 명리(明理)(이치를 밝힘)를 통하여 인지를 계발시키고 강상(綱常)의 윤리를 확립하였으며, 인(仁)을 통하여 도덕적 정서를 함양시켰다.

유교는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치문화 창조의 중핵을 이루었으며 국민 일상생활의 예의범절에서부터 국가경영의 치국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유교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향교와 서원이 담당하였다.

향교와 서원은 당시 관학과 사학의 양대 교육기관으로서, 유교적 시각과

풍수적 시각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써, 유교질서와 절제를 표출하고 풍수적 지령을 통한 인재 배출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의 건축에 있어 당시 우리의 지방정부와 사대부들은 그들의 정신을 담고 그들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줄 수 있는 교육기관을 건축함에 있어서, 산줄기를 타고 오는 지령을 온전히 받고자 하는 풍수지리적 입지선정의 기준이 절재와 균형을 강조하는 유교적 질서 속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풍수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무분별한 경제논리, 개발논리에 의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토파괴, 자연파괴, 환경파괴에 대한 경종과 함께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공존의 원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유림들의 제향공간으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향교와 서원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후 교육기관의 건축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파주지역의 현존하는 향교와 서원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향교와 서원을 연구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하겠지만 연구의 성질상 어려움이 있어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파주는 당시 파주군, 교하현, 적성현, 장단현 등 4개의 행정구역이었으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됨으로써 현재 하나의 행정구역에 네 곳의 향교가 입지하였다. 현존하는 향교는 장단향교를 제외한 파주향교, 교하향교, 적성향교가 있고, 서원 또한 네 곳이 있었으나 신곡서원을 제외한 파산서원, 용주서원, 자운서원이 현존하고 있어 여섯 곳의 현존 향교와 서원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체제로 보면 하나의 행정구역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입지기준에서 보면 3개의 행정구역 내 향교와 서원의 분석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유교 교육이 전국적으로 위계질서를 가지고 실시되었고 풍수지리적 입지기준 또한 교육받은 식자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특정한 지역의 입지기준 분석이라 하더라도

도 건축당시의 전국적 입지 기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여타 지역의 향교와 서원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축적되어 간다면 더욱 바람직한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진행 되었다.

① 본 연구는 태조산으로부터 조종산의 행릉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하였다.

내룡맥의 분석은 대상 건축물의 용맥 뿐 아니라 주변 여타 대상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종산의 내룡맥 분석은 도상(圖上)분석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② 본 대상지를 연구함에 있어 전통적인 풍수지리 이론인 용 혈 사 수에 대한 이론을 분석하고 이러한 이론이 연구대상 건축물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도상(圖上)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하되 현장조사를 위주로 하였다.

③ 건축물의 배치에 있어 배산임수 전저후고 산의 중심부배치 방위론의 적용여부 등을 살펴 그 적용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④ 건축물의 형태를 분석하여 풍수지리의 건축형태 이론과의 적용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는 건축물의 평면도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⑤ 상기와 같은 분석을 하는데 따라 부수적으로 패철, 지형도, 파주시 지번도, 파주시청 홈페이지의 산세도를 참고하였다.

제 2장 풍수지리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풍수지리의 개요

1. 풍수지리의 의의

풍수라는 말은 장풍득수(藏風得水)¹⁾의 줄임말로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곽박(郭璞)²⁾의 장경(葬經)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대사회의 고인돌과 같은 유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고, 강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생활해 왔다. 그러한 생활의 반복으로부터 삶의 경험과 지혜를 얻고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서의 물과 바람, 햇빛과 토질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바람과 물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관찰하는 작업이 곧 풍수를 보는 작업으로 인식되었고 ‘풍수’라는 말은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³⁾ 따라서 풍수지리는 생명체를 이루는 바람과 물을 생활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리 조건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으며⁴⁾ 하늘과 땅, 바람과 물 등 자연 현상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이용하여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2. 풍수지리의 원리

풍수지리는 자연현상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주역」에서는 우주생명의 주인이며 원리를 태극이라 하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에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으며 또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겨 삼라만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모든 생명체는 잉태되는 순간 하늘의 기(氣) 즉 천기(天氣)를 받게 된다. 그 가운데 해와 달 그리고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

1)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

2) 곽박은 동진시대 사람으로 자는 경순(京純)이며 하동(河東)의 문희(聞喜) 사람이다. 그는 이아주, 산해경주, 삼창주, 방언주, 초사주, 등 많은 주석을 짓고 천문과 지리에 통달했으며, 금낭경 20편을 지어 현재 8편이 전해지고 있다.

3)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도서출판 일빛, 서울, 1999, p13.

4) 박시익, 전계서, p15.

(土)의 다섯별을 비롯한 무수한 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하늘의 기운으로 잉태된 사람들은 조상과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된다.⁵⁾ 즉 인간은 하늘에 유행하는 천기(天氣)와 지맥을 따라 흐르는 지기(地氣)를 살피 살고자 한다. 이렇듯 우주 만물은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산과 물, 해와 달 등 음양의 조화로운 배합에서 혈(자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상이 풍수지리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수지리의 본질은 생기(生氣)와 감응(感應)의 두 가지가 있다.⁶⁾

우주의 삼라만상은 음(陰)·양(陽)이란 양기(兩氣)가 오기(五氣)(木 化 土 金 水)로 되어 활동함으로써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생기(生氣)라 하고 만물은 생기에 따라 성쇠의 차이를 가져온다. 즉 생기에 의해 삶을 유지하고 생기를 입는 일의 다소에 따라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조상과 그 후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체질이 같기 때문에 부모의 본해(本骸)가 생기를 받으면 그 유체(遺體)인 자손도 행운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은 부모의 본해가 땅속의 생기에 닿으면 부자(父子) 사이에 감응이 생겨 생기의 효과가 자손에 주어지기 때문인데 이를 동기감응이라고 한다.

곽박(郭璞)은 금낭경 기감편⁷⁾에서 “장사를 맡은 자는 생기를 탈줄 알아야 한다.” “다섯 가지 기(氣)가 땅속에서 행한다.” “사람은 부모에게서 신체를 받는다.” “근본인 부모의 유해가 기를 얻게 되면 부모가 남겨주신 자신의 신체가 남몰래 덕을 받게 된다.”⁸⁾고하여 동기감응론을 설명하고 있다.

동기감응과 관련하여 실험한 내용을 부산동의대학교 이상명 교수는 〈신동아〉 96.12월 호에 소개한 바⁹⁾ 있다. “성인남자 3명의 정액을 채취하여 3개의 시험관에 넣고 정밀한 전압계를 각각 설치하였다. 그 다음에 이들 남자 3명을 옆방으로 데려가 차례로 전기 쇼크를 가하자 전기 쇼크를 받은 사람의 정액에 부착된 시험관의 바늘도 동일한 시간에 움직였으며, 미세한 전위차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동기감응론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된다.

5) 박시익, 전계서, p53.

6) 村山智順 著, 최성길 譯, 『조선의 풍수』, 민음사, 서울, 1990, p38.

7) 신성은 譯, 『금낭경·청오경』, 자유문고, 서울, 2005, p22.

8) 葬者乘生氣也 五氣行乎地中 人受體於父母 本骸得氣遺體受陰

9)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평단문화사, 서울, 2003, p26.

인간의 체질(일종의 전파, 기)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된다. 생물학에서는 3대가 지나면 체질이 많이 변한다고 본다. 이런 사실로 보아 후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상은 3·4대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⁰⁾ 그리고 동기감응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용량은 어릴수록 강하고 나이가 들수록 약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는 어른보다 사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양도 많은 것과 같다고 하겠다.

3. 풍수지리 이론의 구조

풍수지리 이론은 그 거주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음택(陰宅)과 양택(陽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택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 도시 등에 대한 이론이고 음택은 죽은 사람의 주택 즉, 산소자리에 대한 이론이다.

풍수지리 이론은 음택이나 양택을 선정할 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공간의 기운을 분석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¹¹⁾ 그런 점에서 음택지와 양택지의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양택의 경우 음택지에 비해 그 보국이 넓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설심부」 양택론¹²⁾에서도 “양택이 음궁과 다른 것은 지세가 관평하여야 하고 당국이 뽕(逼)착(窄)하지 않아야 한다”¹³⁾고 적고 있어 이것이 소위 “양택은 면이요, 음택은 선이다”는 뜻이라 하겠다.

풍수지리는 길흉 판단의 형식에 따라 자연의 외적인 형태를 보고 길지를 찾는 형기론(形氣論)과 방위, 시간 등 음·양 오행의 작용을 살펴 길흉을 논하는 이기론(理氣論)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풍수지리는 이론을 구성하는 객체에 따라 용(龍), 혈(穴), 사(砂), 수(水)의 4대 구분에 따르고 이 네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간룡법(看龍法) 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형국론(形局論)등으로 분류한다.

4. 삼신오제와 음양오행

10) 박시익, 전게서, p172.

11) 박시익, 전게서, p35

12) 신평 역, 『고전풍수학 설심부』, 관음출판사, 서울, 1997, p431.

13) 若言陽宅何異陰宮 最要地勢寬平 不宜堂局逼窄

가. 삼신오제사상(三神五帝思想)¹⁴⁾

삼신은 조물주로서 모든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는 유일신 하느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신이다.

삼신은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삼신께 감사드렸고, 사람이 죽으면 삼신을 통해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믿어 먼 길을 편안하게 배웅하기 위해 밥 세 그릇과 신발 세 켤레를 문밖에 두어 공양했다.

삼신의 상징은 삼태극이다. 삼태극을 통해 삼신사상이 표출되는 사례로는 신라 시대의 왕가 보검에 새겨진 삼태극, 경복궁의 경회루, 남원의 광한루, 경주 안압지에 조성된 연못의 인공섬, 첨성단 성곽에 조성된 삼신출입문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삼신사상에는 자연을 태일(太一), 천일(天一), 지일(地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천일은 하늘의 크다란 기운을, 지일은 땅의 크다란 기운을, 태일은 생명력의 근원인 영적인 힘을 말한다. 영혼과 하늘의 기운 그리고 땅의 기운이 결합해서 생명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음양(陰陽) 이론에서는 생명력을 단순히 하늘과 땅의 두 기운이 결합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천(天),지(地),태(太)의 삼신적인 구분에서 천지를 음(陰)양(陽) 이론에 따라 양분하는 방법이 발전했다. 그러므로 음양설의 근원은 삼신사상이다.¹⁵⁾

오제(五帝)는 하느님의 작용을 도와주는 청제(靑帝), 주제(朱帝), 백제(白帝), 현제(玄帝), 황제(黃帝)의 다섯 신을 말한다.

청제는 파란 옷을 입고 목성에 위치하여 동쪽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듯한 생명 탄생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주제는 붉은 옷을 입고 화성에 위치하여 남쪽의 뜨거운 태양처럼 널리 확산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백제는 하얀 옷을 입고 금성에 위치하여 서쪽으로 식어가는 태양처럼 정지 시키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현제는 검은 옷을 입고 수성에 위치하여 어둠속에 사라진 태양처럼 생명체가 휴식하고 준비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14) 박시익, 전계서, p52.

15) 박시익, 전계서, p52.

황제는 노란 옷을 입고 토성에 위치하여 사방의 기운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

삼신사상과 오제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한 음양오행사상은 초기에 음양설과 오행설이 각각 발전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론이 서로 결합하여 더욱 완벽한 하나의 철학으로 발전하였다.

음양설이나 오행설의 핵심 개념은 기(氣)이다. 기는 자연에 분산된 에너지이며 이러한 기가 모이면 생명체를 이루고, 생명체가 죽으면 기는 흩어진다. 기는 하늘에서 발생하는 양기(陽氣)와 땅에서 발생하는 음기(陰氣)가 있다. 따라서 양과 음은 크게 해와 달의 기운으로 구분되는데 해는 뜨거워서 양의 기운으로, 달은 차가워서 음의 기운으로 상징된다. 그래서 해와 달은 음양의 대표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주역」에서는 우주생명의 주인이며 원리를 태극이라 하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에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겨 삼라만상이 발현 된다고 본다.

오행사상의 근원은 천문사상과 오제에서 찾을 수 있다. 오행이란 하늘에 있는 다섯 가지 별을 말하고 고대인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에게 제사를 지낸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오행은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의 다섯 가지 기운이다.

수(水)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다. 차가운 겨울 모든 생명체의 활동이 정지되고 새 생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목(木)은 나무와 같이 수직 상승하는 기운을 말한다. 따뜻한 봄 새로운 생명체가 희망을 품고 솟아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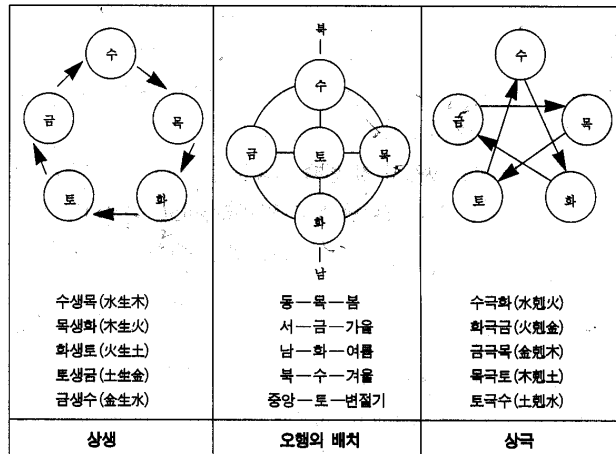
화(火)는 불꽃처럼 뜨거운 열기가 확산하는 기운이다. 뜨거운 여름 가지가 무성하고 꽃이 만발하여 힘이 확산되어 간다.

금(金)은 쇠와 같이 수축하고 움츠리는 기운이다. 서늘한 가을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기운이다.

토(土)는 수, 화, 목, 금의 기운을 골고루 지니고 있어 균형을 유지하고 포용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모든 생명체를 감싸 안고 생산하는 흙의 기운이다.

이러한 다섯 기운은 각각 고유한 성질의 기를 가지고 있어 상호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생과 상극, 순환이 그것이다. 상생은 한 기운



▲ 오행의 배치와 상생·상극

과 다른 기운이 서로의 기운을 좋아하고 상호 생성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이고, 상극은 상호 싫어하고 서로의 기운을 억제하는 관계이다. 순환은 각각의 기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며 순환되어 다른 생명체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 도 1 >

5. 한국풍수지리의 발전과정

가. 풍수지리의 발생

풍수지리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는 여러 의견이 있는듯하다.¹⁶⁾ 중국에서 한나라 때 음양설과 함께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여 신라 말기에 우리나라에 전래 되었다는 이론과 함께 풍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주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풍수지리의 발생국”으로 하여 풍수지리는 몇 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한국의 전통사상으로 집터나 묘 자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¹⁷⁾ 고 한다.

박시익 교수는 풍수지리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근거로 다음 몇 가지를 예로 들고 있다.¹⁸⁾

「첫째 : 한국 국토의 지리적 조건이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크고 작

16) 기태우, 「통도사의 풍수지리학적 입지특성 연구」, 2003, 대구한의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 풍수의 기원에 대한 학설은 한국의 자생풍수설과 중국으로 부터의 도입설로 나뉘어지며, 도입설은 다시 삼국시대 도입설과 통일신라시대의 도입설로 나뉘어진다. 한국 자생풍수설로 보는 입장은 朴容淑, 金得桴, 朴時翼. 삼국시대 도입설로 보는 입장은 盧道陽, 崔柄憲. 통일신라시대 도입설로 보는 입장 李柄燾, 李龍範, 李燦. 한편 최창조는 우리나라 자생풍수가 있었고 뒤에 중국 풍수가 유입되어 혼합된 것으로 보았다.

17) 박시익, 전게서, p18.

18) 박시익, 전게서, p18-22.

은 산으로 이루어지고 풍수지리는 산의 변화가 다양한 지역 특히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적당한 지세를 이루는 산이 많은 지역에서만 발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을 생활의 터전으로 하는 지리 조건을 갖는 한국에서 풍수지리가 발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 산신숭배사상이 풍수지리를 발생하게 했다. 고대인들에게 산신은 수호신이었으며 한 지역에 있는 큰 산을 진산이라고 하여 숭배했다. 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경사진 땅도 산의 일부분으로 해석하게 하여 능선을 산의 기운이 평지로 연결하는 맥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개념이 바로 풍수지리의 용이 지기의 통로로 보는 점과 동일하다. 풍수지리 이론은 산신숭배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산신을 숭배하던 한국에서 풍수지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 풍수지리 이론은 주역의 이론과 결합해서 더욱 완벽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주역과 음양오행설이 없었다면 풍수지리 이론은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주역을 만든 복희씨는 본래 단군이 통치하던 지역에 살던 사람으로 그가 만든 주역은 어린시절 단군 통치 지역에서 배운 역을 중국에 가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행설의 발생 과정은 은나라 우왕이 오행을 기록한 것을 ‘신서’(神書)라 부르며 숭상한 데서 시작 되었다는 이론과 ‘홍범구주’로부터 시작 되었다는 이론이 있다.

우왕의 ‘신서’라고 하는 것은 단군의 아들 부루에게서 배운 오행의 천문에 관한 기록이며, ‘홍범구주’는 단군 지역에서 사용한 왕실의 국가 경영 이론이다. 군주가 국가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원칙을 오행의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단군 시대에는 이미 주역과 음양오행설이 일반화 되어 있었으며, 지세에서 생겨난 산에 대한 이론은 이러한 철학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풍수이론으로 정립되었다.

넷째 : 단군이 처음 신시를 건설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하늘나라에 사는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땅으로 내려갈 즈음 하늘로부터 지세를 살펴보고 삼신산인 한밤산이 가히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되어 천·부·인 3개와 3000명을 거느리고 한밤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신시를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한국의 풍수지리가 이미 단군이 신시를 건설하고 개국할 때부터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 고인돌 역시 풍수와 무관하지 않다. 고인돌은 대부분 산 정상에서 평지로 연결되는 능선에 위치해 있다. 이는 용의 맥을 따라잡은 것으

로 풍수지리 이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지 기준은 후대로 전해져 삼국시대 왕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었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가 4세기 후반 이래로 발달, 처음에는 생활도(生活圖) 풍속도(風俗圖) 위주 이다가 6세기 들어가면서 사신도가 차차 유행하게 되는데 이는 풍수의 도입이라 볼 수 는 없어도 풍수적 사고의 기본관념은 마련되어 있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¹⁹⁾

나. 한국 풍수지리의 발전과정

고대로부터 자연과 함께 생활하며 삶의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한 풍수사상은 신라 말 옥룡자(玉龍子) 도선(道詵)에 이르러 완전한 이론으로 체계화 되었다.

신라말기 중앙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국가 지배질서를 붕괴시켜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을 상실시켰다. 지방 호족들은 약화된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 각자 독자적인 세력확보에 나서고 이들에게 지배이념을 제공한 사람들은 선종계의 승려들이었다. 그들은 지방호족들의 전략가 역할을 하면서 경주를 풍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지방호족으로 삼국을 통일한 왕건도 신라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송악을 근거지로 삼고 도선의 제자 경보(慶甫)와 천문지리에 능한 최지몽 같은 학자의 도움으로 풍수지리를 이용하여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와 풍수설, 도참설이 사회를 이끈 주도적 사상 경향이였다. 태조는 훈요10조를 발표하여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고려의 풍수적 관념을 볼 수 있다.

제2훈 : “모든 사원의 터는 도선이 산수의 순역(順逆)을 보아서 추점(推占)한 것이니 함부로 다른 곳에 창건치 말라. 다른 곳에 사원을 함부로 지으면 지덕(地德)을 손상시켜 국운이 길하지 못하다”

제5훈 : “짐은 삼한 산천의 음우(陰佑)를 받아 대업을 이룩한 것이다. 서경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므로 대업을 이룰 수 있는 만대지지다. 의당 사계절에 한 번씩 순유(巡遊)하여 백일은 머물러라. 그래야 나라가 안녕하다.”

제8훈 : “차현 이남의 금강 바깥에 있는 산형지세가 모두 등을 돌리고

19)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서울, 1984, p44.

달아나므로 인심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 지방 사람이 조정에 참여 하거나 왕후국척과 혼인을 하거나 국정을 맡게 되면 혹 국가를 변란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병합에 대한 원한이 남아있어 필시 난이 일어날 것이므로 설령 양민일지라도 벼슬 자리에 앉히지 말라”

위의 훈요10조에 나타난 풍수적 관념은 풍수 이외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 고려의 창건과 지도 이념을 설정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용될 만큼 풍수지리가 일반화 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고려시대에는 풍수 경전이 관찬(官撰)으로 이루어졌고 풍수 전문가를 국가에서 관리로 임명하여 인재 양성을 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 관리 선발의 시험과목으로 신집지리경, 유씨서, 지리결정, 경위령, 지경경, 구시결 등이 있었으나 현재 전하는 서적은 없다. 그러나 「고려사」에 풍수관련 언술들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려의 풍수는 흔히 비보진압(裨補鎮壓)풍수로 알려진 도선식 풍수였다는 점이다.

도선국사의 풍수는 음택지 풍수가 아닌 양기 및 국역의 풍수였으며, 주로 지형지세를 육안으로 살펴 그 땅의 성격, 토지의 하중능력 혹은 그 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땅을 이용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곳은 고쳐 쓰거나 특정한 비보물을 설치하여 사람들에게 주지시켜²⁰⁾ 양택풍수 비보풍수의 경향을 보였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지도이념으로 하였으므로 유교의 기본 전제인孝사상과 결합된 풍수지리는 큰 발전을 보게 되었다.

조선 건국과 정도 결정은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동향하여 궁궐을 지어야 한다는 무학대사와 북악산을 주산으로 남향하여 궁궐을 지어야 한다는 정도전의 첨예한 이견이 있었고 이는 정도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실정치에서 불교 세력이 퇴보하고 완전한 송유억불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을 통하여 관리를 임명 하였다.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풍수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상감의 주관아래 천문, 지리, 과학의 인재를 음양과를 통해 선발 하였다. 시험과목으로는 청오경, 금낭경, 지리신법, 명산론, 지리문정, 감룡, 착맥부, 의룡, 동림조담 등이 있었다. 앞에서 소개한 고려와 조선의 풍수 고시과목에서 보듯이 고려 풍수와는 전혀 다른 풍수이론이다.

20) 채성우 원저 김두규 역해, 『명산론』, 비봉출판사, 서울, 2002, p15.

유교를 국교로 채택한 조선조에서 호국불교식 풍수가 아닌 유교식 풍수가 유행하게 된다.

유교는 충효(忠孝)를 실천 원리로 하기 때문에 풍수 역시 충효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즉 왕실에서는 왕실의 무궁한 번창을 위한 왕릉과 태실 선정, 그리고 사대부들은 조상의 체백(體魄)을 좋은 곳에 모시자는 효의 실천 방법으로 풍수가 활용되면서 풍수는 음택(陰宅)풍수으로 그 중심점이 바뀌게 된다.²¹⁾

조선 사회의 건국 이념인 성리학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편으로 학파가 형성되어 도(道)와 리(理)의 논쟁이 생기고 보수와 진보적 성향의 논쟁으로 권력투쟁과 과당적 당쟁으로 전락하는 등 국론의 분열상을 보였다.

7년간의 임란으로 전국토가 황폐화 되고 민심이 흉흉하게 되자 광해군은 왕권의 안정과 민심의 쇄신을 위해 풍수지리설에 의한 교하천도를 꿈꾸었다. 광해군은 이의신에게 교하의 산세를 살펴보라고 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풍수지리설을 이용한 왕권 안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교하천도론은 공론화되기도 전에 인조반정과 광해군의 폐위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조선후기 임란과 호란 그리고 치열한 당쟁으로 사회 경제적 모순이 격화되고 홍경래의 난과 동학농민 혁명은 풍수지리설을 이용하여 민중들에게 한 조각 희망을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홍경래의 난은 청강의 풍수지사 홍경래와 가산의 풍수지사 우장서, 태천의 역사 김사용의 주도하에 세도정치에 반대와 반봉건적인 사회건설을 외치면서 서북지방에서 대규모의 반란을 일어 키고 풍수지리설로 그 방편을 삼았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은 비기를 믿어 천하의 명당이라는 곳을 찾아다니며 일시적으로 기거하기를 좋아했고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이 혼합된 「정감록」을 이용혁명의 세를 규합하였다.

한편 조선후기는 서양 문물이 전래되고 뜻있는 양반과 중인들을 중심으로 실사구시 이용후생의 학문이 싹트게 되었다. 이들은 정치, 경제, 농업, 역사, 언어, 금석, 지리 등 각 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고 풍수지리설도 국토에 대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되기 시작하였다. 이 중환의 택리지(擇里志), 홍만선의 산림경제(山林經濟), 서유구의 임원경제육지(林園經濟六志), 신경준의 산경표(山徑表),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등²²⁾이 그것이다.

21) 채성우 원저, 김두규 역해, 전계서, p17.

22) 정경연, 전계서, p44.

조선은 왕권이 안정되면서 풍수지리는 신비적 풍수와 합리적 지리로 이원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후기 실학자들도 이러한 이중구조 심리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현실적인 유교의 대 사회관에 따라 합리적인 지리의 관점에서 살만한 터를 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쟁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현실 도피적 풍수를 결코 도외시 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²³⁾

일제시대는 우리의 풍수도 시련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조선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풍수지리에 밝은 조선인을 선발하여 위원회를 만들고 명당의 혈맥을 끊었으며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면서 의도적으로 산맥을 자르기도 했다. 또한 우리민족의 토지관이자 인문지리관인 풍수지리 사상을 미신화 시키고 민족사상을 비하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폈다. 한반도의 지형을 토끼형국으로 비하시키고, 경복궁 근정전 앞에 조선총독부 청사를, 경복궁의 내룡에 총독의 관저를 건축하여 지맥을 교란시켰다.

백두산은 못 산의 제왕이요 모든 산줄기의 중심이다. 나라 땅의 모든 힘이 거기에 실려 있다. 그뿐인가 백두산은 단군 시조께서 나라를 연 곳이다. 단군 이래 민족의 성산이다.²⁴⁾ 일제는 민족의 성산을 지워버리기 위해 민족 자존심에 대한 관념의 장막을 치는 방법으로 산맥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백두대간을 분해하고 소백산맥을 우리나라의 등뼈로 왜곡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으로 풍수사상은 침체기를 면치 못했다.

현대에 이르러 6·25 전쟁과 경제개발을 통하여 들어온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풍수사상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천시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경제·사회적으로 안정기를 맞이하면서 민족의 주체성이 강화되고 전통 풍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풍수지리도 젊은 학자들 사이에 연구가 활발해지고 일반 국민들도 미신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연지리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²⁵⁾

최근에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도서출판도 활발해지고 건축과 조경, 지리, 민속, 한의학, 환경,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풍수지리가 정규과정으로 개설되어 공인된 학문으로 인정받아 양질의 논문이 발표되고 외국의 풍수지리를 연구하여 발표²⁶⁾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23) 최창조, 『땅의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서울, 1992, p160.

24) 조석필, 『태백산맥은 없다』, 도서출판 산악문화, 서울, 1997, p137.

25) 정경연, 전계서, p 49.

한국은 풍수지리의 발생국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이제 풍수지리 사상을 세계의 문화상품으로, 자연과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가고 있다.

제 2절 풍수지리의 입지이론

1. 간룡법(看龍法)

간룡법은 산의 흐름 형태를 살펴 용맥의 좋고 나쁨을 조산으로부터 혈장까지 살펴 판단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산의 발원지인 백두산에서 혈의 주산에까지 산맥이 힘 있게 끊어지지 않고 잘 내려 왔는지를 살펴 용처럼 생기 있게 뻗어 있으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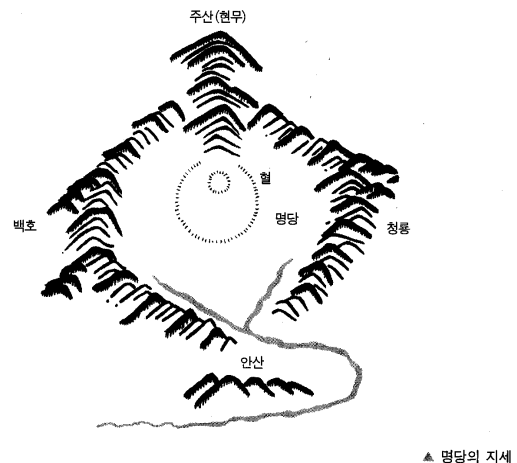
가. 용의정의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용(龍)이란 산과 능선을 말한다.

용은 귀(貴)의 상징으로 설화나 전설에서 지극히 귀한 존재이다. 풍수에서 산과 능선을 살아 움직이는 형상과 같이 본 것이기 때문이다. 용은 산맥의 표면 형태이고, 기운은 맥속에 흐르는 힘이다. 따라서 지세를 분석하는 것은 용을 통해 흐르는 기운의 성질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 용의 일반적인 형태

산 정상에서 출발한 용은 혈에 이르기까지 직선과 곡선을 반복하여 행동한다. 좌우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앞으로 진행하는 직선 형태의 용을 중심용이라 하고, 이에 반해 산 정상에서 시작한 용이 혈까지 곡선을 이루고 있는 용으로 마치 사람의 왼쪽 팔과 같이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



< 도 2 >

26) 박시익 저, 『풍수지리로 본 서양건축과 음악』, 도서출판 일빛, 서울, 2006.

쪽으로 방향이 변하는 것을 좌선통이라 하고,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곡선의 방향이 바뀌어 연결된 것을 우선통이라 한다. 또한 좌선을 한 뒤 우선하거나 우선을 한 뒤 좌선을 하는 등 변화를 갖는 것을 혼합곡선이란다.

다. 용의 앞·뒤

우주만물에는 모두 음과 양이 있고 앞과 뒤가 있다. 산의 앞면은 양에 속하여 비교적 지면이 균일하고, 안정적이어서 아름답고 밝은 빛을 발하여 유정한 느낌을 준다. 반면에 용의 뒷면은 음에 속하고 험한 바위로 지면이 불안정하고, 토색이 어둡고 무정한 느낌을 준다. 행룡하는 용이 좌선통일 경우 오른쪽이 앞면이 되고 왼쪽이 뒷면이 된다. 그러나 우선통일 경우에는 용의 왼쪽이 앞면이 되고, 오른쪽이 뒷면이 된다.

사람에게 얼굴의 눈, 코, 입, 가슴, 배 등 중요한 기관은 앞면에 있고, 뒷면은 등뼈로 이루어져 앞면을 보호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용도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혈을 찾을 때에는 용의 앞과 뒤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혈을 찾을 때에는 용의 앞면에서 찾아야 한다.



(우선통) ← 중심통 → (좌선통)



우선통

혼합 곡선통

좌선통

◀ 용의 종류

라. 주룡의 행룡과정

주룡은 수많은 산맥이나 능선 중에서도 산의 주봉에서 혈까지 연결되는 능선만을 말한다. 혈의 기운은 주봉의 기운이 용맥을 통해

모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용맥의 기운이 좋으면 혈도 따라서 좋은 기운을 받게 된다. 만약 용맥이 끊어져 없거나 병들어 부실하고 허약하면 진혈을 맺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용맥은 조종산(祖宗山)인 태조산(太祖

< 도 3 >

山)에서 출발하여 중조산(中祖山), 소조산(小祖山), 현무봉(玄武峰)을 거쳐 혈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식물의 뿌리(태조산)에서 줄기(주룡)를 통하여 가지(중조산)를 뻗고 다시 새가지(소조산)에서 꽃봉우리(현무봉)가 되어 꽃과 열매(혈)를 맺는 이치이다.

1) 태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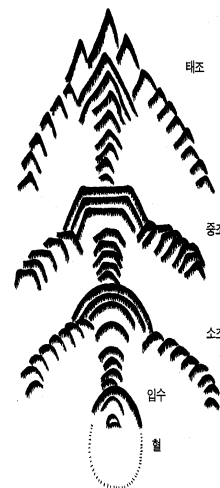
태조산이란 한 산맥의 처음 출발이자 일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다.

태조산은 험하고 거친 바위산들이 우뚝우뚝 솟아 멀리서 보면 산허리에 구름이 걸쳐있어 수려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험준한 기암괴석이 살기를 뿜어내고 있어 접근하기가 어렵다. 태조산은 취강산(聚講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왕이 신하들 앞에서 조회를 하고 강론이 끝나고 나면 예하 산들은 각자의 임무를 위해 원행(遠行)을 떠나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2) 중조산

태조산에서 출맥한 용이 혈을 맺기 위해서는 그 기운이 정제 순화되어야 하는데 중조산은 태조산의 험하고 살기(殺氣)있는 용을 정제 순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태조산에서 발전된 고압의 전기를 변전소를 통하여 전압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조산이라 할 수 있다.

중조산의 형세는 아직 주변산에 비하여 위엄과 살기를 가지고 있어 일개 시·군을 대표하는 산으로서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 용의 5단계 변화 과정

< 도 4 >

3) 소조산

중조산이라고 하는 변전소에서 다시 출발한 용은 수 백리 또는 수 십리의 원행을 하며 박환, 개장, 천심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기세가 정제되면 혈을 맺기 위해 단정하고 수려한 봉우리를 일어져 소조산을 만들어 낸다. 소조산의 형태와 정신은 태조산, 중조산의 근본 오행 정신을 변치 않고 유지시키고 또 혈로 전하여 응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혈의 형태가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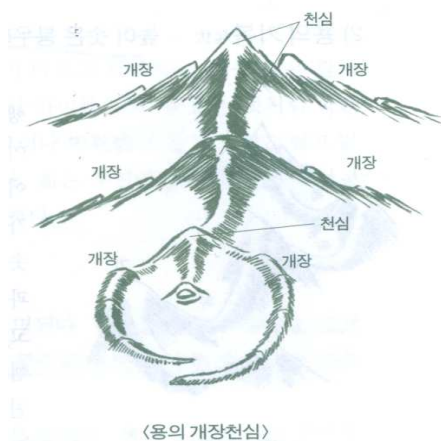
조산의 정신과 다를 경우 주혈이 아니라 차혈(次穴)이거나 가혈(假穴)이다.

4) 현무봉

소조산은 양 어깨를 내밀어 청룡과 백호의 능선을 만들고 중심맥을 형성하여 단정하고 아름다운 봉우리를 일컫니 이것이 현무봉이다. 태조산에서 출맥한 용은 중조산, 소조산을 거쳐 원행을 하면서 천심, 개장, 위이, 박환의 과정과 기복 변환을 거쳐 거칠고 험한 살기를 모두 벗어 버리고 섬세하고 부드럽게 탈살하여 이제 마지막 혈을 만들 준비를 한다. 즉 입수도두를 통하여 혈로 생기를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현무봉이다.

마. 용의변화

태조산을 출발한 주룡이 혈과 명당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룡하는 동안 기묘한 변화 과정을 거쳐 그 기운을 혈에 전달하여야 한다. 용의 행태가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듯 힘 있게 변화되어 기운을 전달하면 이것이 생룡(生龍)이며, 용이 꿈틀거리지 못하고 기운이 없으면 사룡(死龍)이 된다. 혈은 모든 살을 탈피하여 깨끗하고 생기 있는 용에서만 결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행룡하는 용의 각종 변화는 혈을 결지하기 위한 일종의 진통인 것이다.



< 도 5 >

1) 개장(開帳)과 천심(穿心)

개장이란 장막을 병풍처럼 넓게 펼친다는 뜻으로 산이 주산을 중심으로 좌우로 넓게 펼쳐진 것을 뜻한다.²⁷⁾ 마치 독수리가 좌우 날개를 넓게 펴고 나는 모습과도 같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이가 균형을 잡기 위해 양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 이때 양 날개는 동일한 정점에서 펼쳐지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정점에서 펼쳐지기도 한다. 동일한 정점에서 펼쳐지는 경우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십자맥을 형성하게 된다.

천심이란 개장한 용의 중심맥이 앞으로 힘

27) 박시익, 전계서, p115.

차게 나아가는 형세를 말한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개장한 다음 몸통을 앞으로 전진시켜 나아가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개장과 천심은 상호 균형을 이루어 개장한 능선이 천심한 주룡을 유정하게 감싸주어야 주룡의 기세가 흩어지지 않고 보호된다.

2) 박환(剝換)과 과협(過峽)

박환이란 거칠고 험하여 살기 있는 용이 부드럽고 순화된 용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르는 말로 마치 누에가 허물을 벗고 더 아름답고 성숙된 모습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용의 박환은 행룡의 방향을 바꾸어 줌으로써 용에 생기를 주기도 하고 용의 모습을 변화시켜 체형을 바꾸기도 한다. 혈은 험하고 거친 곳에서는 맺지 못한다. 항상 밝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생기 있는 용에서만 결지할 수 있다

과협이란 산봉우리와 산봉우리를 이어주는 고개로 목과 같이 가늘고 강한 용을 말한다.

과협의 기능은 주룡의 살기(殺氣) 있는 기운을 털어내고 수려하고 유연하게 순화시키는데 있다. 또한 용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생기를 왕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과협의 형태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벌의 가느다란 허리와 같은 봉요(蜂腰)와 학의 부드러운 무릎과 같은 학슬형(鶴膝形)이 있다.

3) 요도(橈棹) 지각(支脚) 지각(止脚)

요도(橈棹)는 용맥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 좌우로 변화시켜주는 반작용에너지 용이다. 용맥의 안정된 변역질서를 위한 반 에너지 변화각도는 30도, 60도, 90도, 120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변화는 요도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용맥의 역량에 비하여 요도가 너무 강하거나 약하면 변위각 30도 배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무기룡(無記龍)이나 병룡(病龍)이 된다.

지각(支脚)은 요도처럼 용맥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반작용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 한일자(一) 형태로 적당한 거리를 직진할 때 파괴되거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받침 역할을 한다. 즉 용이 사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는 것이다.

지각(止脚)은 본신용맥, 요도, 지각(支脚)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안정을유

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지각(止脚)은 형태에 따라 마치 요도에 의해 용맥이 번역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요도(橈棹), 지각(支脚), 지각(止脚)의 용에서는 혈장으로서의 생기가 흐르지 않으므로 혈을 결지할 수가 없다.

4) 위이(透迤)(= 좌우 진행형)

위이는 뱀이 앞으로 구불구불하게 기어가는 모습처럼 용이 좌우로 굴곡 하여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주룡이 태조산에서 출맥하여 개장, 천심, 과협, 박환 등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험한 기(氣)를 모두 탈살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살기를 모두 털어버리고 완전히 순화된 기만 입수도두에 공급해주기 위한 마지막 남은 순화과정이 위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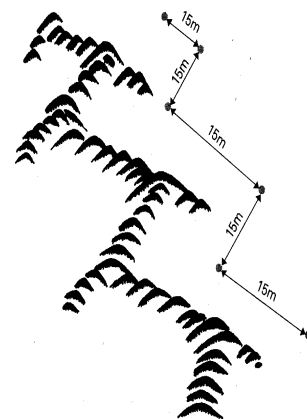
〈용의 위이〉

< 도 6 >

5) 기복(起伏)(=상하 진행형)

기복은 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높이 솟아 올랐다 떨어지고 다시 솟아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솟아오른 봉우리는 기(起)가 되고 떨어져 엎드린 고개는 복(伏)이 된다.

행룡이 상하운동을 반복하는 것은 강한 기운을 가진 길한 용으로 보고 상하의 변화 없이 가파르게 뻗은 용은 사맥의 흉룡으로 분석된다.



◀ 용의 마디

6) 용의 마디와 발복 기간

사람이 앞으로 걸을 때 나타나는 발자국은 좌우로 갈지자를 그리며 보통 60cm의 폭으로 걷게 된다. 마찬가지로 용이 전진할 때 갈지자를 그리며 나아가게 되는데 보통 건강한 용은 그 폭이 15m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보폭으로 인한 변화의 폭을

< 도 7 >

마디 또는 절이라고 한다. 용에 따라 걸음 폭이 20m를 넘는 경우도 있지

만 30m를 넘어도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사룡으로 해석한다.²⁸⁾ 용이 좌우로 진행하며 형성되는 변화 각도는 30도를 이루며 힘이 강한 용일수록 변화 각도가 크다. 반면에 힘이 약한 용은 30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예 변화 각도가 없는 사룡도 있다.

이상적인 생룡은 대략 15m마다 한 절을 이루고 있다. 절의 수는 곧 발복 기간을 의미하며 한절의 발복 기간은 30년이다.²⁹⁾ 그러나 용에 따라 절의 길이가 다르고 또 내려오는 용맥의 계속연결 여부 등을 참작해야 하므로 혈에 연결된 용의 절수와 발복 기간은 현장에서 직접 신중하게 관찰해 보아야 한다.

바. 용세 12격

용은 혈장의 근원이 되는 태조산에서 출맥하여 혈장까지 맥을 이어오는 동안 천태만상의 형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용의 변화무쌍한 형태를 관찰하고 성정을 파악하여 미추(美醜), 길흉(吉凶)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용의 형태는 생룡, 사룡, 강룡, 약룡, 순룡, 역룡, 진룡, 퇴룡, 복룡, 병룡, 겁룡, 살룡³⁰⁾의 12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 생룡, 강룡, 순룡, 진룡은 5길격이고 사룡, 약룡, 역룡, 퇴룡, 병룡, 겁룡, 살룡은 7흉격이라 한다.

생룡(生龍)은 굴곡과 기복으로 번역하면서 생동감 있게 진행하는 용을 말한다. 용의 모습이 수려 단정하면서 질서정연하고 마디와 지각이 많이 있다.

강룡(強龍)은 기세의 변화가 크고 힘이 있으며 산봉우리 사이가 멀고 산의 모습이 웅장하다. 호랑이가 숲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위풍당당한 모습이이다.

순룡(順龍)은 산봉이 유순하고 지각이 앞을 향해 펼쳐져 행도가 둥글게 모인 것이다. 조산을 떠난 용이 내려오면서 고저의 순서가 있고 좌우가 환포되어 유정하게 감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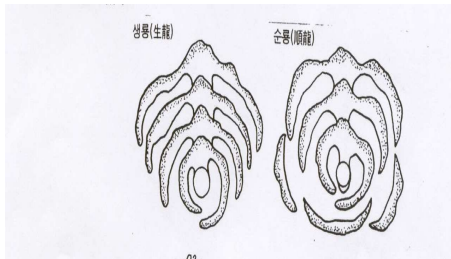
28) 박시익, 전계서, p114.

29) 박시익, 전계서, p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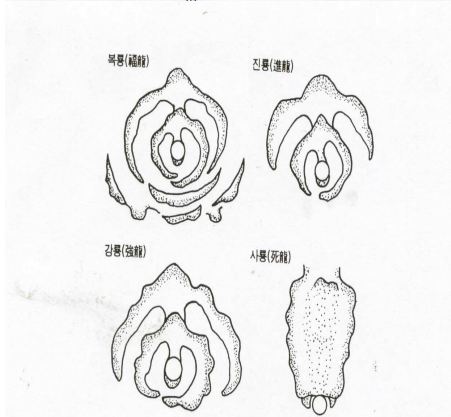
30) 서선계 서선술 저, 김동규 역, 『인자수지』, 명문당, 서울, 1992, p286

『명산론』에서는 생룡, 복룡, 응룡, 읍룡, 왕룡, 살룡, 귀룡, 겁룡, 유룡, 병룡, 사룡, 절룡으로 분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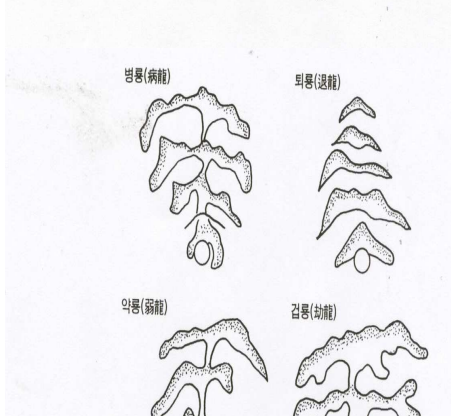
진룡(進龍)은 용의 행도가 질서 정연하고 고저 기복에도 순서가 있다. 석산이 점차 토산으로 바뀌어 박환하면서 내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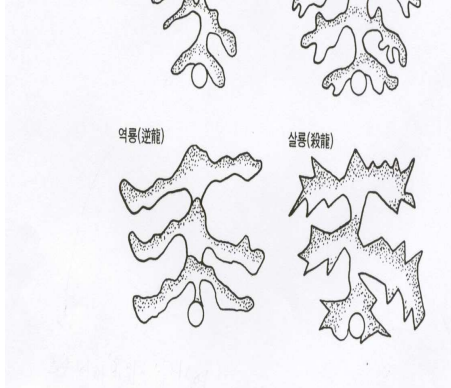
복룡(福龍)은 조종산이 수려 장엄하고 후덕하게 생겨 좌우에서 호종보위하고 전후에서 상응하는 산이 많고 창고사 금계 같은 사적이 과협이나 공협사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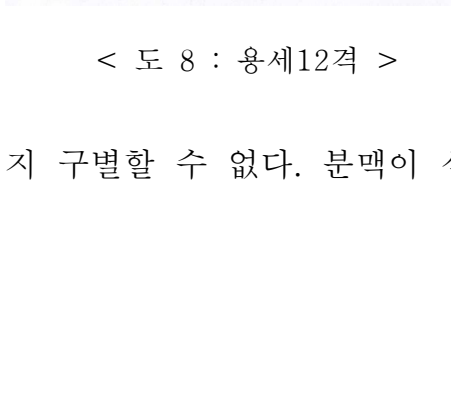
사룡(死龍)은 용맥이 모호하고 거칠며 지각이 없어 마치 가지 없는 나무토막을 잘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은 미꾸라지나 뱀같이 축 늘어져 생기가 없어 혈을 결지할 수 없다.



약룡(弱龍)은 지각이 짧고 용맥이 늘어져 마치 병들고 굶주린 말이 엎드린 듯 물고기가 건조한 논바닥에 힘없이 늘어진 듯한 매우 허약한 용이다.



역룡(逆龍)은 산봉이 기울어지고 지각이 뒤를 향해 역으로 뻗어 용과 혈을 배반하는 형상으로 마치 새가 거꾸로 나는 듯한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불효, 반역자가 배출되는 흉격산이다.



퇴룡(退龍)은 처음 시작하는 산봉우리는 낮고 작으나 행룡하면서 높고 큰 용으로 변하는, 즉 높고 낮음의 차례 상하 질서가 없고 근본이 허약하여 결지할 수 없는 용이다.

병룡(病龍)은 용이 대세를 두루 갖추어 아름답게 보이나 그중 어느 곳이 상처나 병통이 있어 결함이 생긴 용으로 기맥을 상한 흉격이다.

검룡(劫龍)은 용신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지고 쪼개져서 어느 것이 주룡이고 방룡인지 구별할 수 없다. 분맥이 심해 용세가 모두 흩어지고 나약하여 결지할

< 도 8 : 용세12격 >

수가 없는 용이다.

살룡(殺龍)은 용신에 험한 바위와 절벽이 있어 뽕족하고 포악한 살기가 탈살되지 않고 무서운 용모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거칠고 경직되어 과협도 없이 낭떠러지가 많아 혈을 결지할 수 없는 흉룡이다.

2. 장풍법

장풍법이란 명당 주변에 불어오는 바람을 가두어 나가지 못하게 하여 생기를 갈무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람은 지중에서 발생하는 생기를 흠어 지게 하므로 생기를 포용하고 음양의 원기를 지닌 바람으로 모을 수 있다면 풍수가 노리는 목적에 공(供)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³¹⁾ 또한 풍수의 장풍법은 음래(陰來)의 땅과 양수(陽受)의 땅으로써 국(局)을 이루며 혈의 사방을 산으로 둘러싸고 그 중앙 분지에서 음양(陰陽) 양원을 충화하게 하여 생기가 충일하도록 꾀한다. 이 사방을 둘러싸는 것을 풍수에서는 사(砂)라 한다.³²⁾

가. 산의 종류

1) 산의 3품격³³⁾

산은 형태에 따라 저마다 고유한 기운을 지니고 있는데 그 산이 가지고 있는 품격에 따라 주인격, 보조격, 배반격으로 나눌 수 있다.

주인격산은 한 지역에서 주인과 같이 강한 능력을 지니고 기품 있는 지도자와 같은 산을 말한다. 주인격산은 피라미드와 같이 중심에 균형을 이루어 안정

형태	품격
	주인격
	보조격
	배반격

▲ 산의 형태에 따른 3품격

< 도 9 >

31)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서울, 1984, p100.

32) 촌산지준 저, 최성길 역, 『조선의 풍수』, 민음사, 서울, 1990, p60.

33) 박시익, 전계서, p74.

되고 강한 기운이 집중되어 아름다운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산이 있는 지역의 명당에서 배출되는 인물은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된다.

보조격산은 주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산으로 강한 기운이 부족한 산이다. 지세로 보아 중심 봉우리가 낮고 좁아서 기운

이 중심에 모이지 않고 좌우로 분산되는 형태의 산이다. 이런 지세에서는 강력한 지도자 보다는 큰 인물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이된다.

배반격산은 주인격산의 기운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격 산의 기운을 빼앗는 산이다. 배반격산은 주산을 향해 마주보지 않고 주산을 등지고 있는 산이다. 이런 지세에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게 된다.

2) 오행산

산 정상기의 기운을 오행설의 구분에 따라 목산, 화산, 토산, 금산, 수산으로 나눌 수 있다.

목산은 산 정상기 죽순이나 붓끝처럼 뽕족뽕족 솟아 있거나 꽃 봉우리처럼 원통형으로 솟아 수직상승하는 기운이 많고 학문을 숭상하는 사람이 많이 배출된다. 북악산이 목산이자 문필봉의 대표적인 형태이다.³⁴⁾

화산은 산의 정상부가 불꽃이 타오르는 듯 뽕족뽕족한 봉우리를 이루면서 암석이 날카롭게 서 있는 산이다. 불은 폭발해서 확산하는 기운이 있듯이 화산 또한 폭발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화산이 있는 지세에서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종교인이나 예술가가 배출되기도 한다.

토산은 산의 정상부가 한일자(一) 모양으로 평탄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 산으로 일자문성(一字文星)이라 부르기도 한다. 토산은

	목산(木山)
	화산(火山)
	토산(土山)
	금산(金山)
	수산(水山)

▲ 오행산의 형태

< 도 10 >

34) 박시익, 전계서, p75.

좌우 힘의 균형을 이룬 산으로 이런 지세의 산에서는 왕이나 왕비가 배출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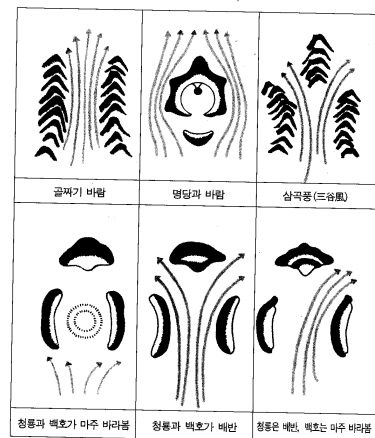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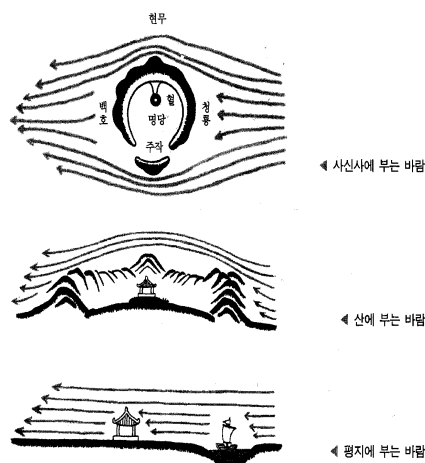
금산은 산의 정상이 마치 종(鐘)이나 바가지를 얹어놓은 듯한 형태로 노적가리를 쌓아놓은 모습과도 유사하여 노적봉 또는 부봉이라고도 한다. 산의 형태가 둥글면서도 힘차게 보이는 산은 투구봉이라고도 하여 장군이 배출되기도 한다.

수산은 부드럽고 평화롭게 보이는 봉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의 산으로 이러한 산은 기운이 한 지점에 모이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 된다.

나. 사신사(四神砂)

사신사는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 사면에서 혈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말한다.

주산을 등지고 지대가 낮은 곳을 향해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왼쪽에 있는 산을 청룡, 오른쪽에 있는 산을 백호, 앞에 있는 산을 주작, 그리고 뒤에 있는 산을 현무라고하며 일반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라고 말한다.³⁵⁾



▲ 사신사와 바람

< 도 11 >

사신사는 고대인의 신앙인 삼신 오제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³⁶⁾ 삼신

35) 박시익, 전계서, p137.

이란 하느님의 조화신(造化神) 치화신(治化神) 교화신(敎化神)을 말하고 오제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5개 방위에서 하느님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분신이다. 하늘에 있는 오제가 지상에 올 때 청제는 청색의 옷을 입고 용이 되어 동쪽에, 백제는 흰색의 옷을 입고 호랑이가 되어 서쪽에, 주제는 붉은 옷을 입고 봉황이 되어 남쪽에, 북제는 검은 옷을 입고 거북이 되어 북쪽에, 황제는 노란옷을 입고 사람이 되어 중앙에 나타난다. 하늘의 신이 지상에 내려올 때는 산을 통해 내려와 산에 머물러 있으며 동쪽산에는 청룡, 서쪽산에는 백호 남쪽산에는 주작 북쪽산에는 현무가 자리하여 중앙의 황제를 둘러싸서 보호한다.

다. 사신사의 3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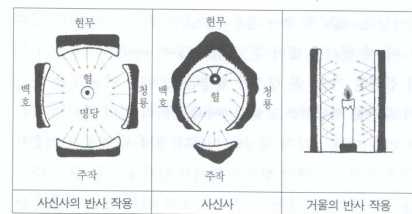
사신사는 혈을 호위하고 혈을 위한 장벽의 역할을 해야한다. 명당에 들어온 바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신사는 바람막이 기능, 곡면반사 기능, 볼록렌즈 기능 등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³⁷⁾

용호가 바람막이 기능을 하고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좌우에서 혈을 향해 마주보고 삼태기처럼 둥그런 원형을 이루어 감싸 주어야 한다. 용호가 명당을 향해 마주보고 감싸주지 않고 등을 보이고 있으면 오히려 바람을 일으키게 되어 결코 명당을 이룰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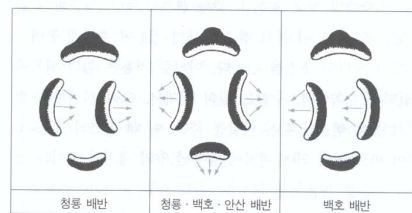
곡면반사경이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이 받아들인 빛을 반사시켜 한점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태양과 달 그리고 주변의 산과 나무

등에서 비춰주는 빛을 받아 다시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 반사시켜 그곳에 신비한 기운 즉 생기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볼록렌즈는 흩어져 있는 빛을 한 점으로 모아 밝고 뜨겁게 한다.



▲ 사신사의 반사경 작용



▲ 사신사 반사경의 방향

< 도 12 >

36) 박시익, 전게서, p138.

37) 박시익, 전게서, p140.

사신사의 이상적인 형태는 주변 사세가 혈을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혈의 전후좌우에서 둥글게 감싸서 볼록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렌즈의 공통 초점이 되는 곳이 바로 혈이 되어 엄청난 양의 생기가 모이는 것이다.

라. 사신사의 생기

1) 청룡, 백호

용호가 혈을 중심으로 좌우측에서 여러 겹으로 혈을 호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가까운 안쪽의 청룡을 내청룡이라 하고 내청룡 뒤에 있는 산을 외청룡이라 한다. 또 혈이나 명당에 가까이 있는 백호는 내백호라 하고 내백호 뒤에 있는 산을 외백호라 한다.

청룡 가운데 가까운 주산에서 맥이 연결된 청룡을 본신청룡이라 하고 주산에서 맥이 연결되지 않고 다른 산에서 연결된 청룡을 외신청룡이라고 한다. 또한 백호 가운데 주산에서 맥이 연결된 백호를 본신백호라 하고 주산에서 맥이 연결되지 않고 다른 산에서 맥이 연결된 백호를 외신백호라고 한다.

용호는 그 주된 임무가 장풍에 있고 좌우에서 서로 긴밀하게 둘러싸고 이중 삼중으로 겹이 많을수록 성국은 완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청룡에서 발생하는 생기는 대표적으로 자손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갖고 있다.³⁸⁾ 청룡의 산세가 건강하면 힘차고 용감한 남성들이 배출되고 그렇지 않고 청룡의 지세가 약하면 병으로 고생하는 남성이 많아진다. 또한 청룡의 산세가 유순한 지세에서는 부모에 효도하고 충성하는 자손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 불효하고 등돌리는 자손이 나오게 된다. 청룡의 끝 부분이 집터를 등지고 멀리 뻗어나간 배반의 지세라면 형제 관계가 끊어지고 멀리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부모 곁을 멀리하는 후손이 발생한다.

백호의 지세는 여성의 체질이나 성격에도 반영되어 백호의 지세가 아름답고 유순한 곳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여성이 배출되는 반면 백호의 지세가 혈을 등지고 배반한 곳에서는 불효하고 가출하는 여성이 생기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한다.

용호는 어디까지나 호위와 장풍을 돕는 것이며 내룡과 혈의 하위에 있

38) 박시익, 전계서, p144.

는 것이기 때문에 성국에서는 용호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용호가 있어야 혈의 순화가 완전히 촉진되는 것이다. 만일 용호 두개의 산이 없어도 혈속의 순화가 충분히 행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용호는 꼭 산이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 중 하나 혹은 둘 다 결하는 경우에도 물로 대신할 수 있다.³⁹⁾

2) 주작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현무가 주인이라면 주작은 빈객이며 또는 보조자로서 현무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이상적이다.

주작은 전순에서부터 멀리 있는 조산 사이에 있는 산을 말한다. 주작에는 근조(近朝)와 원조(遠朝) 및 암궁(暗拱)이 있다.⁴⁰⁾ 근조는 혈 앞에서 멀리 않은 낮은 것이 좋으며, 원조는 혈 앞에서 멀기 때문에 혈에서 보면 그 첨단만이 보이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도 상관없다. 암궁은 용혈에서 바라볼 수 없는 조산이다.

백리의 내룡에는 백리 이내의 조산, 천리의 내룡에는 천리의 조산이어야만 하고, 현무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원거리의 것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유력한 암궁이라도 조산이 되지 않는다.

주작중에서 집터 가까이에 있는 안산은 재산 지위 평판과 같은 기운과 연관 된다. 그래서 주작이 좋은 집터에서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지만 주작이 나쁜 집터에서는 재산을 잃고 직장에서 누명을 쓰고 물러나는 등 명예를 더럽히게 된다.⁴¹⁾

3) 현무

현무는 사신사 가운데 가장 주(主)이며 이것이 없으면 풍수는 성립되지 않는다. 현무는 혈 뒷면에서 종(從)인 청룡 백호에 대해 주(主)이고, 객인 주작에 대해 주인인 까닭에 주산(主山)이라고도 칭하며 성국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생기가 흐르는 용이기 때문에 본산(本山) 또는 내룡이라고도 칭한다.

현무의 임무는 생기를 혈에 주입하여 주작과 함께 그 순화를 꾀하여 성

39) 촌산지순 저·최성길 역, 전계서, p64.

40) 촌산지순 저·최성길 역, 전계서, p67.

41) 박시익, 전계서, p146.

국을 이루는데 있으므로 현무는 기세가 등등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주룡에서 개장 천심 등 여러 변화 과정을 이루어 생룡이 되어야 한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가지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곳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 되는데 주작이 사회적 평판이나 여론 등 외부적인 기운을 주는데 반해 현무는 내부적인 힘을 만들어 준다.

마. 그 밖의 장풍사

장풍에 필요한 조건은 혈 주위에 있는 산과 물이 서로 긴밀하게 둘러싸고 중첩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사신사와 함께 주변의 사(砂)는 주산 또는 용혈의 호종사이며 종속물에 비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장풍에 필요한 사(砂)는 많을수록 풍수의 목적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신사 이외의 대표적인 장풍사로는 귀성과 낙산, 수구사 등이 있다.

1) 귀성(鬼星)과 낙산(樂山)

귀성(鬼星)은 내룡이 가로 누운 형태로 입수하는 그 바깥 측에 있는 것 즉 횡룡입수룡의 반대 측면에 붙은 작은 지각으로 바위나 단단한 흙으로 되어 용과 혈을 지탱하고 기운을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횡룡입수하는 혈에서는 반드시 귀성이 있어야 한다.

낙산(樂山)은 혈의 뒤에서 혈의 베개가 되는 것 즉, 횡룡입수하는 용의 뒤를 받쳐주면서 혈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혈의 허함을 보충해 준다. 귀성은 반드시 횡룡하는 주룡의 본신에 붙어 역할을 하지만 낙산은 주룡의 본신에서 나온 산이든 외부에서 달려온 산이든 상관없이 없고 후면에서 가까운 곳에서 단정하게 보호해주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본다.

2) 하수사(下水砂)

하수사는 혈 아래 붙어 있는 작은 능선으로 혈장을 지탱해주고 용맥을 보호하며 원진수가 직류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하수사는 작은 능선이 혈장 아래를 감아준 것으로 보통 여러 개로 구성되고 마치 팔을 안으로 감아주는 듯하여 원진수가 직류하지 못하게 한다.

하수사는 용이 결지하고 남은 여기가 흘러 이루어진다. 따라서 “혈을

찾을 때 용맥 보다 하수사가 혈을 감았는지를 먼저 보라”고 하였다. 물은 재물을 관장하기 때문에 하수사가 겹겹이 중첩되어 물을 역수시키면 그만큼 재물이 모인다. 그러나 하수사가 없거나 짧으면 빈곤하게 된다.

3) 수구사(水口砂)

청룡 백호 사이에 물이 흘러가는 곳을 수구라 하는데 이 수구의 양쪽 기슭에 있는 산이나 바위를 수구사라 한다. 수구사가 있으면 명당 안에 있는 물이 직류하여 빠르게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유속을 느리게하여 용과 물이 충분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수구사로는 한문(扞門), 화표(華表), 북신(北辰), 나성(羅星) 등이 있다.

한문(扞門)은 수구의 양쪽에 대치하여 문호를 지키는 산을 말한다. 마치 대궐을 지키는 수문장과 같은 모습으로 물의 직류를 막아준다. 한문(扞門)의 형태는 깃발, 북극성, 거북, 뱀 등을 닮은 것을 으뜸으로 친다.

화표(華表)는 수구의 물 가운데 기이한 봉우리가 불쑥 튀어나와 우뚝 솟거나 양쪽이 대치하여 물이 그 사이의 빈틈을 따라 흐르는 산을 말한다. 화표가 있어 수구가 관쇄 된다면 수구 안에는 진혈이 있다.

북신(北辰)은 수구의 물 가운데 특이한 형상을 한 바위가 있어 수구를 관쇄시키고 있는 것이다. 화표가 수구의 평범한 바위라면 북신은 용 거북 잉어 창고 금궐 등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어 용진혈적인 혈에 북신이 있다면 황후장상이나 국부가 배출되는 길지가 된다.

나성(羅星)은 수구의 수중에 돌이나 흙으로 된 둔덕이 돌기하여 이루어진 작은 섬을 말한다. 나성은 물의 직류와 급류를 막아 흐름을 완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3. 득수법(得水法)

풍수에서 물은 바람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물을 빼고는 풍수가 성립될 수 없고 혈을 결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인간 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물은 풍수에서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니고 있다.⁴²⁾

첫째 : 풍수에서는 물을 산과 마찬가지로 음 양의 발현체로 보고 양자가 합치면 생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42) 촌산지순 저, 최성길 역, 전계서, p82.

둘째 : 풍수에서는 산과 물을 대립시켜 산을 양으로 물을 음으로 본다
 셋째 : 풍수에서는 물이 동(動)인 것 보다 정(靜)이길 바란다. 물은 유동하는 본성이 있지만 본성대로 유동해서는 아무리 유력한 산과 만나도 생기의 순화를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산의 생기까지도 씻어가 버린다.
 넷째 : 물을 만나면 산을 멈추게 한다.
 다섯째 : 풍수에서는 물이 재화를 취득하는 것이라 한다.
 여섯째 : 산이 체(體)인데 대해 물은 용(用)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급속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가. 득수(得水)

풍수에서 그 성국을 이루는 물이 흘러오는 것을 득(得) 또는 견(見)이라고 하고 흘러가는 것을 파(破) 또는 불견(不見)이라고 한다. 득이란 물을 얻는다는 것이고 파는 물을 헤친다는 뜻이다. 또 견은 내수를 처음 본다는 뜻이며, 불견은 물이 흘러가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이 보이면 상락(相樂)할 수 없고 음양의 생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풍수에서 물이 직류하는 것을 꺼리고 굴곡하기를 바라는데, 직류수는 물의 오고감이 보이고 굴곡수는 물의 오고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득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첫째, 주룡의 생기를 보호하면서 인도해온 골육수(骨肉水)다.⁴³⁾ 이 물은 용맥내에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 분별이 어렵다. 골육수는 혈에 이르러 입수도두 뒤에서 선익을 따라 양쪽으로 갈라진 다음 순전 앞에서 다시 합수함으로써 그곳에 기가 모이고 혈이 맺는 것이다.

둘째, 주룡 능선과 내청룡 내백호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온 물이다. 좌우 양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혈앞 명당에서 합수되어 음양 교합을 하고 혈을 이룬다.

셋째, 외청룡과 외백호 사이에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 모여들어 합수하는 곳이다. 용맥의 생기를 외곽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나. 수구(水口)

명당내에서 음양의 양수(兩水)가 합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구라고 한다. 수구는 일반적으로 청룡 백호가 서로 포옹하는 사이를 곡류하는 것

43) 정경연, 전계서, p550.

으로 득파의 파에 해당하며 건 불건의 불건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는 청룡 백호가 서로 열싸안은 곳이 마치 입과 같이 생겼으니 용머리의 입이라는 의미와 청룡 백호가 서로 입을 갖다 맞춘 듯한 곳이기 때문에 수구라고 한다는 것이다.

수구는 또 하나 풍수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음양의 충화이다. 청룡의 안쪽을 따라 흐르는 양수(陽水)와 백호의 안쪽을 따라 흐르는 음수(陰水)가 합치는 곳이며 양(陽)인 청룡이 백호의 음수를 받고, 음(陰)인 백호는 청룡의 양수를 받음으로써 서로 음양이 충화한다. 흡사 암수가 기를 합하기 위하여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가 충화함으로써 생기가 활동하고 혈속에서 화순을 돕고 양자가 친목하고 상호 협력하여 오랫동안 국혈을 호위한다. 풍수의 성국에 수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 물의 음양

물은 산에 대해서 움직이는 양이지만 혈 앞의 물을 음양으로 나누는 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⁴⁴⁾

첫째는 용호에 따라 가르는 것이다. 즉 청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양수, 백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음수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방위에 따라 가르는 것이다. 즉 24방위 중 갑(甲) 병(丙) 경(庚) 임(壬)은 양간(陽干)으로 양수이고, 을(乙) 정(丁) 신(辛) 계(癸)는 음간(陰干)으로 이 방위에서 발현하는 물은 음수(陰水)이다.

셋째는 좌우에 의해 가르는 것으로 좌측에서 시작하여 우측으로 가는 것을 양수, 우측에서 시작하여 좌측으로 가는 것을 음수라 한다.

물을 음양으로 나누는 근본 관념은 역시 양래음수 음래양수로 양자의 충화를 성립시키기 위해서이다. 또한 물의 충화는 단순히 음양 충화를 이루며 생기의 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양(陽)수가 남자를 관장하고 음(陰)수는 여자를 관장하여 음(陰)수가 우세하면 그 자손에 여자가 많거나 우세하고, 양(陽)수가 우세하면 그 자손에 남자가 많거나 우세한 인물이 나온다고 한다.

44) 촌산지순 저, 최성길 역, 전계서, p86.

라. 물의 방향과 명당지세

산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경사를 이루는 것과 같이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산의 경사도와 물의 경사도가 같은 방향을 이루는 경우 이를 산수동거(山水同去)라고 한다. 이러한 곳에서는 명당을 이룰 수가 없다.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 음양의 충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이 산의 경사와 반대로 흐르는 것을 역수(逆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명당이 발생한다.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마주칠 수 있어 음양의 충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흐르는 물이 음양의 충화로 인하여 명당 결혈 할 수 있는 지세는 주걱형지세와 행주형지세가 있다.

1) 주걱형지세⁴⁵⁾

명당은 물의 흐름이 산의 기운과 서로 마주치는 지역에서 음양의 조화로 인하여 발생한다. 강가에서 물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흘러가는데 이러한 강가에서 명당 결혈하려면 물의 흐름을 걷어 올리는 듯한 주걱과 같은 지세를 이루어야 한다. 즉 물이 흘러오는 쪽을 향해 산이 마주보고 있어서 흘러오는 물을 막아 걷어 올려 역수를 시켜야 음양의 충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세는 뉴욕 맨해튼지역의 허드슨강, 캐나다 벤쿠버, 서울의 청계천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 행주형지세⁴⁶⁾

행주형(行舟形)은 강물을 따라 형성되는 명당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강가에 물이 굽이쳐서 그 지역이 마치 배의 형태 또는 반달과 같은 형태로, 흘러가는 강물을 마주보고 퍼 올리는 손가락 모습 또는 배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손가락의 오목부분 즉 배의 상부에 가까운 부분을 말하며 손가락의 손잡이나 배의 하부는 명당이 되지 못한다.

행주형은 반달 또는 초승달의 형태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행주형은 강물이 흘러가는 지세의 한쪽에 위치하게 되며 강물의 하부에서는 물이 휘어나가는 수구가 된다.

45) 박시익, 전계서, p97.

46) 박시익, 전계서, p97.

행주형 명당은 청주, 평양, 워싱턴, 리치먼드, 코스마운스, 보스턴, 디트로이트, 시카고 등이 이에 속한다.

마. 물의 종류와 길흉

물은 형태, 심천, 청탁, 속도, 맛, 방위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또 그 길흉 판단도 복잡 다단하게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지리대전」에서도 득수의 관찰법이란 “외수(外水)의 대소(大小)심천(深淺)을 기준으로 하여 땅의 경중을 식별하고, 내수(內水)가 나뉘고 모이는 것을 살펴서 땅의 진위를 식별하는 것이 그 전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극히 타당한 설이다.⁴⁷⁾

풍수에서의 물은 혈을 중심으로 혈에 가까운 것은 내수(內水)라 하고 혈에서 먼 것을 외수(外水)라 하는데 이는 내용호를 기준으로 내용호 내에 있는 것을 내수(內水), 그 바깥의 것을 외수(外水)라 한다. 「명산론」에서는 물을 진룡수, 승룡수, 수룡수, 조룡수, 요룡수, 호룡수, 현무수⁴⁸⁾의 7수로 나누고 있는데 앞의 넷은 외수이고 뒤의 셋은 내수라 하겠다.

1) 진룡수(進龍水)

진룡수는 용이 기를 토해내는 곳(龍口)에 물이 있어 그 물이 빠르게 명당으로 흘러들어 물길이 나뉘어져 혈처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 물은 사람을 출세시키거나 이익을 주는데 혈장 좌측으로 물이 들면 남자가 잘되고 혈장 우측으로 물이 들면 여자가 잘된다.

2) 승룡수(乘龍水)

승룡수는 혈의 좌우에 물이 있어 그 두 물이 공손하게 두손을 마주잡고 무덤에 읍(揖)하듯이 흘러오면서 무덤 앞에서 합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 물은 가축과 재산증식을 가져오는 응험(感應)이 있다.

3) 수룡수(隨龍水)

수룡수는 주산이나 조산 등 멀리서부터 물이 내룡의 좌우를 따라 내려오다가 혈이 맺힌 부분에 이르러 그 두물이 혈을 둘러싸서 공손하게 두손

47) 촌산지순 저, 최성길 역, 전게서, p91.

48) 최성우 저, 김두규 역, 『명산론』, 비봉출판사, 서울, 2002, p135.

을 마주잡고 읊(揖)하듯이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말한다. 그 물은 부(富), 귀(貴)두 가지 명당 발복을 가져오는 응험이 있다.

4) 조룡수(朝龍水)

조룡수는 안산 쪽에서 혈 쪽으로 물이 흘러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명당 안 즉 혈 바로 앞까지 다다르거나, 혹은 2·3번 4·5번 물길이 감아 도는 것을 말한다. 그 물은 부귀가 융성하게 하고 그 복록은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응험이 있다.

5) 요룡수(遼龍水)

요룡수는 용을 이룬 곳 즉 혈이 맺힌 곳에 물이 있고, 그 물이 혈처를 둘러 감싸기를 2·3번 혹은 4·5번 거듭한 것을 말한다. 그 물은 부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응험이 있다.

6) 호룡수(護龍水)

호룡수는 수구(地戶)쪽에서 물이 거꾸로 흘러와서 혈이 맺힌 곳을 향하여 문안 인사를 여쭙는 것과 같은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2·3번 4·5번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 물은 부귀가 나라에 필적할 만하며, 국가에 충성하며 부모에 효도하는 인물을 나오게 하는 응험이 있다.

7) 현무일수(玄武一水)

현무일수는 혈 주위 24방위를 난간처럼 빙 둘러 감싸고 흐르는 것을 말한다. 그 물은 자손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며, 온갖 복록이 함께 몰려드는 명당 발복의 응험이 있다.

앞에서 논한 물의 종류 이외에 내·외수를 기준으로 주작수와 거수를 내수로, 팔작수, 하수수, 극훈수, 원진수, 진응수를 외수로 나누고 물의 규모에 따라 해수, 강수, 호수, 계수, 지당수, 평전수로 그리고 용출하는 샘에 따라 가천, 예천, 온천, 광천, 용천, 천천, 물천, 냉천, 폭포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물의 길흉을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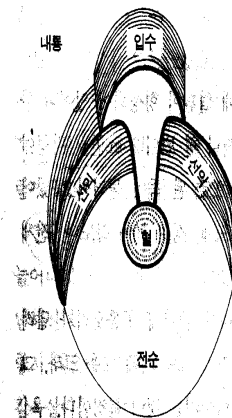
4. 정혈법(定穴法)

혈은 명당 중에서도 특히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요체(要諦)가 되는 장

소이며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생식기에 해당되어 생기를 만들어 내는 공간이다. 풍수지리의 궁극목적은 바로 이러한 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용진혈적(龍盡穴的)한 진혈지(眞穴地)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옛날부터 삼년심룡(三年尋龍) 십년점혈(十年點穴)이라고 하여 용을 찾는 일도 어렵지만 결지한 혈을 점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호리의 차에 화복이 천리(毫釐之差 禍福千里)⁴⁹⁾라 하여 형세와 정혈의 미세한 차이에도 그 화복은 천양지차가 됨을 경고하고 있다. 주산에서 발생한 기운이 혈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태조, 중조, 소조, 입수, 혈판의 5단계를 따르며, 각 단계 사이에는 용이 있어서 앞 뒤 기운을 이어준다.⁵⁰⁾

가. 혈과 혈판의 구조

혈은 당판(혈판)에서 입수와 주작, 좌우 양쪽의 선익에 둘러싸여 있으며 용·입수·선익·전순 등 여러 가지의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다. 혈의 생기는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많으며 지하로 깊이 내려갈수록 밀도가 낮다.⁵¹⁾ 혈판은 혈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에서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말한다.⁵²⁾ 혈판은 중심에 혈을 두고 상부에는 입수, 하부에는 전순, 좌우에는 선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 13 >

1) 입수(入首)

입수는 조산에서부터 용맥을 통해 내려온 지기를 끌어 당겨 그 기운으로 혈과 선익 주작을 만드는 준비단계이다. 입수는 용의 하단에 혈의 상부에 위치하여 내룡 보다 약간 높이 솟아 힘이 뭉쳐 있으며 좌우가 안정

49) 신성은 역 『금낭경. 청오경』, 기감편, p37.

50) 박시익, 전계서, p127.

51) 박시익, 전계서, p128.

52) 박시익, 전계서, p132.

을 이루고 있다.

입수는 내룡의 기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고 그 외 주변지세 곧 산이나 물의 기운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입수의 기운이 크면 혈의 기운도 크고, 입수의 기운이 약하면 혈의 기운도 약하게 된다.

2) 선익(蟬翼)

선익은 혈관의 혈을 중심으로 좌우에 매미날개처럼 붙어있어 얼핏 보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선익은 입수에 모인 기운 중 일부가 좌우로 나뉘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기가 혈에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 들도록 하여 혈의 기운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선익은 바위와 같이 단단한 토질을 기반으로 하여 좌우가 평탄하면서도 두툼한 둔덕을 이루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

3) 전순(前唇)

전순은 입수의 기운이 혈과 선익을 만든 뒤 남은 기운이 혈 아래로 평탄하게 모여있는 공간을 말한다. 전순은 혈 앞에서 마치 새 주둥이와 같이 삼각형 형태를 이루어 혈에 생기가 모이도록 하는데 평탄하고 단단한 토질이어야 기운을 모을 수 있다.

전순에서 생기는 기운은 재물이다. 따라서 평탄하고 넓은 전순이 있는 지세에서는 큰 재력가가 배출된다.

나. 혈의 종류(四象)

혈의 종류는 보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형태에 따라 와(窩), 꺾(鉗), 유(乳), 돌(突)혈로 구분된다. 이중 와혈과 꺾혈은 우묵한 소쿠리와 같은 형태를 이루어 여성의 생식기와 비유되고, 유혈과 돌혈은 솟아오른 형태를 이루어 남성 생식기에 비유된다.

1) 와혈(窩穴)

와혈은 내룡의 기운이 혈관에서 소쿠리 또는 제비집과 같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로 평지에도 결혈 되지만 높은 산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와혈에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깊고, 얇고, 넓고, 좁음에 따라 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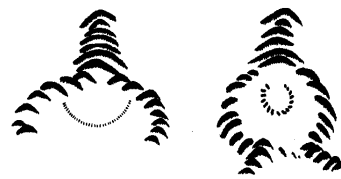
(深窩), 천와(淺窩,) 활와(濶窩)로 나눈다.

심와는 벌린 입속이 깊고 오목한 것이다. 그러나 와는 원래가 조금 깊은 것이므로 그 깊이가 정도에 지나쳐서는 안된다. 와속에 미유미돌(微乳微突)이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

천와는 열린 입속이 얇고 평평한 것으로 그 얇음이 지나쳐서는 안된다. 연잎과 같은 것이 길하다.

활와는 열린 입속이 넓은 것이므로 지나치게 넓은 것은 안된다. 와 속에 미유미돌(微乳微突)이 필요하며 그 유두돌정(乳頭突頂)에 안주해야한다.

협와는 열린 입속이 협소한 것이다. 지나치게 좁은 것은 진혈이 아니므로 좋지 않다. 그 속에 제비나 닭 집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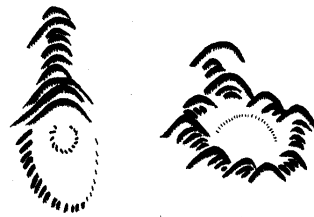


와혈

겸혈

2) 겸혈(鉗穴)

내룡의 기운이 혈관을 이루는 동시에 혈관 양쪽끝에 쇠뿔과 같은 모양으로 받쳐주는 맥이 있거나 마치 다리를 벌린 것 같고 또는 손가락에 물건을 끼운 것 같이 주둥이를 벌린 것이다



유혈

돌혈

◀ 혈의 4가지 종류

< 도 14 >

겸혈은 다리의 모양에 따라 직겸(直鉗), 곡겸(曲鉗), 장겸(長鉗), 단겸(短鉗)으로 분류한다.

직겸은 좌우의 양쪽다리인 두 선익이 곧게 뻗은 것으로 너무 길거나 짧으면 좋지 않다.

곡겸은 좌우의 양 다리가 둥글게 굽어서 안쪽으로 싸안은 것으로 소뿔 같이 혈의 좌우를 싸안은 것이 으뜸이다.

장겸은 좌우의 양다리가 모두 긴 것이다. 양다리의 정상이 둥글고 속이 장취(藏聚)한 것이 좋으며, 똑바르고 단단한 것과 너무 긴 것은 꺼린다.

단겸은 좌우의 양 다리가 모두 짧은 것이다. 너무 짧으면 혈을 보호하지 못해 흉하다. 그러나 선익 밖의 산들이 조밀하게 잘 감싸주면 무방하다.

3) 유혈(乳穴)

유혈은 용이 길게 뻗어 내려온 여성의 유방처럼 혈장이 불룩한 형태이다. 유혈은 평지나 높은 산 모두에 있어 가장 많은 혈로 불룩하게 돌출되어 바람에 취약한 경향이 있으므로 혈 주변의 보호사가 주밀하게 감싸주어야 한다. 유혈은 혈장의 장단, 대소, 수에 따라 장유와 단유, 대유와 소유, 쌍유와 삼유로 분류한다.

장유는 양팔의 중간에 혈장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으로 너무 길면 용맥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단유는 양팔 중간에 늘어뜨린 혈장이 짧은 것으로 너무 짧으면 힘과 기가 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대유는 양팔 중간에 늘어뜨린 혈장이 큰 것으로 너무 커도 좋지 않다. 그 혈장이 좌우로 완만하고 둥글게 안은 듯 유정한 것이 좋다.

소유는 양팔 중간에 늘어진 혈장이 작은 것으로 너무 작아서 힘과 기가 미약하거나 양팔이 혈장을 압박하는 듯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쌍유는 양팔의 가운데에 두개의 혈장이 늘어진 것으로 두개의 혈장이 대소 장단 복력이 같은 것이 좋다.

삼수유는 양쪽 팔 중간에 세 개의 혈장이 늘어진 것으로 대소 장단 살찐 정도가 같은 것이 좋다. 후룡이 왕성하고 좌우로 들러 썬 것이 좋고 이에 반하는 것은 좋지 않다.

4) 돌혈(突穴)

돌혈은 혈장이 동종이나 가마솥을 엮어 놓은 것 또는 물고기의 공기주머니와 같이 불룩하게 생긴 형태로 높은 고산이나 평지에서 결지하는 혈이다. 높은 산에서 돌혈이 결지될 때에는 바람을 받기가 쉽다. 그러므로 청룡, 백호, 안산, 조산 등 주변 산들이 높아 혈장에 서면 전혀 높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보국을 안정시키고 장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지 돌혈은 바람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평지 돌혈에서 중요한 것은 물의 영향이다. 입수 뒤에서 분수한 물이 다시 혈 앞 전순 밑에서 물이 혈을 완전히 감싸주어야 길한 돌혈이 된다. 돌혈은 혈장이 고산이나 평지나에 따라 산골돌과 평지돌로 혈장의 대소에 따라 대돌, 소돌로 구분되기도 한다.

5. 형국론(形局論)

형국론은 산의 모양을 동물이나 식물 등 사물의 형태에 비유하여 형을 찾거나 지세를 해석하는 이론이다. 형국론은 우주만물은 저마다 형상(形象)이 있고 형상을 이루는 곳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기상(氣象)과 기운(氣運)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관념을 원리로 삼는다. 그러나 지세의 외형을 개관하여 보는 것은 관찰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풍수의 본질적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가. 형국론의 분류

형국론은 산의 형세에 미루어 유형을 분류하므로 그 형국을 논하기 전에 먼저 산의 오성에 형국을 대관해 보면 목성과 화성산은 주로 사람의 모양에, 금성은 날짐승의 모양에, 토성은 길짐승의 모양에, 수성은 용과 뱀의 모양에 많이 대비 시킨다.

형을 취함에 있어서는 사람은 심장과 배꼽 그리고 음부에, 날짐승은 날개와 등우리 그리고 뺨에, 길짐승은 여러 짐승의 모양에, 용사류는 코, 이마, 귀, 배, 머리, 꼬리에 빗대어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오성의 기준에 의한 분류는 형국인 것은 아니고 다만 형국론 분류의 기본 사고로 이용되고 있다. 오성을 바탕으로 형국론을 분류하면 인형(人形) 수형(獸形) 금형(禽形) 용사형(龍蛇形)이 있다.

나. 형국론의 해석

형국론에 속하는 주체는 여인, 장군, 선인, 승려 등으로 대별되고, 금수형의 주체로는 봉황새, 닭, 학, 거위, 비둘기, 제비 등으로, 수형의 주체로는 물고기, 게, 지네, 호랑이, 소, 거북, 말, 사슴 등 수없이 많은 종류가 등장한다. 주체는 그에 알맞은 대상의 산천 형세를 제대로 구비해야 길격이 된다. 즉 호랑이 앞에는 먹이(조는 개 등)가, 옥녀 앞에는 거문고, 날아가는 새 앞에는 벌레 등이 대체로 주체의 격에 맞는 대상물로 짝을 이루어야 길지의 형국이 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나 형국론에 있어 주체나 대상물은 보는 이에 따라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해석하는 기준도 다를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 3절 양택풍수의 적용

1. 택리지(擇里志)의 가거지

택리지는 조선 후기 이중환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지리서다.

이중환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경종 3년(1723년) 34세 되던 해에 목호룡(睦虎龍)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배되고부터 3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면서 「택리지」를 썼다. 그는 「택리지」 복거총론⁵³⁾에서 “무릇 살 터를 잡는 데에는 첫째, 지리가 좋아야 하고, 다음 생리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 인심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으로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런데 지리는 비록 좋아도 생리가 모자라면 오래 살 수가 없고, 생리는 좋더라도 지리가 나쁘면 이 또한 오래 살 곳이 못 된다. 지리와 생리가 함께 좋으나 인심이 나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게 되고, 가까운 곳에 소풍할 만한 산수가 없으면 정서를 화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4가지 요건으로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를 꼽고 있다.

여기서 지리는 풍수지리의 명당 조건, 생리는 의식(衣食)을 해결하고 교역을 위한 경제적 조건, 인심은 마을의 선량한 풍속과 교육 등 주변 환경 조건, 산수는 인간의 정서 안정(정신건강)과 풍수지리의 명당조건에 관한 것이다.

가. 지리(地理)

“어찌하여 지리를 논하는 것인가. 먼저 수구를 보고, 그 다음으로 들의 정세를 본다. 그리고 다시 산의 모양을 보고, 다음에는 흙의 빛 색깔을, 다음은 조산(朝山)과 조수(朝水)를 본다.”⁵⁴⁾고 하여 풍수지리에서 명당 조건인 수구의 관쇄, 넓은 보국의 야세, 산형, 토질, 사세(砂), 수세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53)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서울, 2002, p135.

54) 이중환 저 이익성 역, 전게서, p136.

나. 생리(生利)

“어찌하여 생리를 논하는 것인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람과 이슬을 음식 대신으로 삼지 못하고 깃(羽)과 털(毛)로 몸을 가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히 입고 먹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 위로는 조상과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와 노비를 길러야 하니 재리(財利)는 경영하여 넓히지 않을 수가 없다.”⁵⁵⁾고 하여 의식이 충족되어야 윤리도덕을 행할 수 있음과 생산성의 향상,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중요시하였다.

다. 인심(人心)

“어찌하여 인심을 논하는 것인가. 공자는 마을 인심이 착한 곳이 좋다. 착한 곳을 가려서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하랴.”라고 하였다. 또 옛날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이나 집을 옮긴 것도 아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 옳은 풍속을 가리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반드시 나쁜 물이 들어서 그르치게 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살터를 잡음에 있어 그 지방의 풍속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⁵⁶⁾고 하여 자신의 학문을 닦고 연마할 수 있으며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을 가리고, 서로 어울려 교류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중시하였다.

라. 산수(山水)

“무릇 높은 산과 급한 물과 험한 산과 빠른 여울은 한때 구경할 만한 경치가 있기는 하지만, 절이나 도관(道觀)자리로 합당할 뿐 영구히 대를 이어 살 곳을 만들기에는 좋지 못하다. 야읍(野邑)이라도 시내와 산, 강과 산의 경치가 있어 혹 넓으면서 명량하고, 혹 깨끗하면서 아득하며, 기이한 바위와 이상한 돌이 있어 읍찰 하거나 험악한 모습이 전혀 없는 이런 곳이라야 영묘한 기운이 모인 곳이다.”⁵⁷⁾ 라고 하여 탈살 되지 않는 고산, 험산과 직거수를 꺼리고, 산수의 경치가 높지 않으면서도 수려하고, 크지 않으면서도 맑은 곳을 살만한 산수라고 하였다.

55) 이중환 저 이익성 역, 전계서, p140.

56) 이중환 저. 이익성 역, 전계서, p148.

57) 이중환 저. 이익성 역, 전계서, p206.

2. 건물의 배치

좋은 터를 잡았으면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남향배치, 배산임수배치, 전저후고와 전작후관의 배치, 산의 중심과 일치되고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가. 남향배치

건물의 남향 배치는 햇빛을 가장 잘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치 방법이다. 남향은 태양 빛이 집안 깊숙이 스며들어 집안의 습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한다. 남향 배치는 평탄한 지형이나 남쪽으로 경사진 곳에서는 이상적인 배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쪽이 높은 지형이거나 평지라도 남쪽에 큰 건물이 가까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다. 배산임수와 통풍을 방해하여 흉가로 변하기 때문이다. 남향의 배치는 햇빛을 받기 위한 기본적 배치 방법이지만 주변 지세나 환경을 참작하여 생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배치 방법을 우선해야 한다.

나. 배산임수 배치

배산임수의 배치는 한국 전통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⁵⁸⁾ 풍수지리로 볼 때 남향 배치보다 더 좋은 배치⁵⁹⁾이고 산을 등지고 호수를 내려다보는 지형이야말로 가장 빼어난 곳이다.⁶⁰⁾

배산임수 배치는 생기 있는 바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생기 있는 바람은 낮에 지대가 낮은 물가에서 지대가 높은 산능을 타고 올라가고, 밤에는 지대가 높은 산에서 지대가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따라서 생기 있는 바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집이 생기가 불어오는 낮은 쪽을 향하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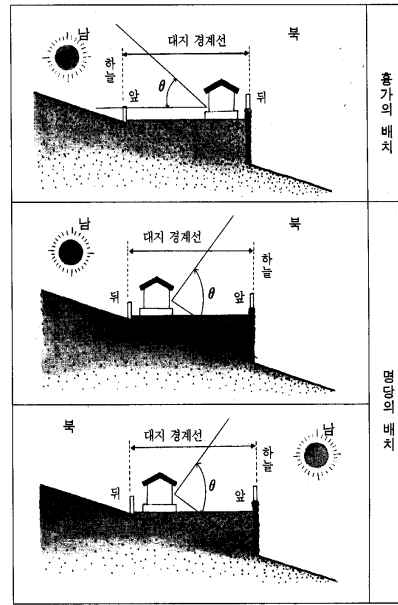
58) 정경연, 「부자되는 양택풍수」, 평단문화사, 서울, 2005, p168.
박시익, 전계서, p187.

59) 박시익, 전계서, p184.

60) 서유구 지음. 안대희 역, 「임원경제지에 담겨 옛사람의 집짓는법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서울, 2005, p106.

한다.

배산임수 배치는 물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실내 공기 압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바람이 집안에 불어오는 쪽으로 건물을 배치하면, 집안 기압이 바람으로 인하여 조금씩 높아진다. 기압이 높아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기운을 받아 건강해진다. 남쪽지면이 높고 북쪽지면이 낮은 대지에서는 지면이 높은 남쪽에 건물을 배치하고, 지면이 낮은 북쪽이 건물 앞면이 되도록 하는 북향배치가 배산임수 배치 방법이다. 그래야 북쪽에서



◀ 배산임수에 따른
흉가와 명당의
배치 방법

< 도 15 >

불어오는 생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남향집을 지으면 햇빛을 많이 받는 장점은 있지만 뒷면의 경사로 인하여 건물이 뒤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하게 되고, 건물 정면(남쪽)을 높은 산이 가리고 있어 넓은 하늘에서 마당을 통하여 들어오는 생기를 받을 수 없는 흉가가 된다.

주거용 건물일 경우 햇빛보다 기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풍수지리 이론이다.

북향집이라도 햇빛은 반사되어 들어온다. 그러나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압은 다른 방법으로 대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바람이 잘 통하는 배산임수 배치가 남향 배치보다 좋은 방법이다.

다. 전저후고(前低後高), 전작후관(前窄後寬)

전저후고 배치는 주건물을 도로나 정원 마당 또는 주건물 앞의 부속 건물보다 높게 하는 것으로 개방감을 확보할 뿐 아니라 바람, 먼지, 나쁜 공기의 유입과 폭우 시 건물의 침수재해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기운은 양(陽)기운으로 이상을 추구하는 정신적 기운이다. 그러나 마당에서 하늘, 땅, 발 같은 자연에 대해 발생하는 기운은 건강, 재물, 여성의 기운과 같은 음(陰)기운이다.⁶¹⁾ 따라서 건물 앞 정원이나

마당은 건물보다 낮게 하여 마당의 기운이 건물 안에 흡수되어 생기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지에 주건물을 보호하는 담장을 둘러치고 좌우 전면에 주건물 보다 낮은 부속건물을 세우는 것은 전저후고의 이치에 합당한 방법이다. 단, 부속건물의 평면 면적은 주건물 보다 작아야 하며 높이가 낮아야 하는데 만약 부속 건물이 높으면 주건물을 억누르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흉상이 된다.⁶²⁾

전저후고형은 세출영웅((歲出英雄)의 터로 귀(貴)해지는 집이 만들어 진다. 전면이 탁 트여 웅대한 꿈을 갖게 되고, 접근 시 건물이 커 보여 위압감과 경외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와 반대로 전고후저일 경우에는 위축감과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⁶³⁾

전작후관 배치는 출입구는 좁게 하여 내부에 들어서면 한눈에 보이는 시야가 넓어 안정감이 있고 너그럽게 보이도록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물과 비교하여 대문은 좁아야 하며, 내부는 넓고 평온하여 외부의 겹치레 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외부의 기가 갑자기 섞여 불안하고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음양의 갑작스런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좁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통할 수 있는 것, 출입구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 건물과 도로와의 관계에서 후면 배치하는 것, 얇은 골목안의 건물, 세로형 건물평면 형태 등의 전작후관의 예로 볼 수 있다. 전작후관 배치는 건물의 입구는 좁게, 내부는 넓고 너그럽게 배치하여 부귀여산(富貴如山)해지도록 하는 배치이다. 또한 재물이 모여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조선시대에 외적과 야생동물 또는 자연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했던 도성 입지 등에서 전작후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부지에 진입하는 도로와 건물로 들어가는 현관 등의 형세가 주변 전체에 견주어 보아 부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이 부귀여산으로 귀결된다.⁶⁴⁾ 그래서 「양택三要」에서는 배산임수를 건강장수하고, 전저후고는 세출영웅하며, 전작후관은 부귀여산 한다고 하였다.⁶⁵⁾

61) 박시익, 전계서, p198

62) 천인호, 『풍수사상의 이해』, 세종출판사, 서울, 1999, p261.

63) 김달위, 『건축과 생활풍수』, 주택문화사, 서울, 2002, p28.

64) 김달위, 전계서, p28.

65) 천인호, 전계서, p261.

라. 산의 중심축 배치

집은 물론 일반 건물도 산의 좋은 기운을 받고, 산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산 정상에서 내려온 능선과 건물 중심축을 일치시키고 배산임수 원칙을 따른다. 이렇게 배치하면 지기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산과 건물 형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⁶⁶⁾

건물이 여러 채 일 때는 주건물을 산 중심과 일치되게 배치하고 부속 건물은 주건물을 중심으로 사면에 균형 있게 배치한다. 즉 주건물을 기준으로 청룡, 백호, 주작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배치 방법이다.

이때 주변산이 높으면 건물도 높게 하고 주변산이 낮으면 건물도 낮아야 한다. 들이 넓으면 건물도 넓게 하고 들이 좁으면 건물도 좁게 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산이 높다 하더라도 멀리 있으면 건물도 낮게 하고 비록 낮은 산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건물은 높게 짓는 것이 유리하다.

3. 건물의 형태⁶⁷⁾

가. 건물의 기운

건물은 자연공간 속에서 흙이나 나무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해서 세운다. 어느 건물이나 건물이 세워진 지역의 자연에서 기운을 받아들인다. 지역에 따라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이유는 자연이 사람에게 전하는 기운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에서도 건물 형태나 배치방법, 규모, 형태 등이 서로 다르다. 건물은 여러 재료가 합해져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 재료에 따라 재료에서 발생하는 기운이 다르다. 따라서 자연조건이 비슷해도 건물 종류에 따라 분위기나 기운이 달라진다.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내부 분위기가 다른 것은 공간 형태에 따라 울림이나 기운이 순환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건축 공간에 의해 발생하는 기운은 공간의 울림, 소리, 공기의 회전 등에 따라 구분된다.

66) 박시익, 전계서, p204.

67) 박시익, 전계서, p208~210.

1) 공간의 울림

자연에서 생기는 울림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역의 위도와 경도가 다르고 토질이나 산, 강 같은 주변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의 차이는 사람에게 주는 감동도 달리한다. 건물이 갖고 있는 울림도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준다. 이 영향이 오래 계속되면 사람의 성격을 결정한다. 공간의 형태에 따라 공간에서 생기는 울림이 달라진다. 나무에서 생기는 울림과 돌에서 생기는 울림은 서로 다르다. 이런 울림은 오감으로도 느낄 수 없지만 영적으로 전달된다.

2) 공간의 소리

공간에서는 소리가 생긴다. 공간에서 소리가 생기는 과정은 가로수 옆을 달려갈 때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연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소리는 자동차 속도에 따라, 가로수 크기나 수, 간격에 따라 달라진다. 건물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기둥이나 벽 앞을 통과하거나 그 앞에서 움직일 때 소리가 생긴다. 사람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면 즐거워지고 나쁜 소리가 나면 괴로워진다.

3) 공기의 회전

일정한 공간 내에서 공기(바람)는 온도 차이 같은 자연 조건의 영향을 받아 계속 회전한다. 바람이 회전하는 조건은 공간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원형이나 사각형 공간에서는 바람이 회전하기 쉽다. 면적이 같은 평면에서 원형이 회전할 수 있는 바람 크기가 가장 크다. 정사각형 평면에서도 바람의 회전이 용이하다. 직사각형이거나 ㄱ자 건물에서는 바람이 순조롭게 회전하지 못하고 크기도 작다. 바람의 회전 조건은 실내 공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큰 회전을 일으키는 공간이 생기가 큰 것으로 본다.

나. 건물의 평면 형태⁶⁸⁾

건물 형태는 1층 바닥의 형태, 곧 평면의 형태에서 시작된다. 평면이 원형, 타원형, 팔각형, 육각형, 정사각형은 명당형 평면이다. 이런 평면에서는 기운이 중심에 모여서, 바람의 회전이 용이하고, 공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삼각형이나 불가사리처럼 불규칙한 다각

68) 박시익, 전제서, p213~221 발췌인용.

형은 흉가형 평면에 속한다고 하겠다.

1) 원형평면

산형이 금산이며 주인격 산의 등고선은 원형을 나타낸다. 원형은 하느님을 상징하고 하느님은 무한한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 원형공간은 그 안에 음·양 기운이 서로 순환하며 강한 생기를 이룬다. 원형과 유사한 팔각형이나 육각형 평면에서는 생기가 중심에 집중되고 순환이 자연스러워 명당 형태를 이룬다. 그러나 내부에 칸막이가 있으면 기운의 회전과 집중에 방해가 되어 좋지 않다.

2) 정사각형 평면

산 정상부가 탄탄하고 생기 있는 토산의 등고선은 정사각형을 이루므로 정사각형 평면은 주인격 토산 평면으로 구분한다. 정사각형 건물에서는 벽의 길이가 모두 같아 음양이 조화를 이루며 음(陰)기운과 양(陽)기운의 회전운동이 원활해서 생기가 발생하여 대표적인 명당 형태로 구분된다. 반면에 정사각형 평면 중심이 마당 등으로 비어있는 □자형 평면은 기운이 중심에 집중되지 못해 흉가로 구분된다. 우리의 전통 한옥은 □자 형태를 이루어 마당은 정사각형이지만 대청을 중심으로 한 건물은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어 도넛과 같이 생기가 분산되는 형태로 좋지 못하다.

	주인격	보조격	배반격
산의 형태			
등고선			
건물 평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건물 평면의 3품격

< 도 16 >

3) 수직선형 평면

높은 봉우리에서 용이 연결되며 수직을 이루는 산은 주인격 목산으로 구분된다. 건물 수직선형이 一자형 평면인 경우 건물은 폭이 좁고 길이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 수직선 건물은 내부 중심에 기운이 강하게 모여 명당을 이룬다.

4) 직사각형 평면

굽이굽이 흐르는 물처럼 좌우고 길게 늘어선 산을 수산 형태로 보고, 가로로 길게 직사각형을 이루는 평면을 보조격 수산 평면으로 구분한다.

직사각형 평면에서 발생하는 생기는 평면의 가로(건물 깊이 길이)와 세로(건물 앞면 길이)의 비율에 따라 생기가 달라진다. 비율이 1:1의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생기가 많고, 건물의 깊이에 비해 앞면이 길수록 기운이 좌우로 분산되어 흉가가 된다. 따라서 같은 직사각형이라도 깊이 길이와 앞면 길이의 비율이 1:1.7(3:5)까지인 평면은 기운 회전이 원활하며 대표적인 명당형으로 구분되지만 1:2 이상이면 흉가로 본다.

또한 건물 평면이 ㄱ자, ㄴ자, ㄷ자 형태의 평면도 건물 깊이와 앞면의 비율이 1:2이상이 되어 흉가로 구분한다.

5) 삼각형 평면

삼각형 평면은 오행산 중 보조격 화산 평면으로 구분된다. 삼각형 평면은 지나치게 뽕족해서 안정감이 부족하다. 삼각형 평면은 기운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전체적인 힘이 응집되지 않는다. 또한 균형 감각이 부족하고 폭발성이 강하므로 집의 평면 적용에는 좋지 않다.

다. 지붕의 형태⁶⁹⁾

지붕은 건물의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지붕 형태에 따라 건물의 기운이 달라진다. 명당형 지붕은 건물 중심에 기운이 모이는 형태를 말한다. 원형 돛형지붕이 대표적인 명당형 지붕이며 그 외 초가지붕, 모임지붕, 피라미드형 지붕이 명당형 지붕이다.

명당형 지붕은 용마루의 길이가 짧아 기운이 중심점을 향하여 한 곳으로 모여 명당을 이룬다. 반면에 흉가형 지붕은 용마루가 길다. 따라서 지붕 중심이 낮고 좌우는 높이 솟아 기운이 중심에 모이지 않고 좌우로 분산되어 생기가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한옥 기와지붕, 중심부분이 낮은 지붕, 一자형 슬래브 지붕, 나비처럼 중심이 낮고 좌우고 높게 올라간 버터플라이 지붕은 흉가 지붕에 속한다.

지붕 형태에 대한 분석은 산의 형태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여 오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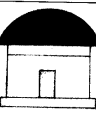
69) 박시익, 전제서, p222~227 발췌인용.

구분된다.

목산지붕은 피라미드처럼 한 정점을 갖고 솟아 있는 지붕을 말한다.

목산의 기운과 같이 목산지붕에서는 기운이 수직 상승하며 중심에 집중한다. 일본식 건물에 많으며 주로 명당형태이다.

수산지붕은 지붕정상 용마루 선이 아래로 처진 지붕을 말한다. 대체로 차분하고 안정되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이루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운이 좌우로 분산되어 중심에 모이는 힘이 없다. 한국 전통 기와지붕이 대표적인 흥가지붕이다.

오행산	지붕 형태
 목산	
 수산	
 금산	
 화산	
 토산	

◀ 오행산과 지붕 형태

< 도 17 >

금산지붕은 돔과 같은 원형 지붕으로 가장 이상적인 지붕 형태이다. 중심에 기운을 집중시키는 힘이 강해 사람들을 단결시킨다. 우리나라 초가지붕은 금산 지붕에 속하여 명당형태이다.

화산지붕은 뾰족한 지붕을 말하는데 이런 지붕은 기운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공격적인 기운이 강하며 기독교 계통 건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다.

토산지붕은 지붕면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평면은 사각형을 이룬다. 중국식 지붕이 이에 해당된다.

4. 건축물의 방위

건축물의 출입구나 창문과 같은 개구부는 외부의 공기와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이 배치되는 방위에 따라 건물의 기운이 달라지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건물 방위의 길흉 분석은 8방위로 해석한다. 8방위는 「주역」의 8괘와 그 의미가 같은데 360도 원주를 8등분해서 동·서·남·북 4방위와 북동·남동·

남서·북서의 4방위로 합친 것이다. 집의 방위를 보는 것은 좌향을 구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좌향에 의한 기운을 구분함으로써 건물의 기운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전통적인 건물의 방위를 분석함에 있어서 대문과 안방, 부엌의 방위를 양택3요(陽宅三要)⁷⁰⁾라 하여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거실, 화장실을 합하여 집의 5주(柱)라고 한다. 5주는 기운의 성질에 따라 4합(合) 1부(否)로 구분되는데 4합은 불을 사용하는 공간, 곧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는 안방, 거실, 부엌, 현관을 말하고 1부는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⁷¹⁾

가. 동사택과 서사택

지표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고 있다. 바다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난류와 한류를 일으키고 바닷물은 언제나 일정한 방위를 따라 흐른다. 육지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흘러 난류와 한류를 형성하여 땅위에 흐르고 있다. 사람에게 동맥과 정맥이 있는 것은 자연에서 난류와 한류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표면에 수직 회전하며 흐르는 기운은 동기(東氣)와 서기(西氣)로 구분된다. 동기는 지표면에서 상승하는 기운이고, 오행으로는 수, 목, 화이고 방위로는 북쪽, 동쪽, 동남쪽, 남쪽에 해당한다. 동기가 통과하는 방위에 자리 잡은 집을 동사택이라고 한다.

서기는 지표면에서 하강하는 기운이고, 오행으로는 토, 금이고 방위로는 북동쪽, 북서쪽, 서쪽, 남서쪽에 해당한다. 서사택은 이러한 서기가 통과하는 방위에 자리 잡은 주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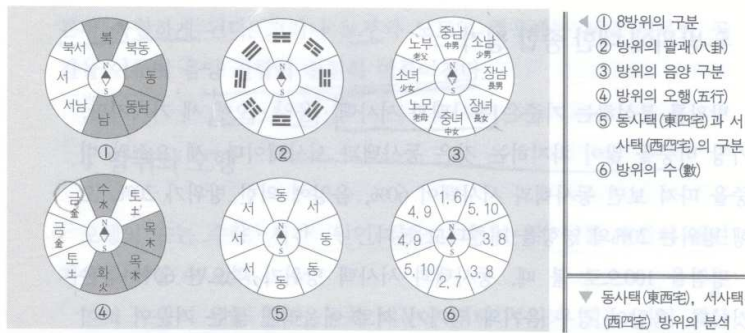
동기는 같은 동기와는 잘 어울리지만 다른 서기와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서기 또한 같은 서기와는 잘 어울리지만 다른 동기와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건물의 중심부에는 동기이든 서기이든 한 기운만 모여 있는 것이 좋다. 서로 혼합되어 있으면 기운이 탁해서 흉가가 된다.

70) 조정동 저. 김경훈 역, 「양택3요」, 도서출판 자연과 삶, 서울, 2003.

양택3요는 1806년 전후하여 조정동(趙廷棟)이 저술한 것으로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다. 제1권은 양택총강으로 길흉판단의 기초가 되는 음양오행과 8괘, 하도와 낙서, 구성과 그배합, 관청보는 법에 대해 상당부분 할애하고, 제2권은 서사택의 대문과 안방, 부엌의 길흉판단, 제3권은 동사택의 대문과 안방, 부엌에 대한 길흉판단, 제4권은 동·서사택의 부엌과 대문에 대해 주역 64괘를 준용하여 설명하고 또한 이의 응용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71) 박시익, 전계서, p282.

나. 방위와 음양



성격	구분	동사택(東四宅)				서사택(西四宅)				비고
방위		북	동	남	남동	북동	남서	서	북서	그림 1, 5
팔괘		☰	☷	☲	☱	☰	☷	☲	☱	그림 2
명칭		간위수 (坎爲水)	진위뢰 (震爲雷)	이위화 (離爲火)	손위풍 (巽爲風)	간위산 (艮爲山)	곤위지 (坤爲地)	태위택 (兌爲澤)	건위천 (乾爲天)	그림 2
음양		양(陽)	양(陽)	음(陰)	음(陰)	양(陽)	음(陰)	음(陰)	양(陽)	그림 3
가족		중남(中男)	장남(長男)	중녀(中女)	장녀(長女)	소년(少年)	노모(老母)	소녀(少女)	노부(老父)	그림 3
오행		수(水)	목(木)	화(火)	목(木)	토(土)	토(土)	금(金)	금(金)	그림 4
수(數)		1, 6	3, 8	2, 7	3, 8	5, 10	5, 10	4, 9	4, 9	그림 6

8방위는 음·양의 성질로 구분되는데 음은 여성적인 기운의 방위이고 양은 남성적인 기운을 가진 방위이다. 음양의 기운은 서로 다른 기운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같은 기운과 만나는 것은 좋지 않게 본다. 이는 음양 조화의 이치 때문이다.

< 도 18 >

음의 방위는 패철상 남동(진손사), 정남(병오정), 남서(진손사), 정서(경유신)로 여성의 기운을 의미하고, 기운의 성·쇠에 따라 장녀, 중녀, 노모, 소녀로 구분된다. 양의 방위는 패철상 북서(술건해), 정북(임자계), 북동(축간인), 정동(갑묘을)으로 남성의 기운을 의미하고 기운의 성쇠에 따라 노부, 중남, 소남, 장남으로 구분된다.

건물의 마당 중심점에서 보아 건물의 방위가 남성 방위에 있을 때에는 집 내부에 남성의 기운을 갖게 되고, 건물이 여성의 방위에 있으면 집 내부에 여성의 기운을 갖게 된다.

대문도 마찬가지이다. 집에서 건물과 대문의 의미를 구분하면 건물은 주인이고 대문은 손님이다. 음양은 서로 결합하기를 좋아하므로 집의 기운이 남성일 경우 대문이 여성이어야 행운이 따르고 남성의 기운이면 배척하여 좋지 않다.

방위에 따른 오행은 서로 상생 관계를 이루는 것이 좋다. 집이 정북에 있으면 오행상 물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문은 오행상 나무의 기운 즉, 동쪽이 좋다. 서로 상생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제 3장 향교와 서원의 고찰

제 1절 향 교

1. 향교의 성립과 발전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의 유풍을 진작시키고 아울러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의 크고 작은 고을에 설치했던 지방의 학교 즉 관학을 의미한다.

향교가 언제 어디에 처음 설립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고려사』 학교조(學校條)에 “仁宗五年三月 詔諸州立學 以廣教導...”⁷²⁾ 즉 “제주(諸州)에 학을 세워 도를 가르치라”는 기록으로 볼 때 인종 5년(1127)에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이 아마도 향교 설립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여겨지지만, 이때가 향교 설립의 처음이 아닌 것은 이미 인종 재위 이전에도 5개교의 향교가 설립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⁷³⁾. 그러나 당시 향교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고려 충렬왕때 강릉 안렴사 이승인이 화부산 연적암 아래에 문묘를 창립하자 전국의 각 군현이 그 뒤를 따라 문묘를 만들어 어느 정도 발전을 보이다가 고려 말에 이르러 병란을 위시한 각종 내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 지방의 향교가 크게 쇠퇴 하였다⁷⁴⁾

고려의 향교제도는 중국의 향교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공자를 성선으로 배사(配祀)하고 이는 조선시대 향교에도 계승되어 향교는 유교의 기본정신을 배우고 익히며,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태조실록에 “농상(農桑)은 왕정의 근본이요,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다, 즉위 이래 여러 번의 교서를 내려 농상을 권장하고 학교를 일컫는 뜻을 보였다.”⁷⁵⁾는 기록으로 보아 유교이념의 보급을 위해 향교 설립을 왕이 직접 명하고, 향교를 중심으로 하는 흥학 책은 수령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⁷⁶⁾ 그 결과 대부분의 향교가 태조부터 세종조

72)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도서출판 발언, 서울, 1996, p33.

박왕희, 『한국의 향교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 p19.

파주문화원, 『파주의 향교와 서원』, 2004, p24.

73) 파주문화원, 전게서, p24.

74) 김지민, 전게서, p33.

75) 王若曰一 農桑 王政之本 學校風化 地源禮 卽位以來 數下教書示以 勸農桑一興學校之意

사이에 건립을 보게 되었고 세종 17년(1488)까지는 전국에 一邑一校의 체제를 갖추어 8개도에 329개소의 향교가 설립되어 거의 모든 군·현에 향교가 분포되고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1918년에는 335개소의 향교가 기록되고 있다.

조선 초기에 향교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통치이념이 바로 유교사상이었고 향교 설립을 통하여 유교 이념을 실현하고 왕의 지방통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향교는 조선중기 이후 서원이 등장하면서 교육적 기능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고려중기 이후 조선말기까지 800여 년 동안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면서 문묘선현에 봉사하고 국가인재양성 및 지역사회의 풍속을 교화하는 역할을 다하였다.

2. 향교의 기능

가. 문묘향사(文廟享祀)

문묘(文廟)란 문선왕묘(文宣王廟)를 약칭하여 불리우는 명칭으로 문선왕은 세계 4대성현 중의 한 분인 공자를 말하므로 공자를 모신 사당을 일컫는다.

조선시대에 각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공적인 제사 대상은 3단(檀)1묘(廟)가 있다. 3단은 통상적인 인간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을 모신 곳으로 사직단(社稷壇), 성황단(城隍壇), 여단(厲壇)⁷⁷⁾이 있고, 문묘는 지방에 설치한 제사 건축으로 향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향교는 지방민을 교화하고 교육하는 학교 이전에 문묘라고 하는 제사 영역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 의미가 있었다.

문묘는 전통적인 유학의 정신적 지주 역할로 그 존재 가치가 있었던 만큼 향교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격식을 갖춘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무·서무와 함께 자리하여 향교 설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래 대성전에는 공자와 4성 만을 모시고 나머지 선현은 동무와 서무에

76) 김지민, 전계서, p34.

77) 사직단(社稷壇) - 인간의 생존을 관장하는 토지와 곡식의 신령을 위해 마련된 단
성황단(城隍壇) - 고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곳
여단(厲壇) - 주인 없는 고을의 잡귀를 위해 제사 지내는 단

나누어 봉안하던 방식이 광복이후 서무에 모셨던 우리나라 선현의 신위를 대성전으로 옮기고 중국의 선현도 주로 공자와 4성만을 모시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사대사상을 청산하려는 시대변화와 제사를 간소화하려는 경향의 반영이라 하겠다.

나. 민풍교화 및 지방민교육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은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로 이루어진다. 중앙의 성균관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었고 지방의 향교는 기본적으로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규범을 교육시켜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 생원과 진사 시험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였다.

향교는 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강학구역에 강당인 명륜당을 두어 공자의 사상과 이념을 강론하게하고 좌우에 동재와 서재를 두어 향학을 관장하는 교관 및 교생들의 숙식과 학문연마 장소로 이용되었다.

향교는 관학으로 교육제도상 중등교육기관 정도로 당시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소과에 합격해야하기 때문에 사숙이나 서당에서 학문의 기초를 익힌 16세 이상인자가 입학하여 소과에 응시하기 위한 학문을 익히는 등 국가인재 양성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3. 향교의 구성과 배치

가. 향교의 구성

향교는 크게 선현에 대한 제향의식 공간인 문묘구역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학구역, 그리고 이들 양기능의 역할을 보조 지원하는 부속건물과 주변 수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묘구역과 강학구역은 두 공간 사이에 담을 쌓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조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에서는 문묘구역과 강학구역이 한 건물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향교의 목적이 교육에 있었고 문묘배향은 부수적인 것이었으나 조선이 건국되고 국가의 지도 이념을 성리학으로 삼게 되자 유학의 상징인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을 별도 공간으로 하여 문묘 배향하는 기능이 강화된 듯 하다.

문묘구역의 가장 중심적인 건물은 공자의 사당인 대성전이다. 대성전을 중심으로 그 전면 좌우에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있다. 대성전은 대성(大成)을 의미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던 건물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4성과 공자의 제자들도 함께 봉안하게 되었다. 즉 대성전에는 공자와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사성(四聖)과 공자의 수제자 10명(十哲), 송조육현(宋朝六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는 공자의 문하 72현, 한 당 송 원나라의 22현, 우리나라 18현⁷⁸⁾을 모시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제사에 필요한 기물을 보관하는 제기고(祭器庫) 제사 준비 장소인 전사청(典祀廳) 서적을 보관하는 존경각(尊經閣) 등 부대건물이 있다.

문묘의 출입은 반드시 삼문을 통하여 하게 되는데 나란히 있는 세 개의 문중 중앙의 정문은 그 시설물에 모셔져 있는 신(神)이 출입하는 문이고 양옆의 동서 협문으로는 사람이 출입하게 되는데 동입서출(東入西出)이라고 하여 반드시 동문(東門)으로 들어가 제향 의식을 치른 후 서문(西門)으로 나오게 된다. 동은 해가 뜨는 곳으로 생명력을 상징하고 생기를 얻게 되는 의식의 시작이며 이는 자연의 기본원리로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한다.⁷⁹⁾

강학구역의 가장 중심적인 건물인 명륜당은 모든 향교에 존재하며 명륜(明倫)이란 인간 사회의 윤리를 밝힌다는 뜻으로 『맹자』 「滕文公(滕文公)」 편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하는 것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한데서 유래 하였다. 즉 명륜당은 스승과 학생이 모여 교육을 하는 곳이며 명륜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두어 동재(東齋)에는 주준 높은 유생의 거처로, 서재(西齋)는 수준이 낮은 유생이 거처하도록 하였다.

경역으로 출입하는 문은 보통 전면에 삼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주문이나 협문으로 출입하는 경우도 있다. 삼문 외에는 누문(樓門)을 두어 하층은 출입 정문으로 사용하고 상층은 난간을 두어 사방을 개방하는 누정(樓亭)으로 건물마다 당호(堂號)를 두고 있다.

이 밖에 부속시설로는 향교를 관리하는 살림집인 교직사(校直舍)와 자료를 보관하는 경판고(經板庫), 제기 용품을 보관하는 제기고(祭器庫)나 전사

78) 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조헌,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79) 박왕희, 전계서, p66.

청(典祀聽) 등이 있다. 그리고 향교정면 가까운 곳에 홍살문(紅箭門)과 하마비(下馬碑)가 세워져 있다.

나. 향교의 배치

향교 건물의 배치는 문묘배향 구역과 강학구역의 공간이 놓여지는 위치에 따라 즉 지형적으로 평지인가 또는 산을 배경으로 하는 경사지인가 등 지형적 공간 구조에 따라 전묘후학(前廟後學), 전학후묘(前學後廟), 좌묘우학(左廟右學), 우묘좌학(右廟左學)의 배치 형태로 구분 된다.

향교가 경사지에 세워진 경우에는 명륜당이 앞에 위치하고 대성전이 뒤에 놓이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로 배치하여 대성전을 우위에 놓이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향교가 전학후묘(前學後廟)에 해당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학후묘(前學後廟)도 명륜당(明倫堂)과 동(東)·서재(西齋)가 놓이는 방식에 따라서 즉 명륜당(明倫堂)을 앞으로 두고 동(東)·서재(西齋)를 뒤로 나란히 배치하여 대성전(大成殿)과 연결되게 한 형태를 전당후제(前堂後劑)라 하고 이 경우 공간 이용에는 편리하나 건물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대성전(大成殿)을 신성시 하는 정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명륜당이 대성전을 뒤로하고 동,서재를 명륜당의 전면 좌우에 나란히 배치하는 형태를 전제후당(前齋後堂)이라고 한다. 이 경우 명륜당은 향교의 정면을 향하게 되고 건물의 독립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대신 대성전에 출입하려면 명륜당을 돌아가는 불편함이 있다.

향교가 평지에 세워지는 경우에는 대성전이 앞에 위치하고 명륜당이 뒤에 놓이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형태로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구역을 후면 배치하는 형식으로 극히 일부 향교에 불과하지만 향교 배치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묘후학(前廟後學)이나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는데, 대성전과 명륜당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때 대성전이 왼쪽에 명륜당이 오른쪽에 있는 배치 방법이 좌묘우학(左廟右學)의 형태이고, 반대로 대성전이 오른쪽에 명륜당이 왼쪽에 있는 배치하는 방법이 우묘좌학(右廟左學)의 형태이다. 이러한 배치형태의 주된 이유는 지형적인 여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종축의 길이가 짧아서 동일 축선에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와 충분한 배치면적은 있으나 지반이 거의 평지에 가까워 위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제 2절 서 원

1. 서원의 성립과 발전

조선 왕조사에 있어서 16세기는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기였다. 정치적으로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가 흔들려 그 힘을 잃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신분의 질서가 흔들려 계층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봉건 질서의 빛이 바래고 있었다.⁸⁰⁾ 또한 조선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유교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 출세의 도구로 변질되고 사학(四學)과 향교(鄕校)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쇠퇴해지는데 등 새로운 가치형성을 위한 전조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당시 풍기군수였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문신 안향(安珦)을 봉안하고 학문을 강론하기 위하여 1543(중종3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 그 후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이름의 사액(賜額)⁸¹⁾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서원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서원의 교육기능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방하여, 당시 지방의 교육기관인 향교가 “문구만 갖추었고 가르침은 크게 무너졌으니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서원의 가르침을 두어 고을에 성행하게 한다면 학정(學政)의 잘못을 구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서원의 건립이 한 고을이나 한 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안의 학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원의 건립을 촉구 하였다.⁸²⁾

이황의 이러한 노력은 이른바 사림의 향촌사회 지배 혹은 기반을 확보하는 세력과 결집되어 빠르게 성장하여 선조 대에는 이미 63개의 서원이 설립되고 15개의 서원이 사액(賜額)을 받았으며, 조선 후기인 현종 대까지 꾸준히 증가되어 206개의 서원이 설립되고 73개의 서원이 사액(賜額)을 받았다.

이후 숙종부터 영조 초기까지 서원은 이른바 남설기(濫設期)를 맞게 되

80) 최완기, 『한국의 서원』, 대원사, 서울, 1991, p14.

81) 임금이 서원 사당 등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는 일

82) 이윤희, 『파주의 향교와 서원』, 파주문화원, 2004, p60.

고, 이는 붕당정치의 본격적인 전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서원의 남설은 그 성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선현들의 추앙과 후학 양성을 위해 설립된 서원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향촌사회에서 붕당과 파당의 근거지로, 또는 가문 결속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정적이 면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에 1741년(영조17년) 서원 철폐론이 거론될 당시 전국에 약1,000여 곳에 서원과 사우가 세워졌고, 서원 철폐론 이후 점차 쇠퇴하여 마침내 고종 5년(1868년) 대원군에 의해 문묘 종향인을 중심으로 한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훼손·정리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세기말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국의 각 지방에서는 훼손되었던 서원에 대한 대대적인 복원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까지 계속되는 곳도 있다.

2. 서원의 기능

가. 선현봉사

서원 건립의 본래 목적은 교육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서원에 특정인을 모시고 봉사하는 것도 후학들의 학문 의욕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때 결국 서원이란 지방 사림들의 교육을 위한 장(藏修之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83)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교육의 기능보다 사묘의 기능이 더 강조⁸⁴⁾ 됨으로서 특히 문중에 의해 서원이 건립되고 조상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제향되면서, 그리고 학덕으로 명망 있는 인물보다 충절로 이름 높은 인물이 배향의 대상이 되어 이들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보다 중요시 하면서 서원의 기능은 점차 변질되어 갔고, 17C 이후의 서원은 제향위주의 성향이 현저해짐에 따라 사우와 그 기능이 동일시되어 가문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

나. 교육강학

서원은 선현을 모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1차 적으로는 공부하는 곳이다. 그 연원이 사설 교육 기관에서 비롯되었을 뿐 아니라 선현을 받들어 모시

83) 이윤희, 전계서, p62.

84) 최완기, 전계서, p9.

는 것도 그들의 큰 뜻을 배우고 따르고자 함에 있다고 할 때 서원의 기본 의도는 배움의 장을 마련함에 있었다.⁸⁵⁾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다는 점에서는 서원의 교육기능 역시 향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향교가 백성을 교화하는 교양 위주의 교육을 하였다면, 서원은 좀더 적극적으로 과거를 통한 전문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는 것이다.⁸⁶⁾

서원은 선비들 스스로 학문을 익히기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계에서 쫓겨난 선비들의 재기 장소로도 활용 되었고, 봉당의 후방 기지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다. 향촌 사회의 도서관⁸⁷⁾

서원이 향촌 사회의 도서관 역할을 하였다고 함은 서원이 1차 적으로 배움의 장이라는 사실과 매우 연관이 깊다. 배움에 있어서 필수 조건은 서적이다. 서원에 문고(文庫)를 두어 여러 가지 서적을 수집·보관하고 나아가 연구 성과 또는 선현의 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서적을 출판하는 것은 서원 본래의 기능이라 하겠다. 서원이란 용어 자체도 도서관적 기능에서 비롯되었다. 서원의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집현전 서원이 그러하였고, 신라의 서서원(瑞書院), 고려의 수서원(修書院) 등이 모두 많은 책을 수장하고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3. 서원의 구성과 배치

가. 서원의 구성

서원의 구성은 서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시대와 흐름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졌음에도 기인한다. 처음에는 교육 시설이 중요시되었으나 17세기 후반 이래로 제향 시설 중심으로 건물이 조영되고, 19세기에 와서는 대체로 사당과 강당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의 모습으로 서원 구조가 바뀌고 있다.⁸⁸⁾ 여기서는 서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강당과 사당 기타

85) 최완기, 전계서, p12.

86) 파주문화원, 『파주의 문화유산』, 경기파주, 2005, p59.

87) 최완기, 전계서, p12.

건물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강당은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토론하고 원생들의 강학 공간으로 서원내 중심 건물이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글을 배우는 곳이며, 아울러 선생의 거처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원 내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보통 5칸 정도로 계획 된다. 이 경우 중앙으로는 대청을 3칸 규모로 넓게 꾸미고 그 양 옆으로는 온돌방 두개를 드린다. 평면적으로는 지극히 단순한 대청성 구조이나 기능적으로는 여름과 겨울을 모두 수용하고 아울러 공적인 건물로서의 품위도 갖게 한다.⁸⁹⁾ 강당과 사당 사이에는 재실이 있다. 재실은 강당과 함께 교육공간의 핵심을 이룬다. 강당을 중심으로 좌·우의 재실을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라 하고 동재에는 서재에 기거하는 학생보다 선배가 기거한다.

사당은 선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하는 공간이다. 이는 선현들의 모습을 직접 배알할 수 있어 존현숭배의 마음과 학업 의욕을 고취 시켰던 것이다. 배향인은 보통 1인을 주향으로 시작한 후에 존송하는 인물이 생기면 추가로 배향 하였다.⁹⁰⁾ 사당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으며, 아담한 정면 3칸 규모로 1-5인의 위패를 모시고 의식을 치르기에 적당한 지극히 검소한 규모로 지어졌다.

이 밖에 서원을 구성하는 시설로는 서적의 간행과 수집·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판각, 제향시 필요한 제수를 마련하고 기물을 보관하는 전사청(제기고), 원생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해 또는 시회의 장소인 누각, 제향구역의 정문인 내삼문(내신문), 외부에서의 출입구역인 외삼문, 성스러운 영역임을 알리는 홍살문, 서원의 관리 및 노비의 거처인 고직사 등이 있다.

나. 서원의 배치

서원의 배치 형태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균관이나 향교건축 등을 통해 제도화된 기본 개념을 토대로 지역별, 시기별로 변천 수정된 것으로 사료 된다.⁹¹⁾ 그러나 성균관이나 향교 건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바, 서원의 기본적인 배치구도는 서원이 입지한 지형이나 건립시기 기

88) 최완기, 전게서, p36.

89) 김지민, 전게서, p103.

90) 김지민, 전게서, p102.

91)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운당, 서울, 1995, p30.

타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전면에 강학구역을 두고 후면에 제향 구역을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으로 일관되어 항상 문묘구역이 뒷면에 위치한다.⁹²⁾ 이러한 서원의 배치 형식은 초기형, 전학후묘형, 병렬형으로 분류된다.

초기형은 서원 건축의 시원으로 알려진 소수서원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형태로서⁹³⁾ 입지한 곳부터 사찰터(숙수사지)로 불교문화 공간이 유교문화의 중심공간으로 바뀐 특수한 입지환경을 갖고 있다. 즉, 건물배치나 공간구성에 일정한 축의 설정 없이 강학을 위주로 강당과 재실 등이 불규칙하게 경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당은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되어 경내의 좌측에 자리하고 있다.⁹⁴⁾

전학후묘형(前學後廟型)은 강당을 전면에 위치시키고 사당은 후면에 위치시키는 배치방법으로 전면에 있는 강당(講堂)과 재사(齋舍)의 관계에 따라 전재사후강당형(前齋舍後講堂型)과 전강당후재사형(前講堂後齋舍型)으로 구분 된다.

전재사후강당형(前齋舍後講堂型)은 서원건축 성기의 가장 대표적인 배치형태로서 말기까지 여러 진화 과정을 거쳐 존재해 왔다. 주요 원칙론은 전저후고(前底後高)의 대지조건과 전학후묘의 배치형태로서 사당이 가장 후면 고지에 위치하고, 전면 저지에 강당과 재사가 위치하되 재사가 강당보다 전면에 위치하는 형태이며 기타 부속건물이 다양하게 배치된다.⁹⁵⁾ 동·서재의 배치는 초창기에는 강당을 중심으로 전면에 완전대칭으로 배치된 경우가 많은데 17세기 초부터 완전 대칭의 규칙이 다소 무너져 동·서재의 위치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자율성 있게 배치되었으며, 특히 평면 구조에서도 17세기부터 서로 상이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강당후재사형(前講堂後齋舍型)은 상기 전재사후강당형과 더불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주로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체로 전저후고의 대지조건이나 평지에 건축된 경우도 있으며 사당이 가장 후면 고지에 위치하고 전면에 강학공간이 위치하되 재사가 강당보다 후면에 설치되고 기타 부속건물이 다양하게 배치된다.⁹⁶⁾ 이 형태는

92) 김지민, 전계서, p116.

93) 김은중, 전계서, p31.

94) 김지민, 전계서, p119.

95) 김은중, 전계서, p31.

96) 김은중, 전계서, 34.

주로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나타나고 있다.

병렬형 공간배치 방법은 강학공간과 재향공간(齋享空間)이 서로 좌·우 병렬로 배치된 형태로 강당과 재사의 관계에 있어 전재사후강당형과 전강당후재사형으로 구분 된다.

전재사후강당형은 강학공간과 재향공간이 서로 병렬로 배치된 형태로서 강학공간의 형태는 강당과 전면 좌우에 동·서재가 있는 형태이다.⁹⁷⁾ 일반적으로 그 동안 서원의 배치하면 전학후묘의 형태로써만 인식되어 왔으나 이 배치에서는 이러한 통념을 깬 이른바 우(右)묘(廟)좌(左)학(學)의 배치 개념으로 일컬을 수 있다.

전강당후재사형은 강학공간과 재향공간이 병렬로 배치되어 강학공간의 형태는 강당과 강당후면 좌·우에 동·서재가 있는 형태이다.⁹⁸⁾ 이러한 배치의 대지조건은 강학공간 보다는 재향공간이 다소 높은 경사지의 지형이다. 동·서재의 배치는 강당 후면 양측에 대칭은 이루지 않으나 그다지 무질서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다. 이밖에 사당과 강당은 있으나 동·서재가 축조되지 않은 재사생략형(齋舍省略型)과 사당과 동·서재로 구성된 형태로서 강학공간의 주사(主舍)인 강당이 생략된 형태인 강당생략형(講堂省略型)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서원의 공간배치 특성은 성균관이나 향교 건축과 비교했을 때 전학후묘의 배치가 거의 고수된 점과 재향공간에 동·서무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97) 김은중, 전계서, 37.

98) 김은중, 전계서, 37.

제 4장 파주지역 향교·서원의 풍수지리 분석

제1절. 파주의 역사·지리적 환경

1. 파주의 역사

파주는 고대국가부터 그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삼국의 각축장이 되었고 고려, 조선시대를 통하여 송도(松都)의 동교(東郊), 한양(漢陽)의 서교(西郊)로서 교통의 요지 및 수도 방비의 군사요충지로 자리매김 되었다.

조선 후기 광해군 때는 파주 교하로 수도를 옮기자는 교화천도론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호란과 임란, 그리고 6.25 변란에서는 국가 운명의 각축장이 되는 등 역사적 사건의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현재의 파주시는 파주목, 교하현, 장단현, 적성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가. 선사시대

파주는 한국의 선사시대와 함께하며 구석기 이래 청동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선사문화의 중심부에 해당된다. 파주를 관통하는 임진강과 인근 연천 및 포천에 흐르는 한탄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구석기 유적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고대국가의 유적은 대부분 구릉지의 능선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금의 풍수지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당시 고인돌, 지석묘 등의 발견에서 한국의 풍수지리 발생흔적을 엿볼 수 있다.

나. 후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 파주지역을 최초로 차지했던 국가는 백제였다. 백제는 술이홀(述爾忽)(파주), 천정구(泉井口)(교하), 난은별(難隱別)(적성), 야아(夜牙)(장단)라고 칭하여 지배하였다. 그 후 고구려와 백제의 각축으로 475년 고구려에 귀속되고 장수왕은 지방 조직을 개편하면서 파해평사현, 술이홀현, 칠중현, 천정구현, 장천성현 등을 두었다.

삼국통일 과정에서 현 파주지역은 삼국의 각축장이 되었다. 칠중성(七重城)은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향해 출발한 지역으로

고구려 멸망 후 신라가 당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군사적 거점으로 활동한 지역이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757년(경덕왕)에 지명 제도를 정비하여 파해평사현은 파평현으로, 술이홀현은 봉성현으로, 칠중현은 중성현으로, 천정구현은 교하군으로, 장천성현은 장단현으로 개칭하고 한주에 편입시켰다.

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도 행정조직은 여러 차례의 개편이 있었다. 1018년 현종은 전국을 4대도호부 8목 56주군 28진 20현령 체제로 개편하면서 장단현령이 송림, 임진, 토산, 임강, 적성, 파평, 마전의 7현을 관할하게 되었고 봉성현과 교하군은 양주에 소속되었다.

1062년 개성부가 신설되고 파평현, 적성현, 봉성현, 장단현이 개성부에 소속되었다. 이후 1170년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무신란) 보현원은 장단지역의 조혁역 북쪽이었다. 1174년(명종4년) 장단지역에 궁궐 조성관을 두어 새 궁궐 조성작업을 하였고 1217년 완공된 궁궐 자리는 장단현의 백악(白岳)이었다.

1390년(공양왕 2년)에는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어 장단, 임강, 토산, 임진, 송림, 마전, 적성, 파평현을 좌도로, 개성, 강음, 해풍, 덕수, 우봉을 우도로 하는 한편, 경기의 영역을 넓혀 교하와 서원현을 양광도에 소속되게 하고 양광도를 경기도에 포함시켰다.

라. 조선시대

조선은 건국과 함께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고 1459년 장단현은 중궁(中宮)의 증조, 고조, 현조의 남영이 있다는 이유로 장단군으로 승격되고, 같은 해 원평도호부가 자성왕비의 내향이라는 이유로 목으로 승격되어 파주목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다. 이때 파주라는 지명이 처음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조선 초기 이 지역 행정구역이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게 되었는데 파주목, 장단도호부, 교하군, 적성현이 그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선조는 임진 나룻터를 통하여 임진강을 건너 파천하면서 경기, 황해의 군사로 하여금 임진을 방어선으로 삼게 하였으나 무너지고, 그런 와중에 파주 읍치(邑治)의 진산(봉서산)은 유성룡의 건의로

수리되어 서울 뒤쪽의 방영이 되어 도원수 권율과 순변사 이빈이 산성을 지켰다.

한편 1731년 8월 교하읍치가 인조의 능인 장릉지로 최종 결정되면서 교하군으로 승격되고 읍지도 아동면 금승리로 옮겨다가 다시 장명산 아래 지석면 후율리로 옮겨갔다. 1895(고종 32년)년 부, 군제 실시에 따라 파주목이 한성부 파주목이 되었고 적성현과 장단현도 군으로 승격되면서 교하군은 파주군에 편입되었다가 복구되고 이듬해 13도가 설치되면서 경기도 관할로 변경되었다.

1899년에는 파주군이 12면 141개리, 적성군이 4면 47개리, 교하군이 8면 27개리, 장단군이 20면 63개리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다. 1899년 이후 4개 군으로 유지되는 행정체제는 1914년 교하군이 파주에 폐합되고 1945년 적성군이 파주에 편입되는 과정을 거쳐 1972년 장단군의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이 파주에 편입됨으로써 삼국시대 이후 개편을 거듭하면서도 조선시대 말까지 유지되던 4개 군의 지방행정 구역이 1개 행정구역으로 단일화 되었다.

그 후 크고 작은 부분 개편은 이어졌고, 1996년 파주시로 승격되었지만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4개 지역의 흔적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2. 파주의 지리적 환경

파주시는 한반도의 중서부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서 약 40km떨어진 거리에 동쪽으로 양주, 북쪽으로 연천, 남쪽으로 고양시와 접하고, 서남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김포와 인접하고, 서북쪽으로는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의 개풍군과 마주하고 있다.

경·위도상의 위치는 동경 127°1"에서 126°41", 북위 37°42"~38°07"로서 동서 30km, 남북 36km의 범위에 677.77km²로 비교적 넓은 지역을 점하고 있다. 지역을 구분하는 주요 산으로는 북쪽은 예성정맥이 끝닿는 임진강 북의 백마산, 여니산이, 북동은 양주, 연천, 파주의 경계를 이루고 한북정맥 감악지맥을 형성하는 감악산이, 동쪽은 양주와 경계를 이루는 한북정맥 감악지맥의 노고산이, 남쪽은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며 한북정맥 도봉지맥의 황룡산이, 그리고 남서와 서쪽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파주의 자연 지리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인문 자연적 지리조건으로 형성된 파주는 크고 작은 50여개의

구룡과 산맥이 연결되고 한강과 임진강을 비롯하여 곡룡천, 문산천, 늘노천 등 15개의 강과 하천이 산맥을 가르고 들을 만들었다.

지질은 임진강 상류와 산악 지역의 편마암 지역과 임진강 이북의 편마암과 화강암의 혼재, 임진강 양안의 현무암, 석회암 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토양은 지형과 모재(母材)에 따라 구분되는데 산맥과 구룡에서는 배수가 양호한 식양질과 사양질의 암쇄로 하천 퇴적층이다. 현무암, 석회암 지역의 저구룡지는 배수가 양호한 식양질 적황색토, 소계곡이나 범람원의 하천 퇴적층에서는 배수가 양호한 자갈을 포장하는 미사질 또는 양토, 해안 지역에서는 배수가 불량한 미사질 내지 식질의 회색 충적토가 나타난다.

기후는 중서부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북부의 대륙성 기후와 남부의 온난대 기후의 점이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비교적 서리가 빨리 내리고 꽃이 늦게 피는 등 북부지역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3. 파주지역 조종산의 행룡 분석⁹⁹⁾

우리나라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장백산, 낭림산, 두류산, 백병산, 태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을 잇는 주요 산줄기로 하여 1대간 1정간 13정맥¹⁰⁰⁾으로 산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산맥은 산줄기와 물줄기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산세를 분류한 것으로 태조산을 출발한 용맥이 혈에 이르기까지 행룡지세의 흐름을 분석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백두산은 우리나라 산의 근원이다. 나라 산의 아버지이고 산줄기의 할아버지이다. 나라의 모든 산 모든 산줄기의 흐름과 기운이 모아지는 정점이다. 어떤 산 어떤 이유도 백두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남으로 남으로 흘러내리는 백두대간은 그래서 기둥이다.¹⁰¹⁾

백두산을 발원처로 시작한 산줄기는 동남진을 반복하여 치달다가 안변 동남쪽 105리, 평강 북쪽 49리 분수령에서 북동쪽 청하령으로 내닿는 한줄기는 백두대간의 맥을 잇고, 서쪽 죽림산(주방산)으로 분기한 줄기는 이천

99) 신경준 저. 현진상 역. 「한글 산경표」를 참고하고, 박성태 저 「신 산경표」를 주로 하여 산줄기를 읽음.

100) 신경준은 『산경표』에서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박성태는 2004년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발간한 『신 산경표』에서 1대간 12정맥 13기맥 8지맥으로 산줄기를 분류하고 있다.

101) 조석필, 『태백산맥은 없다』, 도서출판 산악문화, 서울, 1997, p82.

부 북쪽 2리 성산에서 그 힘을 다한다. 그러나 남서로 분기한 백빙산은 동남진을 거듭하고 때로는 북서진 하면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합수하는 그곳에서 함께 자리하니 바로 한북정맥이다.

백두대간 식개산 분기점에서 한북정맥이란 이름표를 받은 산줄기는 머리를 남동쪽으로 돌려 십 여리를 달려 동쪽으로 과협을 하나 만들어 백봉을 기봉시키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보다 크고 우람한 백암산을 이루어 이번에는 우측으로 30° 고개를 돌려 남서진 한다. 오리를 달려 기세등등한 장바위산을 이루니 남은 여력으로 전면에 봉화산, 운마산을 설기시키고 남서향 갈림길 하나 더 만드니 신성산, 오리산, 왕재산을 거쳐 천덕산, 군자산에 닿아 한탄강 좌측에 연하여 행룡을 멈춘다.

한편 장바위산을 만든 주맥은 동진하여 10리를 달리니 양쌍령 고개에서 힘을 얻어 남진하며 남미봉을 이루고, 장자산에 닿아 남동쪽에 암회막봉을 뿌려놓고 벽력암산 앞에 닿아 남동쪽에 오성산, 성제산을 만들어 김화 남대천에 닿게 한다. 그리고는 또 10리를 동남진하니 이제 힘을 모아야 할까 보다 하니, 중철골 고개, 중치령 고개에서 힘을 모아 행룡하니 작지 않은 봉우리 삼천봉을 이룬다. 머리를 우로 돌려 함께 날개 펴고 동행할 비조봉을 만들고 산세후덕한 절경이라 기암이석(奇岩異石)으로 불상 같은 천불산을 이루니 좌우에서 남대천이 막는다.

삼천봉을 일어난 주맥은 다시 고개를 좌로 하여 한걸음 달려 적근산을 기봉한다. 여기서 북으로는 월봉산, 동으로는 흰바위산, 흑운토령을 일어서 금성천에 끝을 닿게 하고, 동남으로는 장고봉, 수리봉, 일산을 거쳐 두류봉을 일어서 파라호에 닿게 한다.

본맥은 다시 몸을 일으켜 10여리를 남서진하여 말고개에 닿는다. 여기서 또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말고개는 임진왜란 때 왜군장교가 “이곳은 신성한 곳이니 하마(下馬)하여 돌아가야 한다.”는 안내자의 말을 거절하고 가다가 말발굽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애마의 머리를 칼로 내리치고 자신은 계곡에 떨어져 죽고, 그 뒤부터 이 고개를 넘던 왜군은 거의 계곡에 떨어져 죽어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신성하고도 험한 요충지이다.

말고개에서 숨을 고르고 다시 10여리를 남서진하여 대성산을 일으키니 부근 최고봉이다. 대성산은 화천군 상서면과 철원군 근남면에 자리한 산으로 북동쪽의 적근산(1073), 남서쪽의 북계산(1057)을 주맥으로 이어져있고, 동쪽사면에는 봉오천, 남쪽사면에는 사동천이 발원하여 북한강으로 흘

러들며 북서쪽 사면에는 한탄강의 지류인 남대천이 발원한다.

대성산에서 크게 기봉한 맥은 아직 살기를 유지하지만 한결 부드러운 느낌이다. 최고봉의 험로를 겪었기 때문이다. 주맥은 여전히 남서진하여야 한다. 수피령을 넘어 매월당 김시습이 은거하던 곳, 아홉 선녀가 매월대에 앉아 단종 복위를 염원하던 곳, 그 곳 북계산을 기봉한 산룡은 동남진을 계속하여 실내고개에 이르러 동쪽 저 멀리 노적봉 하나를 던져 놓고, 동남쪽 지척에는 만산현, 백적산, 성산을 차례로 일으켜 화천천에 닿게 한다. 그리고 본맥은 남서진을 계속하여 북주산, 하오천, 상해봉을 거쳐 광덕산을 일으키고 우측으로 고개를 돌려 서진, 남서진을 반복하여 명성지맥의 박달봉, 자동현, 명성산, 사향산, 관음산, 불무산, 보장산을 일으키니 영평천에 닿는다.

광덕산 주맥은 이제 고개를 우로 돌려 남남동진 오리길 광덕현에서 숨을 고른 뒤 남진하여 귀봉 하나를 만드니 언제나 흰구름 휘감아 노니는 곳, 백운산이다.

행룡은 여기서 응축된 여기를 몰아 화악지맥을 분기하여 동남진하니 석룡산, 화악산, 응봉, 축대봉 등 거봉을 거쳐 몽덕산, 가덕산, 북배산에서 용두를 남서로 틀어 계교산, 월두봉, 보남산을 연봉하여 가평천에 닿는다.

남동으로 화악지맥으로 이룬 백운산 주맥은 계속 남진하여 신로령에 이르러 북서쪽으로 가리산을 만들어 지지대로 삼고 남으로 힘을 뺏어 고산준령 하나를 기봉 하니 이곳은 후고구려 궁예가 잃어버린 나라를 망연자실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국망봉이라 칭한다.

국망봉에서 연이은 주맥은 남서진을 계속하여 궁예의 부인 강씨가 유배되어 온 뒤부터 강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강씨봉, 계곡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다하여 붙여진 청계산 등 명산을 기봉하고 서쪽으로 머리를 돌려 원통산에 이르러 북서쪽 금주산을 지지대로 삼아 남으로 운악산을 이룬다.

운악산은 포천군 화현면과 가평군 하면의 경계를 이루며 주봉 만경대를 중심으로 웅장한 암봉들이 구름을 뚫을 듯 하늘로 솟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계절 모두 다른 절경을 이루어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비경이 산재해 있고 서쪽 계곡 밑으로 흐르는 무지개 폭포는 옛날 궁예가 피신하여 상처를 씻었다고 한다. 운악산 북동쪽에서 발원한 물은 조종천을 이루어 북한강과 합수하고, 북서쪽에서 발원한 물은 포천천에 흘러 영평천에 모이고 다시 임진강으로 흐른다.

한편 주맥은 강씨봉을 이루기 바로전에 명지지맥 분기점을 형성하니 동

남진 남진, 남서진을 반복하여 명지산 매봉, 대금산, 불기산, 주발봉, 호명산을 거쳐 마산에 이르러 조종천에 연하니 그 끝을 맺는다.

운악산 주맥은 다시 남서진하여 수원산을 기봉하기 직전 굴고개에서 북서쪽에 청성산 천주산을 뒷발로 받치고 서쪽으로 왕숙천과 한강, 동쪽으로 수동천과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천마지맥을 이루는데 천마지맥은 서남진 또는 남진을 계속하여 개주산 주금산 철마산 천마산 백봉 고래산 갑산 적갑산을 거쳐 예봉산에 이르니 북한강과 한강이 가로막아 그 힘을 다한다.

천마지맥을 이루고 남서진하여 기봉한 주맥 수원산은 서쪽으로 포천천 발원지, 동으로 왕숙천의 발원지가 되어 남서진하면서 국사봉을 거쳐 죽엽산에 이르러 화봉산은 북쪽지지대로 삼고, 운악산은 남쪽 지지대로 삼아 남서진하여 힘차게 달리니 호랑이를 통하여 석청을 구한 효자의 전설과 양주목사를 도운 축석령신의 전설이 전해지는 축석령을 만든다.

이제까지 포악한 살기가 서려있던 산들이 수원산 국사봉, 죽엽산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제되고 탈살하여 어른으로서의 위엄은 지녔지만 한결 포근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축석령은 양주와 포천 의정부의 경계에 위치하여 북서쪽에서 발원한 물은 청담천을 이루어 북으로 흘러 산내천, 한탄강, 임진강으로, 북동쪽에서 발원한 물은 포천천을 이루어 영평천, 한탄강, 임진강으로, 남서쪽에서 발원한 물은 의정부의 부용천을 이루어 중랑천을 거쳐 한강으로, 남동쪽에서 발원한 물은 왕숙천을 이루어 한강으로 합수하니 물은 축석령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편 죽엽산에서 서남서진 하던 주맥은 축석령 고개를 앞두고 남동분기점을 만들어 용암산을 기봉하여 수리봉, 천견산, 퇴피산을 뒷다리로 삼아 깃대봉을 이루고 수락산, 불암산, 구능산, 망우리 고개를 거쳐 아차산용마봉에 닿으니 중랑천에 끝닿는 수락지맥을 형성한다. 그리고는 축석령에 이르러 북으로 분기점 하나를 더 만들어 어야고개를 지나 회암령, 해룡산, 왕방산을 이루고 국사봉에 올라서 북서쪽 소요산을 뒷발로 삼고, 한번 더 힘을 내 북동진하여 하늘봉, 개미봉을 기봉하고 영평천에서 끝닿는 그것을 왕방지맥이라 한다.

축석령 본맥은 남서로 천보산 하나 뺏어놓고 북서진을 계속하니 축석령 산줄기는 사방으로 뿌려놓은 성형(星形) 분수령이 된다.

북서진 하던 주맥은 덕고개 큰테미 샘내고개를 차례로 이루고는 도락산 다리 하나 뺏어내려 방향을 바꾸니 서남진 10리쯤에 불국산을 기봉 한다.

불국산은 대동여지도에서 ‘양주의 진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옛날에는 회양목이 많아 겨울이 되면 온 산이 붉게 물들어 불국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일 정상 봉우리가 투구와 같이 생겨 투구봉이라 하기도 한다.

주맥은 다시 남서진을 계속하여 산성, 호명산을 거쳐 한강봉을 이루니 남으로 도봉지맥 첼봉, 북서로 감악지맥 은봉산을 일으키고 본맥은 남서로 피꼬리봉을 기봉 시켜 서진을 강행한다.¹⁰²⁾

도봉지맥은 첼봉을 시작으로 울때고개, 사패산, 도봉산, 오봉을 거쳐 소귀고개에서 갈림길을 만들어 북서로 상장봉, 노고산, 국사봉, 현달산, 고봉산, 황룡산을 거쳐 장명산을 기봉하니 곡능천에 막혀 그 행로를 다하고, 남서로는 북한산백운대, 대성문, 북악산, 인왕산을 차례로 기봉하고 다시 남동으로 남산과 응봉을 거쳐 중랑천에 닿고 남서로 무악재 안산을 거쳐 와우산에 연하니 한강에 닿아 행로를 멈춘다.

감악지맥과 본맥의 행로과정은 다음 장에서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

제 2절 향교의 풍수지리 분석

1. 교하향교

가. 연혁

교하향교는 경기도 파주시 금릉군 355번지¹⁰³⁾ 학영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교하향교는 1407년 당시 교하현 갈현리에 창건 되었으나 1731년 인조 대왕의 능인 장릉이 이곳에 위치하게 되면서 현재의 금릉동으로 이군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보수 작업이 있었고 1943년 일제에 의해 파주향교를 제외한 관내 다른 향교와 함께 폐철되었다가 해방 후 1946년 유림들에 의해 복구되었다. 1981년 대성전의 전면 공간 확보를 위해 명륜당을 다른 위치에 복원하였고 2000년 주변 택지개발로 인하여 홍살문 교직사를 이군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부분보수작업을 하여, 현재 대성전과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서재, 내·외삼문, 교직사 등으로 구성되어

102) 신경준의 「산경표」에서는 한강봉에서 첼봉으로 이어져 도봉산 노고산 현달산 고봉산 장명산에서 끝맺는 줄기를 주맥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박성태의 「신 상경표」를 기준으로 피꼬리봉, 개명산 앵무봉, 박달산, 월룡산, 보현산을 거쳐 오두산에서 맺는 줄기를 주맥으로 한다.

103) 금릉동 335번지 였으나 최근 주변지역 택지개발로 금촌동1013번지로 변경됨.

있으며, 대성전에는 오성(五聖), 송조6현(宋朝六賢), 우리나라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교하향교는 1983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매년 2월과 8월 초 정일에 석전제를 봉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매년(음)8월27일 공자 탄신일에만 석전제를 봉행하고 있다.

나. 내룡맥과 혈장

한북정맥은 식개산 분기점을 출발하여 백봉을 기봉한 후 용머리를 남서로 돌려 개장, 천심, 박환을 거둡하는 과정에서 8개의 지맥을 분기하였다. 험준한 기암괴석들은 원행하는 동안 정제되고 순화되어 무서운 살기는 어느 정도 탈살하고 비교적 부드럽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한강봉을 기봉하였다.

한강봉에서 다시 북서로 감악지맥, 남으로 도봉지맥을 분기하고 주룡은 남서진하여 피꼬리봉을 기봉한 후 머리를 남으로 돌려 장군봉을 일컫고 서진을 계속하여 고령산 앵무봉에 이른다.

고령산 앵무봉은 과주시 광탄면과 양주시 장흥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감악산과 더불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봉을 이루고 있다.

앵무봉의 사(砂)세를 보면 동(東)으로는 불국산과 도봉산이, 남(南)으로는 북한산 백운대가, 서(西)로는 월릉산 봉우리가 둘러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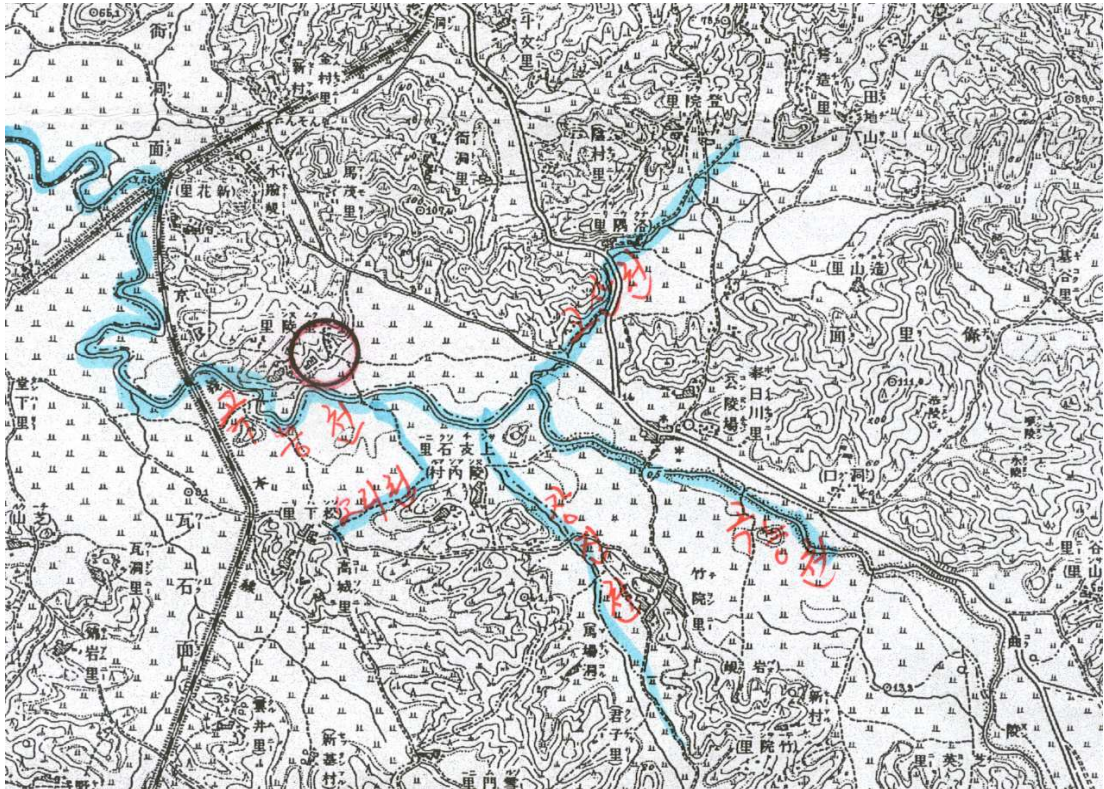
수계(水界)를 살펴보면 북쪽에서 발원한 물은 마장·기산저수지로 흘러들어 북서쪽 발원지의 물이 이룬 분수천과 합수하고, 분수천은 서쪽으로 흘러 문산천을 거쳐 임진강에 이른다. 남쪽에서 발원한 물과 남서쪽에서 발원한 물은 고산천을 이루어 곡능천에 합수하고 다시 서쪽으로 흘러 한강에 이른다.

앵무봉 아래는 도선 국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보광사가 있고, 영조의 사친 숙빈 최씨의 원소(園所) 소령원과 영조의 후궁 정빈 이씨의 원소(園所) 수길원이 있으며, 영조와 명지관의 풍수설을 전하는 수령령이라는 고개가 있다.

고령산 앵무봉을 이룬 주맥은 오리를 서진하여 뒷박고개에 이르기 직전 우암산 비호봉을 좌측 지지대로 삼아 시오리를 북서진 하니 박달산을 기봉 한다.

박달산은 뒷박고개를 지나며 좌·우 굴곡과 기복, 개장, 천심, 박환을 거

딥하며 앵무봉의 생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기봉한 목체 생룡이다. 산룡이 부드럽고 후순하며 기품을 지닌 산이다. 산 기슭에는 완원군 9대손 이견섭이 모든 벼슬을 마다하고 공부에만 전념 하였다고 하여 불리는 처사바위가 있고 숙종때 김대련은 중국어 학습서 「박통사언해」를 이곳에서 통달하였다고 전한다.



< 도 19 : 1919년도 교하향교 지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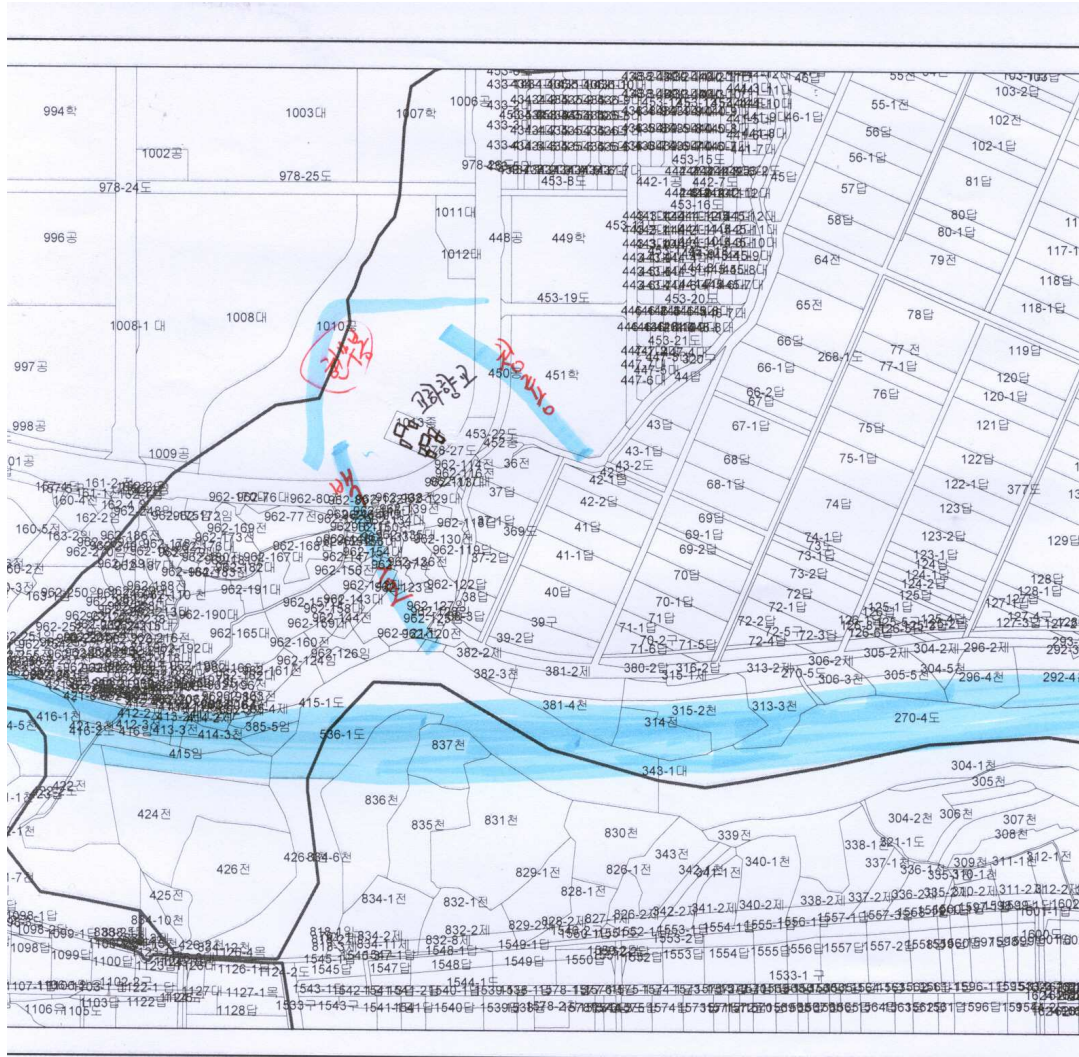
주맥은 이곳에서 우측으로 만장산을 일어서 우측지대대로 삼고 행룡 10리길 서진을 계속하니 장지산 미륵당 소봉을 이루고 또 다시 기복, 굴곡을 반복하며 20리 서진을 계속하니 덕암산, 학영산을 징검다리 삼아 월룡산과 기간봉을 일어난다. 주맥은 여기(餘氣)를 몰아 보현산을 이루니 임진강이 앞을 막는다. 용머리를 다시 남서로 돌려 오두산을 세우니 한북정맥의 행룡이 여기서 멈춘다.

한편 박달산에서 서진하는 행룡이 용머리를 거쳐 장지산 미륵당과 오산리 일대의 덕암산을 거쳐 영태리 별관을 이루고 다시 과주여고와 두문동을 거쳐 월룡산을 기봉하게 되고, 다른 한줄기는 대창이를 거쳐 북서진하여 학영산을 일어서 세우는데 산봉에서 남서진하여 한국전력 앞에서 과협을 이루고, 다시 솟아 두보아파트 부근의 언덕을 이룬 후 남동진하여 금향

초등학교 앞 근린공원을 기봉하니 동남으로 교하향교가 자리 잡고 있다.

현무봉은 혈의 뒤에 있는 작고 단아한 봉우리로 땅의 기운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다. 소조산은 중조산의 형태와 정신을 이어받아 현무봉에 전달하는 것으로 살기는 정제되고 수려한 산봉을 이루는 것이 좋다.

교하향교는 내룡맥 분석의 조종으로 보았을 때 근린공원의 봉우리가 현무봉이 되고 금체형 학영산은 소조산, 개명산 앵무봉은 중조산, 식개산 분기점의 백봉은 태조산으로 볼 수 있다.



< 도 20 : 최근의 교하향교 지번 위치도 >

혈은 용과 함께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혈의 형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교하향교의 현무봉을 기봉한 행룡은 현무봉 정상에서 분기점을 이룬다. 한 갈래는 풍림아파트 쪽으로

계속 서진하고 다른 한 갈래는 남동으로 2절을 행룡하다 다시 3분맥을 하여 청룡 백호를 이루고 중출맥은 3절을 굴곡하고 우선하여 혈을 결지하는데 향교 뒤 담장 밑에서 입수도두를 뚜렷이 하고 있다. 그리고는 경사를 이루어 혈을 결지하고 있으나 혈이 오목하고 길게 뻗어있는 것으로 보아 겸혈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혈은 입수룡 보다 낮게 결지되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기에 유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다. 사격과 수세

사격은 혈장의 전후좌우를 둘러싸고 있는 지세를 말한다. 즉 혈 뒤에 있는 현무, 혈 앞에 있는 안산과 조산, 좌우에 있는 청룡과 백호를 말한다.

양택풍수는 음택풍수에 비하여 보국이 넓어야 한다고 했다. 혈을 둘러싸고 있는 사세가 넓어야 함을 말한다.



< 도 21 : 교하향교 전경과 백호 >

현무봉의 형태와 기운은 혈의 기운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교하향교는 금향초등학교 앞의 근린공원 정상 봉우리가 현무봉이라 할 수 있다. 금체형 학영산을 소조산으로 하여 그 맥을 이어온 주봉이다. 산정은

비교적 평탄하고 둥글게 이루어져 있어 이런 경우 재물을 관장하는 산형이다.

현무봉 정상에서 남동으로 맥이 이어지다 좌측으로 본신청룡이 길게 내리뻗고 우측으로 본신백호가 길게 뻗어 있다. 지금은 택지 개발로 인하여 양쪽의 청백호는 도로가 개설되고 따라서 절개되어 있으나 그 흔적은 뚜렷하다. 청룡의 절개지는 높이가 3m정도가 되고 현재 금촌고등학교 끝부분까지 뻗어 내려가는 형국이다. 백호 또한 절개지가 4m정도의 높이에 아직은 빈터로 남아 있는 아파트 건설부지 C-3 블록으로 지정되어 200m정도 뻗어내려간 흔적을 볼 수 있다. 또한 택지개발 이전의 도면에서도 그 형태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교하향교 건축당시는 현무와 청룡 백호가 완전히 감싸 안은 형국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만 안산이 보이지 않는다. 향교 앞에는 곡능천이 환포하여 흐르고 곡능천 건너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현달산이 조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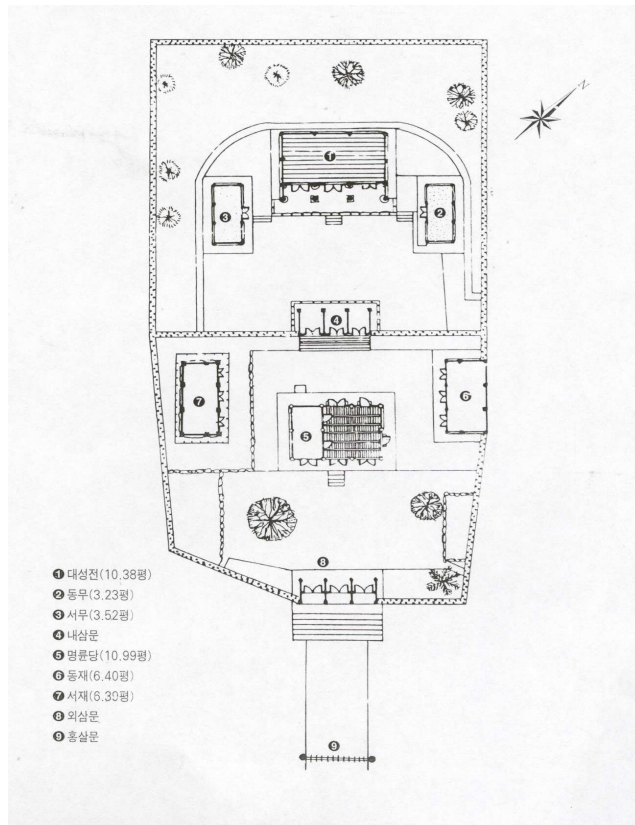
풍수지리에서 산은 움직이지 않고 정(停)하기 때문에 음(陰)이고 물은 움직여 동(動)하므로 양(陽)으로 본다. 이상적인 물의 형태는 궁수라고 하여 활의 둥근 모양이나, 굽이쳐 돌아가는 형태에서 안쪽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는 오성체로 분류 하였을 때 금성수로 분류할 수 있고 8가지 물의 형세로 분류해보면 만곡수(彎曲水)라 한다. 만곡수가 있으면 길흉 방위를 불문하고 길하며 부귀하고 자손이 번창 한다고 했다.

교하향교 앞으로 흐르는 곡릉천은 우암산 혜음령에서 발원한 물이 고산천을 이루어 장곡저수지를 거쳐 흘러온 것(북동향)과 현달산 북쪽에서 발원한 물이 이룬 장진천의 물(동남향) 그리고 일영봉 남쪽에서부터 발원한 물(동향)이 이룬 곡능천이 향교 앞 동남향에서 합수되어 향교를 환포하고 다시 서쪽으로 수구처를 이루었다. 따라서 비록 안산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당 앞 취수(取水)와 만곡수를 이루어 길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 건물의 배치

건물의 배치는 배산임수의 배치, 전저후고의 배치, 내룡의 중심부배치와 방위의 조화여부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교하향교는 현재의 근린공원을 배경으로 전학후묘, 즉 앞에는 강학구역인 명륜당을 배치하고 뒤에는 문묘구역인 대성전을 배치하였다. 앞은 구룡의 산봉을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뒤에는 알맞은 경사의 산과 앞에는 넓은 들과 곡릉천이 휘돌아가

는 만곡수를 이루었다.



< 도 22 : 교하향교 평면 배치도 >

교하향교는 현무봉이 행룡하는 내룡맥의 중앙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배치하여 배산임수와 내룡맥의 중심부 배치이론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또한 대성전을 뒤로 배치하고 규모도 명륜당보다 크게 건축하여 대성전의 기능을 중요시한 듯 하고, 재(齋)와 무(廡)를 좌우에 작은 규모로 배치하여 전저후고의 배치에도 일치시키고 있다.

방위는 동남향으로 대성전과 명륜당이 일직선으로 위치하고 삼문 또한 그 축선에 배치되어 주건물이 서사택을 택하고 있는 반면 대문은 동사택을 택하고 있어 양택삼요의 배치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음양론으로 보면 주건물은 노부 양(陽)이고, 대문은 장녀 음(陰)으로 배합을 이루었으나 오행의 상생관계를 보면 주건물은 금(金)이고, 대문은 목(木)이라 금극목의 상극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향교나 서원에서 볼 수 있는 배치방법은 문묘와 강학구역 그리고 삼문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전통문화의 직선적 사고와 위계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결과로 여겨진다.

대성전의 좌우에는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갖추고 명륜당의 좌우에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배치시켜 청백호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어 좋은 배치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 건물의 형태

건물은 공간형태나 구성 재료에 따라 발생하는 기운의 차이가 있다. 교

하향교는 목조 건물로 직사각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직사각형 평면은 가로 세로의 길이 비율에 따라 명당형 평면과 흥가형 평면으로 기운이 달라지는데 평면 비율이 1:1.7에서 정사각형에 가까우면 명당형 평면으로 볼 수 있지만 1:2이상이면 흥가형 평면으로 분석된다.

교하향교의 주건물인 대성전의 평면 형태를 보면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 6.4m 세로(건물 앞면의 길이) 8.4m이고, 명륜당의 평면은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 5m이고, 세로(건물 앞면의 길이) 7.6m로 구성되어 각각 1:1.3과 1:1.5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대체로 명당형 평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붕은 기와 지붕으로 용마루가 길고 중간이 아래로 처진 형태를 하고 있어 외견상 주변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아래로 늘어진 형태의 지붕은 무거운 물체에 눌러 땅으로 내려앉은 듯한 모습과 같고 양끝이 올라간 형태여서 기운이 분열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와지붕은 오행으로는 수산, 품격으로는 약체의 흥가형 지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파주지역의 향교 서원은 모두 이러한 분류 형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파주향교

가. 연혁

파주향교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35번지 봉서산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파주향교의 연혁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다.¹⁰⁴⁾ 첫째 1398년(태조7년) 서원산(瑞原山) 아래 창건하여 1414년(태종14년) 현 위치에 이전 하였다. 둘째 1304년(고려 충렬왕 30년) 봉서산 아래에 건립하여 대성당(大成堂)이라 불리던 것을 조선 세종 재위시 중건하고 대성전이라 개칭하였다. 셋째 1456년(세종2년)에 창건하고 1660년(현종원년)에 사액받아 돈암서원이라 하였고 1880년(고종17년) 수해로 인해 현 위치에 이전 하였다. 그 후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으나 1971년 명륜당과 동재를 재건하였고 여러 차례의 보수작업을 하여 현재 대성전, 명륜당, 동재, 내·외삼문, 홍살문, 교직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1986년 파주시 향토유적 2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갑오개혁 이후 교육적 기능은 약해지고 최치원

104) 『서울 경기도의 향교건축』,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p423.

정몽주 등 우리나라 성현 위패를 모시고 매년 2월과 8월 초정일에 석전제를 봉행하고 있다. 파주향교는 수령 450년, 350년 느티나무 2그루와 200년 된 향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함께 보호받고 있다.

나. 내룡맥과 혈장

한북정맥의 한강봉에서 갈라져 나온 감악지맥은 머리를 북서로 돌려 너리미 고개를 넘어 5리를 행룡하여 은봉산을 일어키고 북서진 5리를 더하여 팔일봉을 기봉 한다. 그리고 노아산에 이르러 머리를 북으로 돌려 노고산을 우뚝 세워 동으로 점미산, 남서로 자웅산 갈림길, 북서로 파평산 갈림길을 열어 놓고 다시 북진을 계속한다.

자웅산 갈림길은 노고산에서 서진하여 삼방천 발원지 외부고개 부근을 말하는데 이곳에서 북서진하면 법원읍에서 의정부로 가는 56번 도로 좌우에 우뚝 솟은 두 봉우리를 이름 하는 자웅산을 기봉하고, 남서진하면 아름다운 병풍을 둘러친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금병산을 기봉 한다. 두 산 사이를 삼방천이 가르고, 자웅산 북쪽에는 갈곡천이 금병산 남쪽에는 비암천이 동(東)에서 서(西)로 흘러 세 줄기 분수가 문산천에 합류하여 두 산의 행룡을 멈추게 한다.

파평산 갈림길은 노고산 정상에서 북으로 스프레미를 지나 북서진하여 오현리와 직천리, 갈곡리와 법원리 그리고 금곡리를 이어주는 비학산을 중심으로 여러 산들을 이르는 것으로 파평산과 사방산, 명학산의 세 갈래로 나누어 진다.

파평산 갈림길에서 서진하면 사방산이 기봉 하는데 여기서 북서진하여 연평산과 광평산을 연이어 기봉 시키고 두포천에 막혀 행룡을 멈춘다.

파평산 갈림길에서 북서진을 계속하면 노파고개를 거쳐 파평산을 크게 기봉 한다. 파평산은 파평면 늘노리, 덕천리, 두포리, 마산리, 법원읍 금곡리, 웅담리에 걸쳐있는 파주의 주산¹⁰⁵⁾이라 할수 있는데 이곳 산정에 올라서면 파주의 산하가 한눈에 들어오고, 산 아래에는 파평 윤씨의 시조 윤신달이 용마를 타고 오르내리며 달렸다는 치마대와 용연이 있다.

파평산은 산릉에 살이 많아 두텁고 웅장하여 생기가 흐르는 목체산이라 할 수 있고 산 남쪽에는 두포천이 서쪽으로 흘러 임진강과 합수하고동북쪽은 늘노천이 남서로 흘러 임진강과 합수한다.

105) 『파주군지』, 상권, p56.



< 도 23 : 1919년도 과주향교 지형도 >

과평산 갈림길에서 남서진하면 명학산을 기봉 한다. 명학산은 동문리, 가야리, 향양리에 걸쳐있는 산으로 학이 깃들어 우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는 절육신 황보인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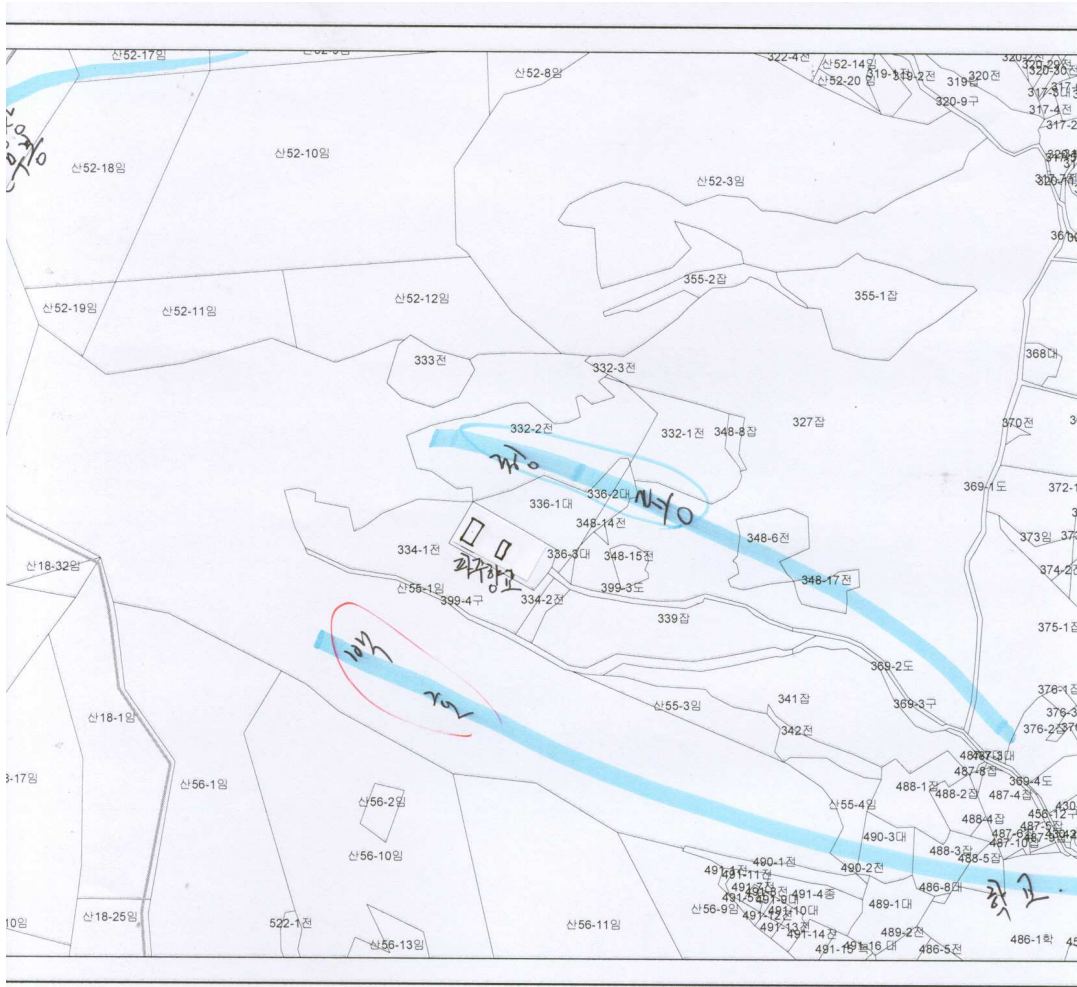
명학산은 남서쪽에 접한 용발산과 힘을 합해 남서진 10리 행로를 계속 하여 금체 고봉을 일어키니 봉황새가 깃들어 즐겨 노래하는 곳 봉서산이다.

봉서산은 숲이 울창하여 경치가 아름답고 산정이 마치 옥녀와 같은 형상이라 옥녀봉이라 칭하기도 한다. 한복정맥중의 한줄기 지맥이 마지막 힘을 응축시켜 넓은 들을 만들어낸 곳이기도 하다.

봉서산은 명학산에 연한 용발산의 행룡이 성황당 고개에서 과협을 이루고 남서진하여 정상을 크게 솟구쳐 이룬 곳이다.

봉서산 정상에서 북진한 행룡을 동문천에 닿아 그 힘을 다하고 주룡은 남서진하여 갈곡천과 문산천의 합수처에 닿아 행룡을 멈추는 한편 남동진한 행룡 끝에는 과주 향교가 자리하고 있다.

봉서산 정상은 원형으로 마치 가마솥을 엮어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금체산이다. 산정은 둥글고 비교적 평탄하지만 8부 능선에서부터는



< 도 24 : 최근의 파주향교 지번 위치도 >

경사가 심한 편이다. 그리고 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뻗어있어 서쪽인 1번 국도나 동쪽인 78번 국지도에서 바라보는 경우 여러 겹의 깊은 골이 더러 나고 있음은 금체형산의 특징이라 여겨진다.

파주향교는 내룡맥 분석의 조종으로 보았을 때 파주향교에 직접 기운을 전달하는 현무봉은 봉서산 정상 봉우리가 된다. 그리고 봉서산은 소조산의 역할도 겸하는 것으로 분석 되는데, 파주향교로 들어오는 맥 중에는 봉서산 이외에 부근에 뚜렷한 산봉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조산은 노고산으로, 태조산은 한북정맥 분기점의 백봉으로 볼 수 있다.

정상의 8부 능선에서 용맥을 이룬 지룡은 남동진하여 여러 차례의 기복 과협을 이루고 혈처 앞에서 비교적 넓게 작은 봉을 이루고는 깊이 내려가 행룡을 다하는 곳에 파주향교가 세워져있어 그 혈처로 볼 때 겸혈의 장점으로 생각된다. 장점은 좌우의 양쪽 다리가 모두 긴 것으로 양다리의 정상

이 둥글고 속이 장췌한 것이 좋으며 너무 긴 것은 꺼린다.

다. 사격과 수세

금체산 현무봉에서 분기하여 혈을 이룬 용맥은 좌측에 본신 청룡이 길게 뻗어 200여m를 내려가 파주파출소 뒤편까지 연결되고 우측의 본신백호는 파주초등학교 운동장 끝부분까지 이어져 청백이 모두 혈처를 기준으로 200m이상을 뻗어내려 감싸고 청룡에서 분기한 지룡이 외청룡이 되고 백호에서 분기한 지룡이 외백호가 되어 이중으로 향교를 감싸고 있다.

다만, 내청룡 내백호 외청룡 외백호의 끝이 비슷하고 비교적 일직선으로 뻗어 향교의 동남향 명당 정면은 흰하게 트여 연풍리 마을 뒤편으로 넓은 들이 펼쳐진 형국이다. 따라서 안산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이 없고 멀리 갈곡천 건너 오봉산이 조산 역할을 하고 있다.



< 도 25 : 파주향교 현무봉 >

혈과 정면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낮고 작은 산을 안산이라 하고 안산뒤에 있는 산이 조산이다. 안산은 귀인 앞에 놓인 책상과 같고, 조산은 귀

인을 찾아온 손님으로 책상 건너편에서 주인에게 예를 드리는 것과 같다.

안산이 혈과 너무 멀면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고 원진수의 직류를 막을 수 없다. 반면에 안산이 혈과 너무 가까우면 혈을 압박하고 명당을 협착시킬 수 있으므로 생기가 보호되지 않아 흉하게 된다. 적당한 높이와 거리로 보국명당을 주밀하게 감싸주어야 한다.

안산이 없을 경우 물이 안산을 대신할 수 있는데 이를 수이대지(水而代之)라고 한다.

갈곡천은 파주향교 앞 동쪽 멀리 노고산 서쪽에서 발원한 물이 서쪽으로 흘러 파주향교 외명당 들판에서 유수(流水)를 남(南)으로 돌리고 다시 서쪽으로 빠져 문산천을 거쳐 임진강으로 합수되는데 안산이 없는 파주향교의 안산 역할을 하기에는 향교와 갈곡천 사이에 시가지와 넓은 들판이 가로 놓여 있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갈곡천이 서에서 동(東)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南)으로 물길을 돌려 나가는데 파주향교가 ㄴ자형태의 물길 바깥에 위치하는 형상이 되어 만곡수를 이루어야 길하다는 풍수이론에 반하여 흉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혈처까지의 거리가 멀고 봉서산 정상의 지룡이 남진하여 ㄴ자 바깥쪽을 가로질러 막아주고 있어서 흉수의 영향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라. 건물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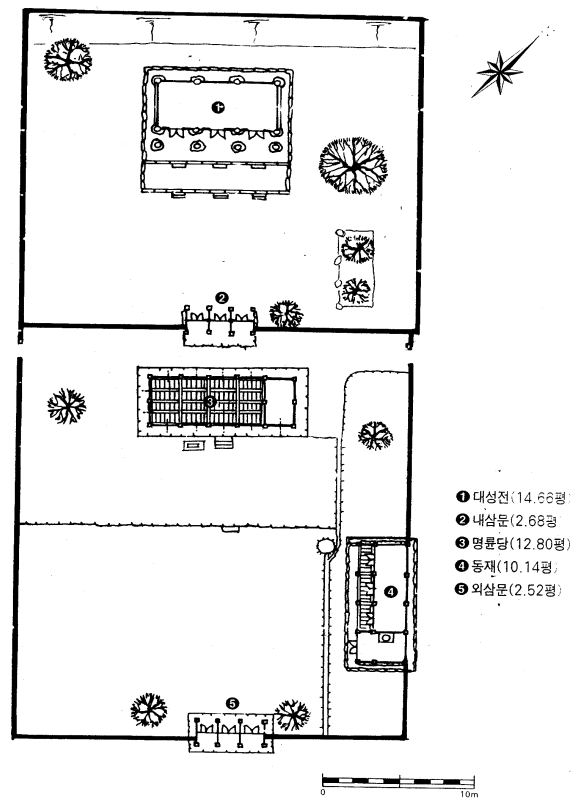
파주향교의 건물 배치에 있어서도 전통적 배치방법인 배산임수, 전저후고, 내룡중심배치, 방위의 조화를 대상으로 검토된다.

파주향교의 건물배치는 경사지의 일반적인 향교배치 방법대로 전학후묘의 배치형태를 취하여 뒤에는 제향공간인 대성전을 배치하고 앞에는 강학공간인 명륜당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내려오는 중출맥을 따라 건물을 배치하되 내룡의 행룡이 남향(병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백호 및 현무봉 전체의 흐름 방향인 남동(진손사)향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남향으로 주건물을 배치할 경우 가까이 있는 백호가 앞을 가리게 되고, 대성전, 명륜당, 삼문, 홍살문의 직선적 위계성 확보를 위한 유교적 관념 때문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원인에 대한 좀더 깊은 연구가 추후 계속되어야 하겠다.

파주향교는 대성전을 후면에 두고 명륜당을 전면에 두어 대성전을 중시하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대성전을 높고 크게 하고 명륜당을 그보다 낮고 작게하되 동재는 그보다 더 약하게 하여 전저후고의 배치이론을 따르

고 있다.

파주향교의 주건물 방위는 북서와 남동향을 하고 삼문을 그 일직선상에 둠으로써 주건물은 서사택이고 대문은 동사택이 되어 불배합을 이루고 있다. 음양론으로 보면 주건물은 노부 양(陽)이고, 대문은 장녀 음(陰)으로 음양의 배합을 이루었다. 오행론의 상생관계를 보면 주건물은 금이고 대문은 목으로 금극목의 상극을 이루고 있어 전체적인 방위의 조화에서는 양택3요 이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 건물의 형태

< 도 26 : 파주향교 평면 배치도 >

봉서산 현무봉은 오행산의 형태나 지형도로 보면 원통형 금체산에 해당되어 혈처에 건축되는 건물이 이에 부합되는 형태를 이루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건물이 모두 그러하듯 파주향교도 예외는 아니다.

파주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의 건물 형태는 직사각형 평면을 이루고 있어 가로 세로의 길이 비율에 따라 명당형 평면과 흥가형 평면으로 그 기운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평면 비율이 1:1.7에서 정사각형에 가까우면 명당형 평면으로 보지만 1:2이상이면 흥가형 평면으로 분석한다.

평면비율이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명당형 평면으로 분석하게 되는 이유는 공간에서 생성되는 소리가 안정적이며 공기의 회전이 원활하여 생기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사각형에서 정다각형에 가깝고 원형에 가까울수록 생기를 얻는데 있어서는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공간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생기의 측면과 공간이용이라는

양 측면을 고려하여 정사각형 평면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파주향교의 주건물인 대성전의 평면 형태를 보면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 6m 세로(건물 앞면의 길이) 9m로 구성되고, 명륜당의 평면은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 4.2m 세로(건물 앞면의 길이) 10.9m로 구성되어 대성전과 명륜당의 평면 비율이 각각 1:1.5와 1:2.6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대성전은 명당형 평면으로 볼 수 있으나 명륜당은 흥가형 평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적성향교

가. 연혁

적성향교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476-2번지 중성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적성향교 최초의 창립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당시 1군 1향교 설립의 원칙이 있었고 고려 건국 후 940년 적성현으로 명칭이 개칭되었으나 1413년(태종13년) 적성 현감을 두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전후하여 창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⁰⁶⁾ 그 후 여러 전란과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으나 1970년 복원 되고 이후 여러 차례 개축·보수작업을 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대성전, 신문, 동·서협문, 명륜당, 제기고, 대문 등이 있었다고 「驚城孫誌」(경성손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홍살문 등이 복원 되었고, 1986년 파주시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갑오개혁 이후 교육기능은 없어지고 중국과 우리나라 유학자의 위폐를 봉안하여 매년 8월 첫째 정일(丁日)에 석전제를 봉행하고 있다.

나. 내룡맥과 혈장

한북정맥 한강봉에서 분기하여 은봉산, 팔일봉, 노아산을 거쳐 북진한 본맥은 노고산에서 남서진하여 자웅산 갈림길을 열고, 북서진하여 파평산 갈림길을 뺀어 놓고, 동북으로 점미산을 이루고, 다시 북진을 계속하여 수레넘이 고개에서 사방으로 갈림길을 만든다. 동남으로 망당산, 북서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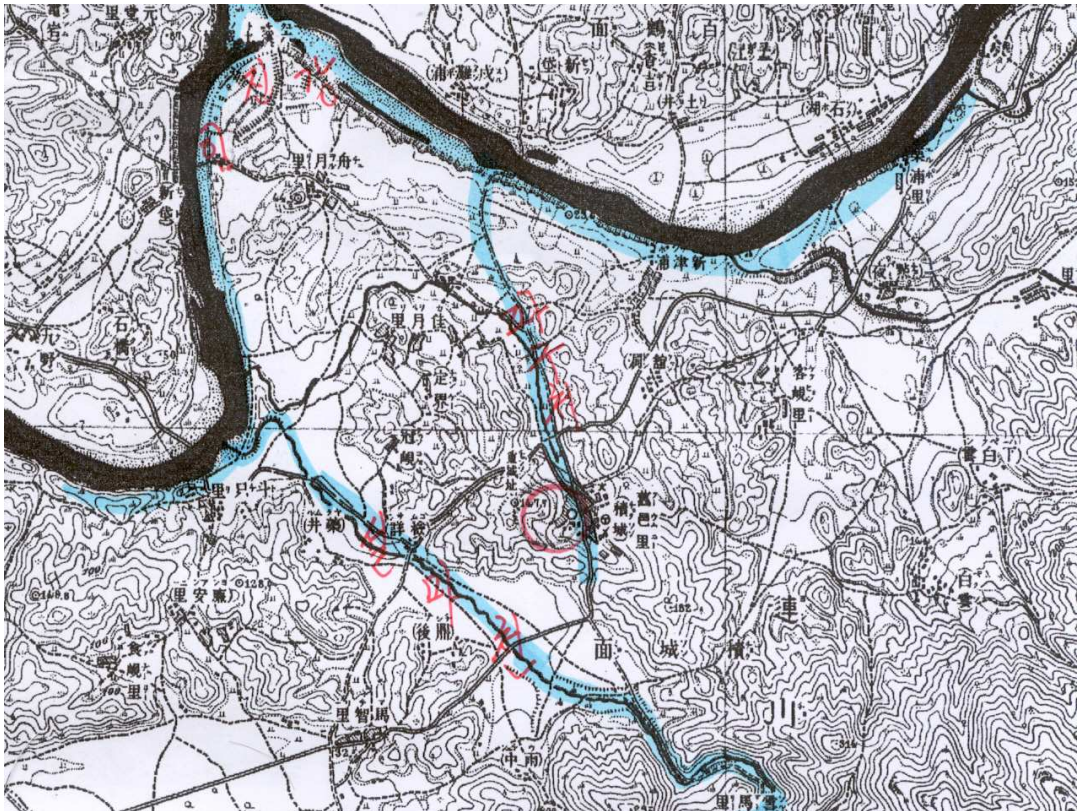
106) 이윤희, 『파주의 향교와 서원』, 파주문화원, 2004, p50.

월봉을 거쳐 남산에 이르게 하고는 북북서로 가지하나 더 벌려 놓으니 국사봉 길이다.

수레넘이 고개는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에서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로 길고 험하여 수레를 타고 다녀야만 했다고 전한다. 또한 도둑이 많아 오십 여 명이 모여 함께 넘어 갔다고 한다.

한편 본룡은 수레넘이 고개를 지나 북진하여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눈 덮인 감악산을 바라보며 말을 타고 무예를 닦았다고 하는 설마치 고개를 만들어 숨을 돌리고 감악지맥의 최고봉 감악산을 기봉한다.

북으로 북으로 달려온 행룡의 힘이 절정에 달하고 사방에 호종산을 거느리니 북서로 중성산, 남동으로 구름재를 거쳐 사기산, 태봉산을 기봉하고 본맥은 머리를 동으로 돌려 마차산을 이루고 다시 북진하여 아마니고개와 옥녀봉에 닿으니 임진강과 신천에 연하여 그 힘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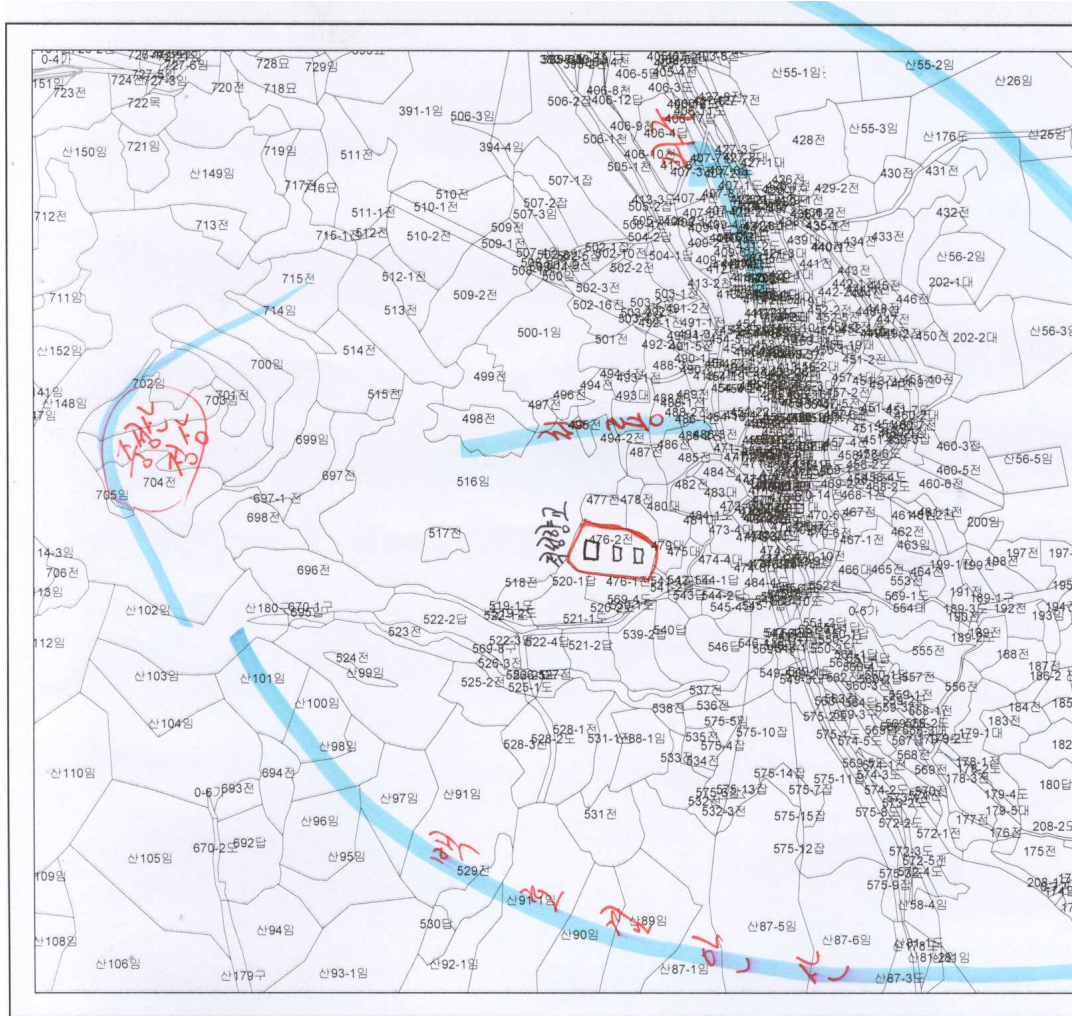


< 도 27 : 1919년도 적성향교 지형도 >

감악산은 파주시 적성면과 양주군 남면, 연천군 전곡읍의 경계를 이루는 주변 최고봉이다. 조선시대에는 북악, 송악, 관악, 심악과 함께 경기 5악의 하나로 불렸으며 산정에 올라가면 감악산비(설인귀비)가 남아있다.

삼국시대 이래로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하였고 산 아래 설마리에는 영국군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주변 산세를 살펴보면 남(南)으로 한강봉에서 이어진 노고산과 동(東)으로 마차산과 소요산, 남서에는 과평산에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 임진강에 닿아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 도 28 : 최근의 적성향교 지번 위치도 >

수계(水界)를 살펴보면 남서쪽 발원지의 물은 설마천에 모여 늘노천을 이루고 다시 북서로 흘러가 임진강에 합수한다. 남동쪽에서 발원한 물은 양주 입암천, 상패천으로 모여 신천을 이루고 동으로 흐르다가 다시 북으로 흘러 임진강에 합수하고, 북쪽 발원지의 물은 장현천, 천파천으로 모여 북으로 흘러 임진강에 합하고 있으니 사방의 물이 모두 한곳으로 모인다.

감악산 정상에서 주맥은 북동진을 계속하여 마차산과 어마니고개를 이루고 한탄강에 그 행로를 멈춘다. 남으로 분기한 행로는 구름재를 지나 태봉산에 닿는다.

한편 정상에서 북서진한 지룡은 개장과 천심을 거듭하며 시오리 행로를 한후 하우고개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한 가지는 북서진을 계속하고 다른 한 가지는 서쪽으로 분기하여 행로 하다가 다시 용두를 북으로 돌려 행로 하니 중성산을 일어키고, 앞으로 넓은 들을 일귀 행로를 멈추는데 중성산 정상 봉우리 동남으로 적성향교가 자리하고 있다.



<도 29 : 삼문에서 바라본 적성향교의 안산과 조산 >

적성향교는 내룡맥 분석의 조종으로 볼 때 중성산을 향교의 현무봉 겸 소조산으로 볼 수 있다. 적성향교의 후면이 바로 중성산 봉우리이고 감악산 정상에서 북서진 행로 과정에 여러 차례의 과협, 박환, 기복을 거듭하지만 이렇다할 뚜렷한 산은 기복하지 않고 중성산을 일어켜 주변에 소조산으로 볼만한 산봉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조산은 감악산으로, 태조산은 한북정맥의 갈림길 백봉으로 볼 수 있다.

현무봉 중성산은 봉우리가 비교적 둥글고 평평한 산으로 금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산 정상은 삼국시대 산성 칠중성의 유적이 있고, 한국전쟁이후 구축된 군부대 시설물들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정상에서 남동진하여 내려오면 좌측으로 용맥 한 갈래를 분기하고 직룡 입수하여 결혈한 적성향교이다. 입수봉은 비교적 크게 형성하고 내려 앉은 곳에 혈을 맺고 있는데 혈에서 바라보는 정면 안산은 본룡이 분기하여 들어오는 분맥처이며 안산 뒤에 바라보이는 조산은 본혈처의 중조산인 감악산 정상으로 하는 회룡 고조혈을 이루고 있어 더없이 좋은 길격으로 분석 된다



<도 30 : 사당 뒤에서 바라본 적성향교의 안산과 조산 >

회룡 고조혈은 주룡이 혈을 맺기 위하여 방향을 한바퀴 회전하여 자기 가 출발한 태조산이나 중조산, 소조산 등 조종산을 바라보고 입수하는 형태를 말한다. 용이 한바퀴 돌아 회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세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혈은 안산이 낮고 순해야하지만 회룡 입수에서는 안산이 주산보다 험하거나 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회룡 고조는 발복이 크고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다. 사격과 수세

금제 현무봉의 생기를 전달받은 혈지는 좌측으로 본신청룡이 37번 지방도까지 뻗어있고 중조산 감악산에서 행룡한 용이 하우고개를 넘어 중성산을 일컫는 본룡이 백호가 된다. 따라서 백호는 중성산 현무봉을 일컫는 내룡이 하우고개에서 분기하여 북서진하는 본룡에 연결되어 백호가 안산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적성향교 전방 북서쪽 37번 지방도까지 연결됨으로써 혈지를 중심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원형의 넓은 보국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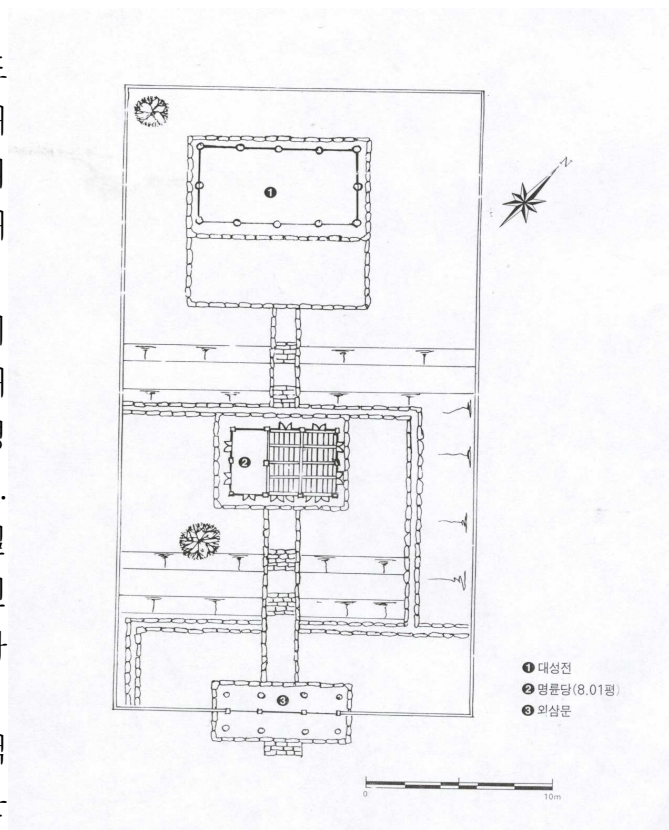
수세를 살펴보면 현무봉의 원진수는 백호에서 시작하여 내명당 앞에서 합수하여 서쪽 파구를 이루고 중성산 현무봉을 기준으로 남서쪽 설마천의 물은 중성산 남서쪽으로 흘러 중성산 북쪽에서 남서로 흐르는 임진강에 합수함으로써 적성향교의 현무봉 내룡인 북동쪽을 병목으로 하는 호리병 형태의 수세를 이루고 있다.

라. 건물의 배치

적성향교의 건물배치에서도 배산임수배치 전저후고배치 내룡의 중심부배치와 건물방위의 조화 여부를 대상으로 건물배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성향교는 전학후묘의 배치 형태를 취하여 배향 공간인 대성전을 후면에 강학공간인 명륜당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삼문은 대성전과 명륜당의 일직선상에 배치하여 전통적인 향교 배치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현무봉에서 행룡하는 내룡맥의 중앙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배치하되 대성전을 명륜당



< 도 31 : 적성향교 평면 배치도 >

보다 후면에 규모도 크게 건축함으로써 대성전의 기능을 중시한 듯 하고 배산임수, 전전후고, 내룡맥 중심의 배치 원칙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건물의 방위를 살펴보면 주건물은 남동향을 하고 삼문을 그 일직선상에 배치함으로써 주건물은 서사택에 배치하고 대문은 동사택에 배치하여 불배합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음양론으로 보면 주건물은 노부 양(陽)이고 대문은 장녀 음(陰)으로 배합을 이루고 있다.

오행의 상생관계를 보면 주건물은 금(金)이고 대문은 목(木)이라 금극목의 상극을 이루어 전체 방위의 조화에서는 양택3요의 이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 건물의 형태

적성향교는 목조 건물에 직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양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직사각형 평면은 가로 세로의 길이 비율에 따라 명당형 평면과 흥가형 평면으로 그 기운이 달라지게 되는데 평면 비율이 1:1.7에서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명당형 평면으로 보지만 1:2 이상으로 길어지면 흥가형 평면으로 분석된다.

적성향교의 주건물인 대성전의 평면 형태를 보면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 5.5m 세로(건물 앞면의 길이) 9.7m이고, 명륜당의 평면 형태는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 4.3m 세로(건물 앞면의 길이) 6.4m로 구성되어 각각 1:1.76과 1:1.48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대체로 명당형 평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 3절 서원의 풍수지리 분석

1. 용주서원

가. 연혁

용주서원은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 291번지 월릉산 휴암봉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조 유학자이며 청백리에 녹선된 휴암(休庵) 백인걸(白仁傑)

선생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학문과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용주서원은 백인걸 선생의 옛 집터에 유림들이 뜻을 모아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자 1592년 건립¹⁰⁷⁾하여 위패를 모신 곳이다.

그 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고 그 자리에 유허비만 남아있던 중 1924년 지역 유림들이 뜻을 모아 복원하여 휴암의 문인이었던 장포 김행, 옥천 조감, 낙금당 신제현, 당산 백유함도 함께 배향되었다.

현재 사당, 정륜당, 내·외삼문, 홍살문, 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1986년 과주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어 보호 받으며 매년 (음)9월9일 유림들에 의해 제향 되고 있다.

나. 내룡맥과 혈장

한북정맥의 주맥은 한강봉에서 도봉지맥, 감악지맥을 분기하고 주룡은 서진하여 피꼬리봉을 기봉한후 용두를 남으로 돌려 장군봉을 일으키고 다시 남서진하여 고령산 앵무봉, 박달산을 거쳐 월룡산과 기간봉을 연이어 기봉한다.

박달산에서 서진하는 행룡이 광탄면 용미리에 걸쳐있는 장지산 미륵당을 지나 조리읍 오산리 일대의 덕암산을 거치면서 월룡면 영태리 별관을 이루게 된다.

행룡은 과주여고와 두문리를 지나면서 다시 행룡이 빨라지고 힘을 더하여 수려하고 품위 있는 고봉 월룡산과 기간봉을 연이어 기봉 한다. 월룡산은 금촌동과 월룡면, 탄현면에 걸쳐있는 산으로 산정에 배가 떠나는 형국이 있는데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하여 이름 한 것이다. 월룡산에 연하여 있는 기간봉은 깃대모양으로 생겼으며 고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 하여 어룡산이라 칭하기도 한다.

월룡산은 북으로 아가산과 장수산을 가지로 뺏어내고 서진을 계속하여 탄현면 대동리와 만우리 일대의 보현산을 기봉 한다. 여기서 행룡은 머리를 남서로 돌려 오두산에 닿으니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하여 대해(大海)를

107) 『과주의 향교와 서원』, 과주문화원, 2004, 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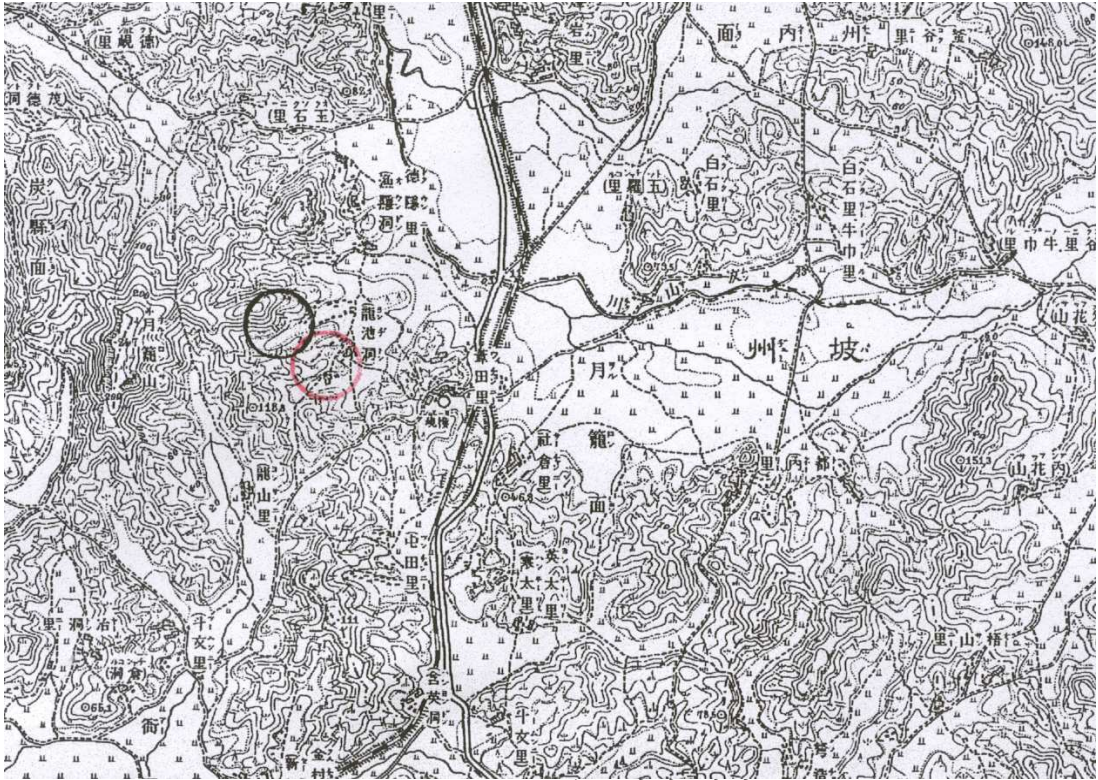
『과주군지』, p995.

『과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과주시, 1999, p193. 에서는 건립연도를 1598년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기지역 서원』, 경기대학교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소 국학자료원, 2004, p355. 에서는 1787년으로 하고 있음.

이루는 자리 그곳에서 한북정맥은 행룡을 멈추고 두 강과 악수한다.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산과 물이 충화를 이루는 곳이다.

한북정맥의 주맥이 지나는 월룡산 정상에서 동남진하여 내려오면 깊은 과협을 이루고 다시 우뚝 솟은 귀봉을 이루는데 용주서원이 자리한 휴암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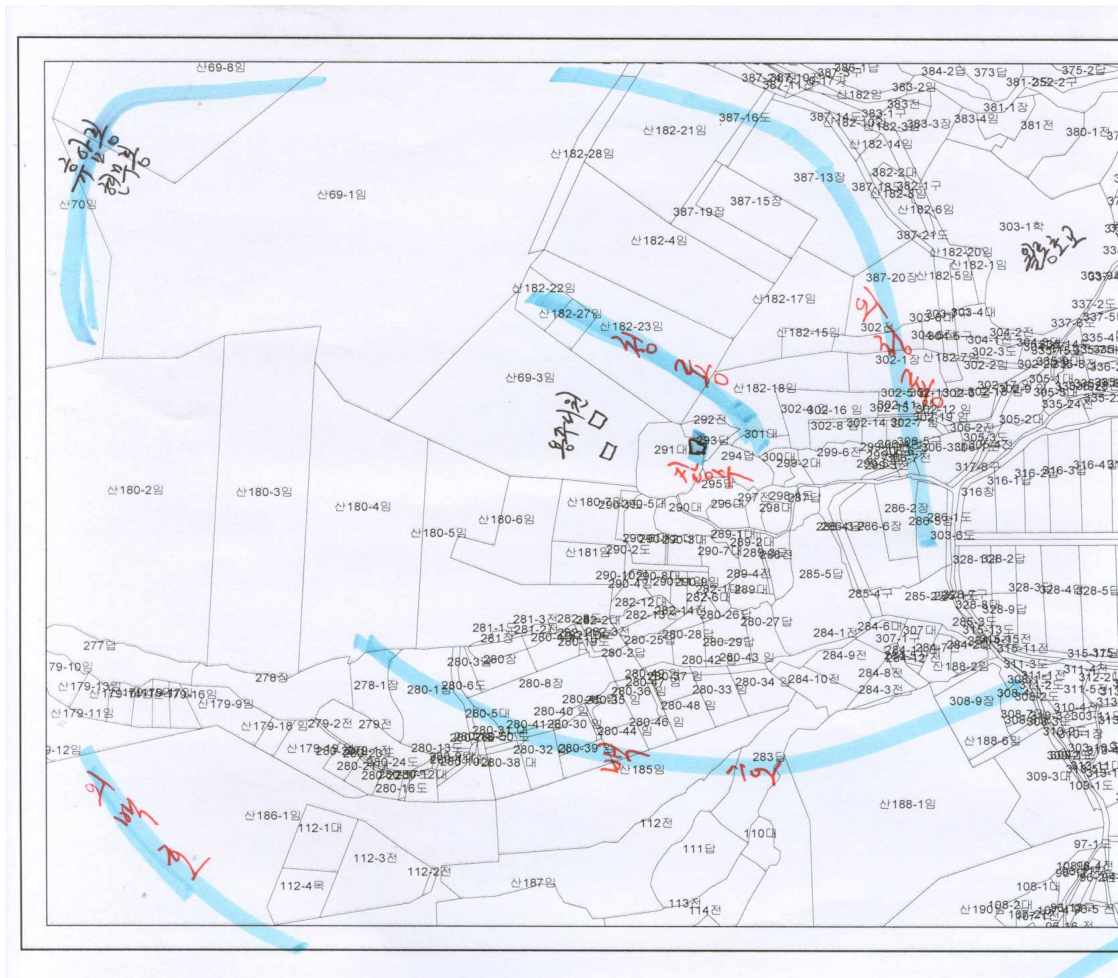
<도 32 : 1919년도 용주서원 지형도>

용주서원 내룡맥의 행룡 과정에서 볼 때 현무봉은 서원의 바로 뒤에서 응축된 기운을 직접 전달하는 휴암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조산은 월룡산, 중조산은 개명산 앵무봉, 태조산은 식개산 분기점의 백봉으로 볼 수 있다. 휴암봉은 산형이 목체산으로 볼 수 있는데 깨끗하고 수려할 뿐 아니라 훤히 갈라진 지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무봉 정상은 원형의 목체여서 분기하는 용맥도 잘 더러 나지 않는다. 8부 능선을 내려와서야 겨우 지룡을 찾을 수 있는데, 현무봉에서 남동진하여 3-4절을 내려오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180도를 둘러 도는 바위가 90도로 세워져있고, 그 바위 아래 20m를 내려가 허리를 굽혀 살펴보고서야 겨우 용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풍수지리에서 한 치가 높아도 산이고 한 치가 낮아도 물이라는 말을 되

새겨 보아야하는 사례는 평지에서만이 아니라 경사진 산중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일 듯 말 듯한 용맥을 따라 내려와 넓게 퍼진 지맥 끝에 자리한 용주서원은 와혈과 겸혈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도 33 : 최근의 용주서원 지번 위치도 >

다. 사격과 수세

용주서원의 현무봉은 산정상이 원통형으로 솟은 주인격 목체산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지형도의 등고선에서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원통형 목체는 산신에 지각이 없고 생기의 기운이 가득한 총명, 문필, 관직을 관장한다.

휴암봉은 산 정상 가까이에 둘러쳐진 바위로 인하여 바위의 좌우 끝을 중심으로 양쪽에 지룡이 형성되고, 좌측 지맥은 동북향의 월룡 초등학교와 용주서원 사이를 길게 뻗어내려가 368번 지방도에 닿는 지점까지 연결된

다. 우측 지맥은 남향으로 뻗어가다 다시 동으로 머리를 돌려 368번 지방도에 닿으니 청룡과 백호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월룡산 정상에서 휴암봉을 기봉하기 직전에 이룬 과협에서 분기한 지룡은 서원의 외백호가 되어 다시 한번 둘러치니 서원의 주건물은 동남향을 하고 동향 파구를 이루는 형세가 된다. 따라서 청룡과 백호가 완전히 감싸고 내백호 외백호가 안산과 조산 역할을 겸하게 되는 형국이다.

청백호의 역할은 외부의 바람이 혈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자신이 품고 있는 기운을 혈에 공급해주기도 한다.

청백호가 수려하면 좋은 기운이 전달되고 험하고 탁하면 나쁜 기운이 혈로 보내지게 된다.



< 도 34 : 용주서원 현무봉 8부능선의 바위 >

용주서원의 청백호는 길고 튼튼하게 완전히 혈을 호위하고 있어 혈지의 생기를 보호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세를 살펴보면 현무봉 좌우의 원진수는 내명당을 돌아 청룡 끝에 수구처를 이루고 외명당 밖 400m전방에 흐르는 문산천이 북동에서 흘러와 서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길이 혈을 등지는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수세가 외명당 밖이고 주건물을 청백호가 완전히 감싸고 보국이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주건물에서 등 돌린 물이 보이지 않는 형태이므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도 35 : 용주서원 전경과 현무봉 >

그러나 서원의 홍살문 좌측 끝에는 맑고 깨끗한 작은 지당수가 자리하고 있어 음양의 충화를 돕고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수관재물(水管財物)이라 하여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고 했다. 혈 앞 지당수가 맑고 가물에도 마르지 않으면 부귀 왕정 하지만 오염되어 냄새가 나면 흉함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특히 인공 연못은 오히려 생기를 누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 건물의 배치

용주서원에서도 풍수지리의 일반적인 건물배치 기준인 배산임수, 전저후고, 산의 중심에 따른 배치와 주변과의 조화, 방위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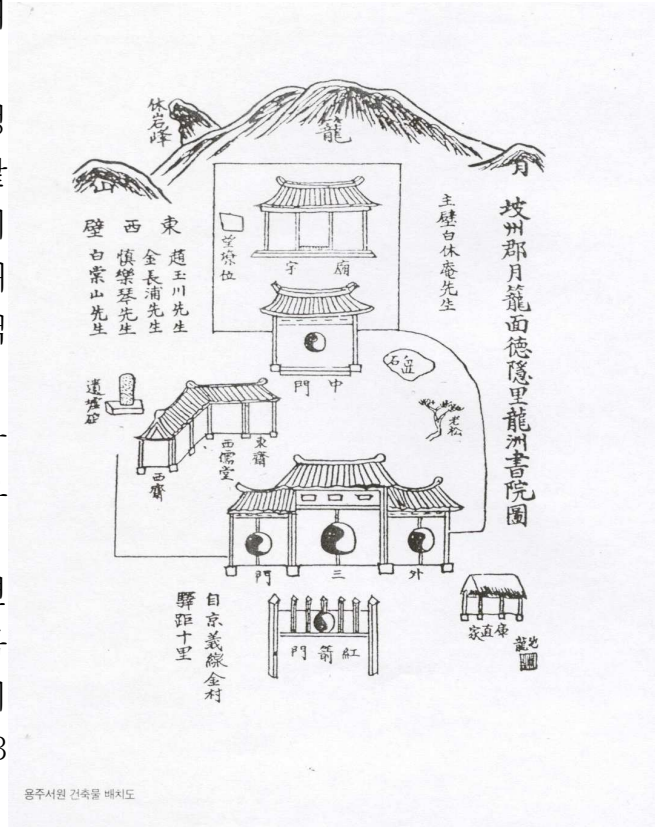
용주서원은 서원의 일반적인 배치 형태에 따라 강당인 정륜당을 전면에 배치하고 배향 공간인 대성전을 후면에 배치하여 전학후묘의 공간배치 형태를 취하되 전면의 정륜당은 우측으로 하고 각각 삼문을 두고 있다.

용주서원은 현무봉 정상부근의 바위 밑에서 형성된 내룡이 행룡 중에 세 갈래로 분맥 되어 그 중 청룡과 붙어서 분맥 된 지룡이 넓게 퍼져 들어온 용맥 끝에 혈을 맺었다. 따라서 전체 산형에서는 청룡 쪽으로 기울어 진듯하게 배치되어 있으나 용맥으로 보면 용맥의 중심을 잃지 않고 배치되어 있어 배산임수 배치와 산의 중심배치를 따르고 있다.

용주서원의 주건물인 사당과 정륜당은 남동향을 하고 삼문도 같은 일직선상에 위치하여 주건물이 서사택을 택하고 있는 반면에 대문은 동사택을 택하고 있어 양택 3요의 배치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음양론으로 보면 주건물은 노부 양(陽)이고 대문은 장녀 음(陰)으로 음양의 배합을 이루고 있다.

오행론의 상생 관계를 살펴보면 주건물은 금(金)이고, 대문은 목(木)으로 금극목의 상극관계를 이루어 전체 방위관계에서는 양택 3요의 이론과 차이가 있다.



< 도 36 : 용주서원 배치도 >

마. 건물의 형태

건축물은 현무봉의 산형에 부합되게 건축하게 되면 현무봉의 기운을 전달받는데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휴암봉의 산형이 원통형 목산으로 형성되어 혈지에 건축물도 이에 부합하여 목체형 구조와 지붕이라면 더없이 좋은 기운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은 대체로 직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서원의 경우 강학기능과 배향기능 중 어느 것을 주(主)로 하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함께 주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굳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배향기능인 대성전을 주건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서원에 있어서는 대성전을 뒤에 배치하고 강학공간을 전면에 배치함이 일반적이고 설립

초기 일부 서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배향기능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향교의 경우 초기부터 일관되게 교육기능이 본연의 목적이었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선현에 제사를 행했기 때문에 강학공간이 주건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용주서원의 건축에 있어서도 직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어 공간구조의 비율 즉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와 세로(건물 전면의 길이)의 비율에 따라 명당형 평면과 흥가형 평면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평면비율이 1:1.7에서 정사각형에 가까우면 명당형 평면으로 볼 수 있지만 1:2이상이면 흥가형 평면으로 분석된다.

용주서원의 주건물인 사당의 평면형태를 보면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 5.1m 세로(건물 앞면의 길이) 7.6m이고, 강학구역인 정륜당의 평면형태는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 4.4m 세로(건물 앞면의 길이) 10.5m로 구성되어 각각 1:1.5와 1:2.4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어 대성전은 명당형 평면으로 볼 수 있으나 정륜당은 흥가형 평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자운서원

가.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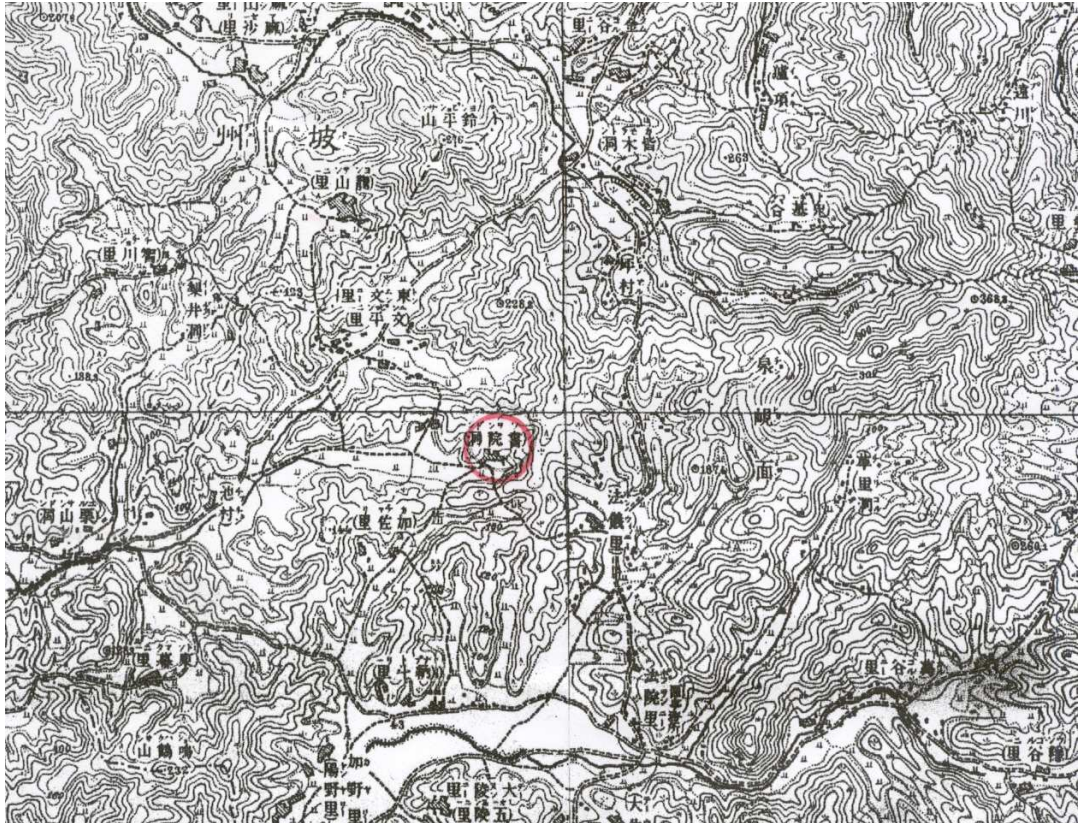
자운서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번지 사방산 자락에 위치한다. 자운서원은 1615년 지방 유림들이 율곡 이이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율곡서원(栗谷書院)으로 창건하였다. 그러다가 1650년 자운서원(紫雲書院)으로 사액을 받아 율곡 이이를 봉사하였다. 그 뒤 박세채, 김장생을 추가 배향하였으나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어 빈터에 묘정비(廟庭碑)만 남아 있다가 유림들과 국가에 의하여 1970년 복원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보수작업을 하여 현재 사당과 강당(강인당), 동·서재, 내·외삼문으로 구성되어 1973년 경기도 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매년(음) 8월 중정일이 제향일이나 1996년부터 율곡문화제 행사시에 추향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나. 내룡맥과 혈장

한북정맥 한강봉에서 분기하여 은봉산, 팔일봉, 노아산을 거쳐 북진한

본맥은 노고산에서 남서진하여 자웅산 갈림길과 파평산 갈림길을 열고 북동쪽에 점미산을 지지대로 하여 북진을 계속한다.

파평산 갈림길은 오현리와 직천리, 법원리, 갈곡리, 금곡리를 이어주는 비학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산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서진하여 보리고개를 지나 과협을 이룬 행룡은 북서진하여 사방산을 일어 키고 다시 북서진하여 연평산, 광평산을 연이어 기봉 시키니 두포천에서 그 행룡을 멈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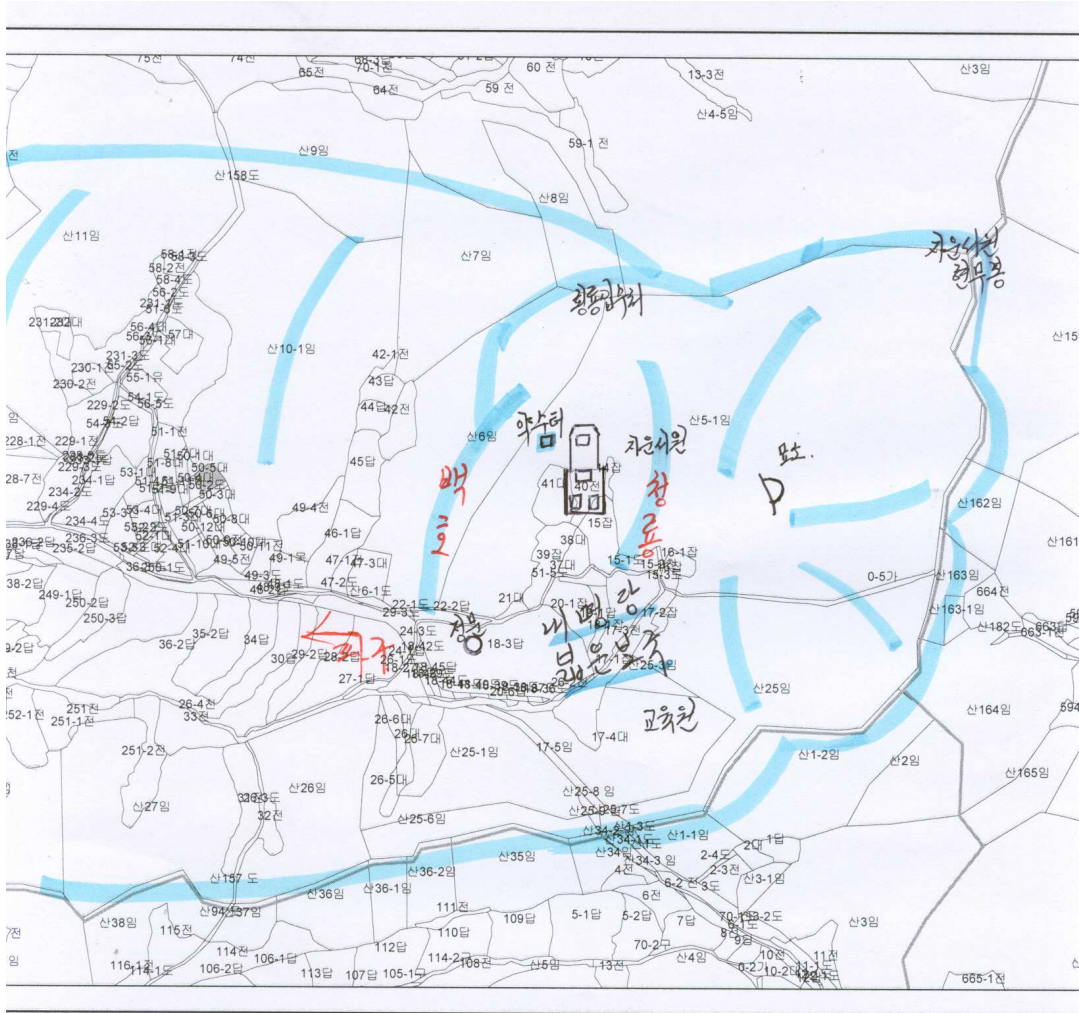


< 도 37 : 1919년도 자운서원 지형도 >

한편 북서로 연평산, 광평산을 일어난 사방산 정상은 남서진하는 지룡을 지지대로 삼아 몇 절을 남동진한 후 다시 용두를 남으로 돌려 행룡하니 자운서원이 자리한 현무봉을 기봉 한다.

사방산은 사방으로 산이 퍼져있어 붙여진 이름이나 율곡선생 예장당시 자색 구름이 자욱하여 자운산이라 호칭 되었다고 전하는데서 율곡 이이선생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사방산 남맥으로 율곡선생의 묘역과 율곡연수원 그리고 자운서원이 자리하고, 율곡 이이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방산은 멀리 남서로 봉서산과 월룡산이, 북으로 파평산이, 북동으로 감악산이, 남동으로 노고산과 앵무봉이 둘러싸고 가까이는 사방에 광평산, 명학산, 자웅산, 만월봉이 위호하고 있다. 그리고 남으로 갈곡천, 북으로 두포천이 동(東)에서 서(西)로 흘러 임진강에 합수하여 북서쪽 멀리서 서원을 감싸 흐르고 있다.



< 도 38 : 최근의 자운서원 지번 위치도 >

사방산 정상에서 남동진하여 자운서원 현무봉을 일어난 본룡은 정상 봉우리에서 두 갈래로 분기하여 좌측지맥은 남진과 남서진을 계속하여 율곡 이이선생의 묘소와 율곡연수원이 자리한 지룡을 만든 후 서쪽으로 돌아가고, 우측지맥은 몇 구비 굴곡으로 서진을 하다가 좌측(남쪽)으로 횡룡입수하여 자운서원 자리를 만든다.

자운서원은 내룡맥 분석의 조종으로 보았을 때 현무봉은 서원 내룡맥이

횡룡입수하기 전에 일어 킨 작은 봉우리로 완만한 듯 하면서도 노적봉처럼 수려하여 금산으로 볼 수 있고 정상 아래는 작은 봉우리들이 서로 연결되고 물결치는 듯하여 오행산으로 분류하면 금산과 수산의 혼합형으로 분석된다.

소조산은 사방산으로 보면 되는데 사방산은 사방에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 현무봉에서 보이는 정상은 금산으로, 반대편 금곡리에서 보이는 정상은 전형적인 목산으로 볼 수 있어 목산과 금산의 혼합형으로 분석된다.

중조산은 감악지맥 본맥의 행로에 기봉한 노고산이고, 태조산은 한북정맥 분기점의 백봉으로 볼 수 있다.

횡룡입수하여 결지한 자운서원은 혈처가 약간 불룩하게 돌출된 듯 하여 유혈로 볼 수 있는데, 유혈은 일반적으로 바람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입수룡은 행룡해온 용이 최종적으로 혈장의 입수두뇌와 연결되어 혈에 생기를 전달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입수룡은 혈장에 들어오는 형태에 따라 직룡입수, 횡룡입수, 비룡입수, 회룡입수, 잠룡입수, 섬룡입수로 분류된다.

횡룡입수는 행룡하는 주룡의 측면에서 지룡이 나와 혈을 결지하는 형태인데 입수룡이 진룡이 되려면 반대편에 귀성이 있어 이를 받쳐 주어야 하고 귀성 뒤에 낙산이 있어 그 허함을 막아주어야 좋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사례지의 입수룡에 있어 행룡하는 용맥의 힘이 조금 미약하고 용맥을 따라 흐른 우수(雨水)가 맥로를 할 킨 것 같은 흔적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다. 사격과 수세

자운서원 소조산인 사방산에서 달려온 지맥이 현무봉을 일으키고 좌우로 행룡하여 혈을 결지하게 되는데 현무봉과 소조산은 경사가 완만하고 정상봉우리를 제외하면 모두 비슷한 산들로 연결되어 금산과 수산의 혼합형으로 분석된다. 혼합형 산의 경우 두 가지 기운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 목산의 기운은 문필, 관직, 귀를 관장하게 되고, 금산은 복덕과 부를 관장하고, 수산은 문필과 처복을 주로 관장하게 된다.

자운서원은 횡룡 입수룡으로 반드시 귀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례지의 경우 입수룡의 반대편 중앙에 널찍한 귀성이 있어 반작용 역할을 하고 그

뒤로는 사방산 주봉이 가로막아 낙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룡은 횡룡 입수전에 지룡을 분기하여 자운서원의 청룡이 되고 횡룡입수 후 계속 서남진한 주룡은 백호가 되어 서원의 정문 뒤 까지 돌아가고 있다. 또한 현무봉에서 좌측으로 분기한 갈래는 남서진하여 율곡선생의 묘소 자리를 이루고 율곡 연수원을 지나 서진을 계속하게 되는데 율곡 연수원 뒤쪽의 주룡맥이 자운서원의 안산을 이루어 청룡 백호 외청룡 안산이 모두 호종하는 지세를 형성한다. 따라서 내명당을 중심으로 율곡서원 혈지의 원진수와 율곡 이이선생 묘소의 원진수 그리고 율곡연수원의 원진수가 내명당에서 합수하여 서쪽 수구처를 이루고 사방이 둥근 원형의 넓은 보국을 형성함은 대단한 길격이라 분석된다.



< 도 39 : 자운서원 진용수 >

또한 서원의 대성전 우측에는 가천(嘉泉)이 솟아 인근 마을 주민들의 약수로 제공되기도 하고 산새들의 식수로 이용될 뿐 아니라 음양(陰陽) 충화의 역할을 하고 있어 더욱 길격이라 할 수 있다.

천(泉)이란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말하는데 용혈 주변에 있는 샘물을 보고 혈의 결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천론(泉論)이라고 한다.¹⁰⁸⁾



< 도 40 : 자운서원 내명당 전경 >

길한 샘물은 가천(嘉泉) 감천(甘泉)이 있고 흉한 샘물은 냉장천(冷漿泉) 온천(溫泉) 광천(鑛泉) 동천(銅泉) 용천(湧泉) 음천(淫泉) 몰천(沒泉) 황천(黃泉) 누천(漏泉) 냉천(冷泉)이 있다. 그 중 가천은 물빛이 맑고 물맛이 달며 물에서 향기가 느껴지는 샘물이다. 사시사철 수량이 일정하고 여름 같이 더울 때에는 물이 차고 겨울처럼 추울 때에는 물이 따뜻하여 좋은 약수 물에 해당 되는 것을 말한다.

가천이 진응수(眞應水)¹⁰⁹⁾가 되면 혈은 대부대귀(大富大貴)가 기약되고 특히 집터에 가천이 있으면 부귀장수하고 경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라. 건물의 배치

자운서원은 강학공간인 강인당(講仁堂)을 전면에 배치하고 제향 공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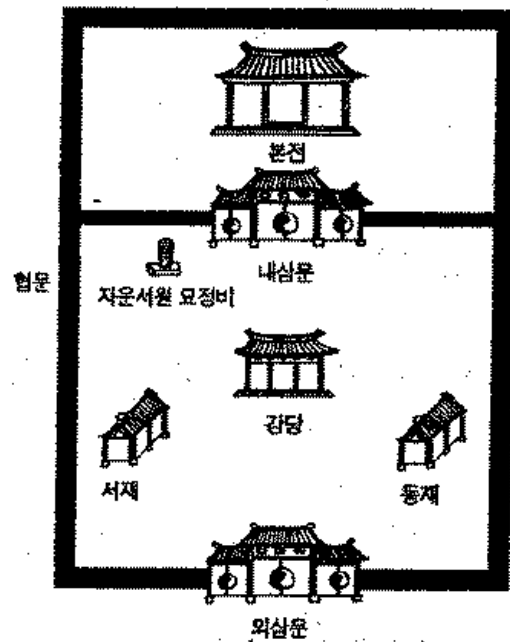
108) 정경연, 전계서, p601.

109) 진응수는 혈 앞이나 옆에 있는 샘물을 말하는데 용의 기세가 강하면 생기를 보호하면서 따라 오는 수기(水氣)도 강하여 혈의 생기를 보호하고도 남은 기운이 지상에 분출한 물이다. 따라서 진응수가 있으면 진혈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대부대귀가 기약 된다

사당을 후면에 배치하여 전학후묘의 형식을 취하여 전통적인 서원배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강인당의 전면 좌우에는 입지재와 수양재를 전재사후강당 형식을 취하여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지대가 높은 후면에 사당을 배치시키고 지대가 낮은 전면에 강당과 동·서재를 차례로 배치하여 전저후고의 배치와 배산임수의 배치원칙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고 있다.

자운서원은 횡룡 입수룡을 따라 행룡의 중심지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사당을 배치하였으며 사당, 강당, 삼문의 일직선 배치 방법은 일반적 서원의 전



자운서원 건물배치도

< 도 41 >

통적 배치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인당 좌우의 동·서재는 청백호의 기능강화라는 측면에서 좋은 배치형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운서원의 방위를 살펴보면 주건물이 정남향 배치이고 삼문도 동일선상에 배치되어 주건물이 동사택이고 대문도 남쪽의 동사택에 배치되어 배합을 이루고 있다.

음양론으로 보면 주건물은 중남 양(陽)이고 대문은 중녀 음(陰)으로 음양의 배합을 이루고 있다. 오행론의 상생 관계를 보면 주건물은 수(水)이고 대문은 화(火)로 수극화의 상극을 이루고 있으나 전체 방위의 배치에서 보면 양택3요에 부합하는 길한 방위로 분석된다.

마. 건물의 형태

자운서원의 주건물도 직사각형 평면을 이루고 있어 가로 세로의 길이

비율에 따라 그 기운이 명당형 평면과 흉가형 평면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평면 비율이 1:1.7에서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명당형 평면으로 보지만 1:2 이상으로 길어지면 흉가형 평면으로 분석한다.

자운서원 주건물인 사당의 평면 형태를 보면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 3.4m 세로(건물 앞면의 길이) 7.4m이고, 강학구역인 강인당의 평면 형태는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 5.5m 세로(건물 앞면의 길이) 12.1m로 구성되어 각각 1:2.17과 1:2.2의 구성 비율을 이루고 있다.

직사각형 평면은 기운이 중심에 모이지 않고 흩어져 명당을 이루지 못한다. 가로 세로의 비율이 1:2이상인 직사각형 평면은 기운이 좌우로 분산되어 양기가 빈약하게 되는 것이다.

3. 파산서원

가. 연혁

파산서원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235번지 중성산 아래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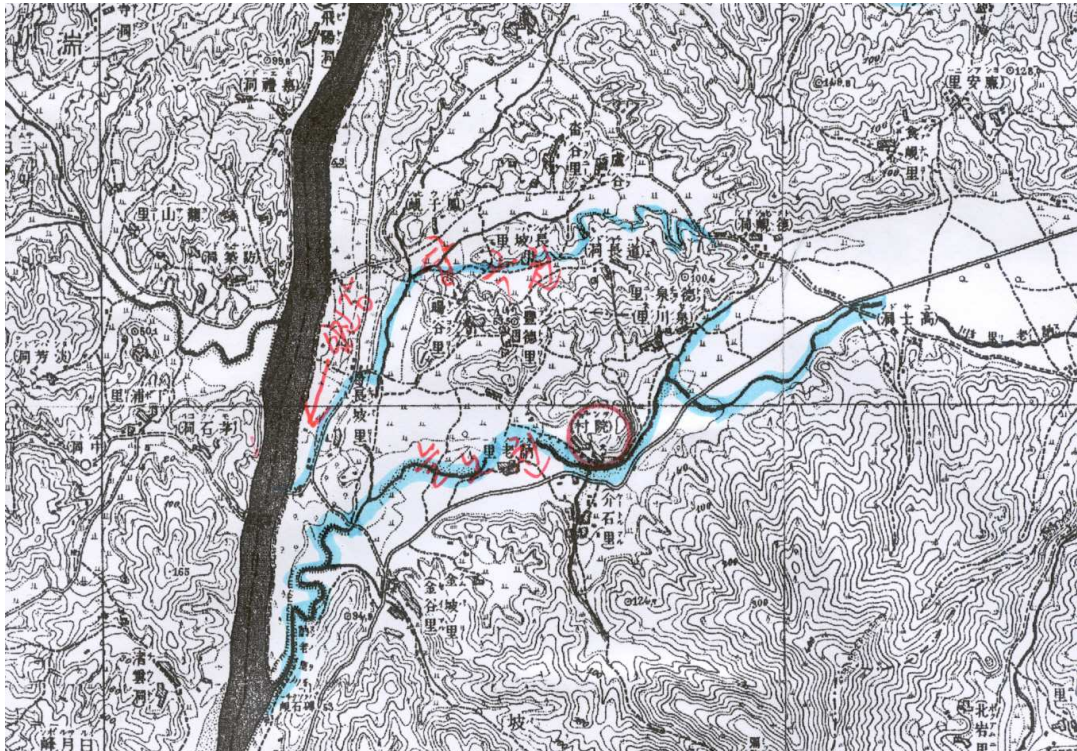
파산서원은 1568년 성수침을 제향하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율곡 이이가 창의하여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세 번째 건립된 유일한 서원이다. 파산서원은 1592년 임란으로 소실되었으나 1611년 재건되어 1650년(효종1년)에는 파산이란 이름으로 사액 되었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중의 하나로써 선현 배향과 지방민 교육의 역할을 다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다시 소실되고 1976년 재건되었다.

성수침은 적성현감을 지낸 유학자이며 조광조의 문인이었다. 을묘사화를 계기로 관직을 사임한 그는 후진 양성에만 전념하여 많은 인물을 배출하여 당시 파산서원은 기호학파의 본거지가 되기도 하였고, 조선조 말엽 고종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여운형, 조소항 등 고명한 정치가를 조현규 선생이 마지막으로 지도 배출하였던 서원이기도 하다.

파산서원은 건립이후 성수침을 주벽에 배향하고 성수종, 백인걸, 성혼을 추가로 배향하여 4인을 함께 모시고 있다. 현재 사당, 찰륜당(강당), 삼문, 홍살문, 재직사로 구성 되어 있으며, 1983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10호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다.

나. 내룡맥과 혈장

한북정맥 한강봉에서 분기하여 은봉산, 팔봉산, 노고산을 거쳐 북진한 본맥은 수레너미고개에서 숨을 고르고 남동으로 망당산, 북서로 만월봉, 남산을 분기하고 북서로 지맥 한 갈래를 더 형성하니 거르메 아랫무건리를 거쳐 마지리의 앞산과 마지고개를 지나 북서진하여 두지리의 180m 무명산을 기봉하고 연이어 남서로 국사봉을 기봉 한다.



< 도 42 : 1919년도 파산서원 지형도 >

국사봉은 적성면 자장리와 식현리에 걸쳐 있는 봉우리로 옛날에는 봉화를 올리기도 했고 나라를 지키는 봉우리란 의미로 이름 한 산답게 현재도 그 산 아래 군부대가 주둔하여 국토방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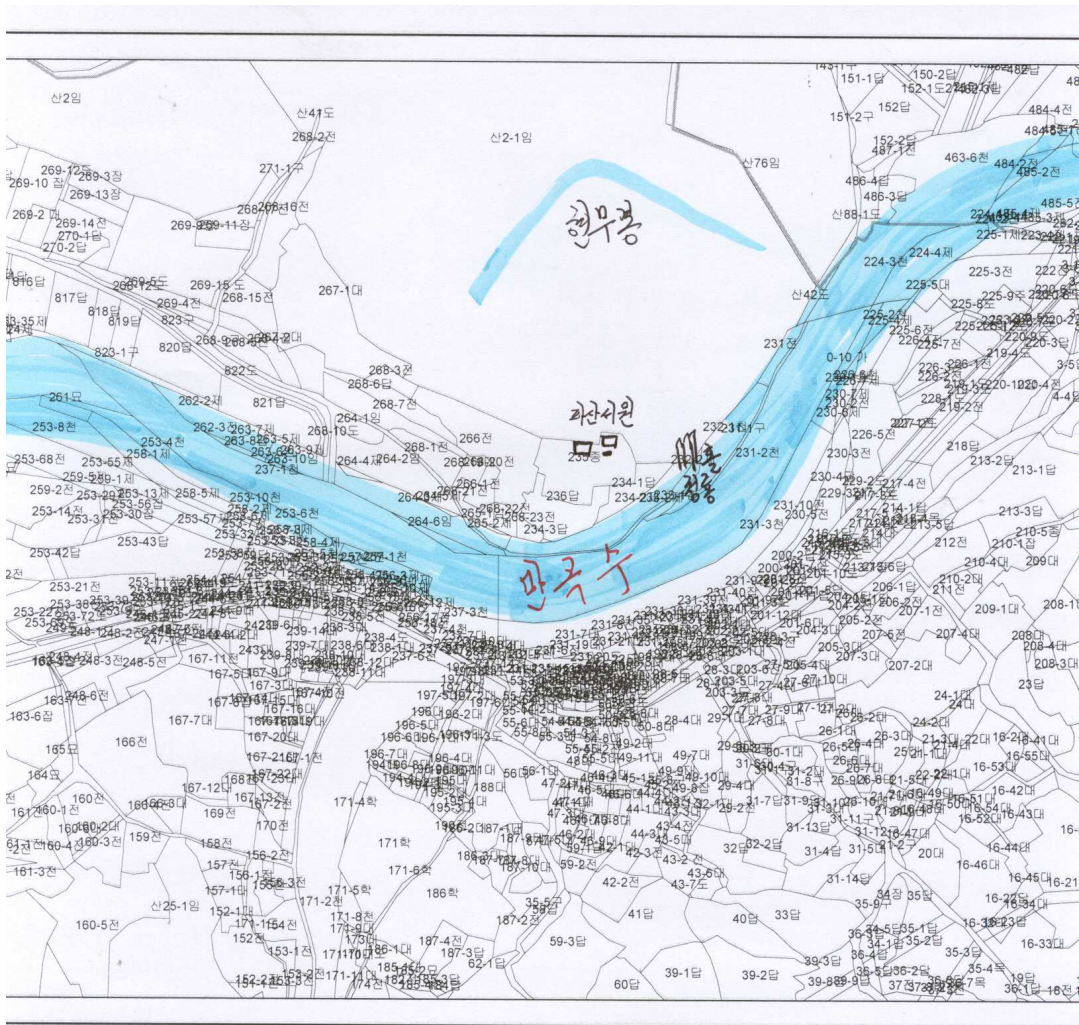
국사봉 본맥은 남서로 십리 행룡을 계속하니 무정산에 이른다.

무정산은 매화꽃송이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매화산이라 칭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곳에 궁궐을 지으려할 때 어디선가 산이 떠 내려와서 가로막아 이를 중지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남서진 행룡의 무정산 좌우에는 놀노천과 담곡천 임진강이 함께하니 넓은 들판을 펼쳐두고 행룡을 멈추어 서원을 안고 있다.

파산서원 내룡맥 분석의 조종으로 볼 때 무정산 정상을 현무봉으로, 국사봉은 소조산, 노고산은 중조산, 한북정맥의 분기점 백봉은 태조산으로 볼 수 있다.

무정산 전면은 양 측면과 함께 3면이 단아한 초가지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금산(金山)으로 볼 수 있고, 국사봉은 낮은 연봉들이 물결치듯 기봉하고 있어 수산(水山)으로 분류된다.



< 도 43 : 최근의 파산서원 지번 위치도 >

무정산 봉우리 전면에서는 두 갈래의 지룡이 분기하여 내려오는데 좌측 용맥은 행룡 하다가 다시 좌측으로 지맥을 분기하여 청룡으로 삼고 본맥은 용진처에 파산서원 사당 혈지를 맺고 있다. 우측 지맥은 행룡 하다가 다시 우측으로 작은 지맥을 분기하고 본맥은 용진처에 파산서원 칼룬당

혈지를 맺었다.

파산서원은 무정산 봉우리에서 직룡 입수한 유혈 쌍유로 판단 되는데 유혈은 약간 불룩하여 바람으로부터 노출되어 주변의 보호사가 주밀하게 감싸주어야 한다.

다. 사격과 수세

파산서원은 현무봉에서 낙맥하는 두개의 입수룡 좌우에서 청백호가 감싸고 있는데 청·백호의 용맥은 비교적 짧고 선명하지 못하다

그러나 청룡 끝에는 바위가 붙어 서원 앞 놀노천까지 내려와 물길 따라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비록 용맥이 짧은 듯하지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도 44 : 파산서원 청룡끝의 바위(홀) >

서원 사당의 삼문 정면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고사목¹¹⁰⁾이 있는데 고사목 또한 바람막이 기능을 다소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110) 고사목은 10여 년 전부터 고사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고사목 위에는 다른 씨앗의 어린 느티나무가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청룡은 주로 남자와 귀(貴)를 관장하게 되고, 백호는 여자와 부(富)를 관장한다. 청·백호 끝이 한쪽은 도장과 같은 작고 둥근 능선이나 바위가 붙어있고 다른 한쪽은 홀과 같이 네 모 반듯한 작은 바위와 능선이 있는 것을 용호대홀인이라고 한다. 이는 대귀를 나타내고 재주 있는 자손이 권세를 잡고 만인을 압도하는 영웅이 된다고 했다.



< 도 45 : 파산서원 전경과 현무봉 >

파산서원 전면은 눌노천이 북동쪽(청룡)에서 흘러 파산서원을 환포하고 북서쪽 파구를 이루어 만곡수를 형성하고 있다.

풍수에서 이상적인 물의 형태는 궁수 또는 만곡수라고하여 활의 둥근 모양과 같이 혈을 중심으로 굽이쳐 돌아가는 형태의 곡선 안쪽을 말한다.

이러한 궁수 또는 만곡수는 물길이 잔잔하고 지기가 모여 좋은 집터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혈과 정면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낮고 작은 산을 안산이라 하고 안산 뒤의 산을 조산이라고 한다. 안산이 혈과 너무 멀면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고 너무 가깝고 크면 혈을 압박하게 되어 좋지 못하다.

안산이 없는 경우에는 호수나 강 같은 물이 안산을 대신하게 되는데 파산서원은 전면에 눌노천이 만곡수를 이루어 안산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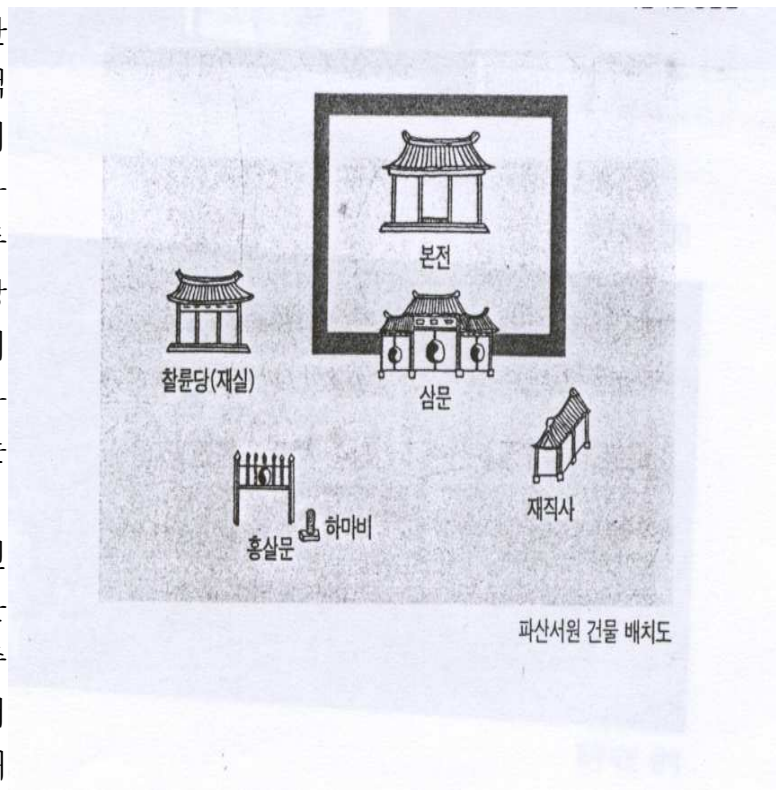
다. 눌노천 건너 멀리서 높이 솟은 파평산은 서원의 조산으로써 현무봉 무정산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 맑고 단아한 무정산 보다는 훨씬 높고 크며 거칠어 아직은 탈살 되지 않은 살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 건물의 배치

파산서원은 전학후묘의 전통적인 서원배치 방식에서 벗어나 좌묘우학의 병렬식 배치방식을 택하여 배향공간인 사당은 좌측 용맥의 중심부에 배치하고 찰륜당은 우측 용맥의 중심부에 배치하고 있다.

파산서원은 초가지붕 형태의 현무봉에서 전면 좌우에 비교적 가느다란 용맥을 형성하고 중간에 다시 두 줄기 용맥을 형성하여 네 줄기 용맥 중 가장 좌측 용맥은 청룡이 되고, 두 번째 용맥 끝에는 사당이, 세 번째 용맥 끝에는 찰륜당이, 마지막 우측 용맥은 백호가 되는 형태를 지닌 산형이다.

가운데 두 줄기 용진처에 사당과 찰륜당을 배치함으로써 용맥 중심부 배치이론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도 46 >

서원은 전학후묘의 배치형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지형 공간상의 이유 또는 조선조 후기의 남설기에 설립된 서원이 있다.

파산서원의 경우 공간구조면에서 전학후묘의 배치형태를 취하더라도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병렬식 배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현무봉의 용맥 흐름에 따라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전통적 서원배치 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건물의 방위를 살펴보면 사당을 남향 배치하고 삼문과 홍살문은 사당과

일직선상에 배치함으로써 사당과 대문을 동사택으로 하여 배합을 이루고 있다. 음양론으로 보면 사당은 중남 양(陽)이고 대문은 중녀 음(陰)으로 음양의 배합을 이루고 있다.

오행론의 상생관계에서는 사당은 수(水)이고 대문은 화(火)로 수극화의 상극 관계를 형성한다.

찰륄당은 삼문이 없기 때문에 홍살문으로 방위를 분석해보면 찰륄당은 정북(임자계)좌이고 홍살문은 남동(진손사)향을 하고 있어 찰륄당과 대문이 동사택의 배합을 이룬다.

음양론으로 보면 찰륄당은 중남 양(陽)이고 대문은 장녀 음(陰)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행론의 상생관계에서는 찰륄당이 수(水)이고 대문은 목(木)으로 수생목의 상생관계를 이루고 있어 전체 방위론에서 양택3요의 이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 건물의 형태

파산서원은 목조 직사각형 평면을 이루고 있어 가로 세로의 평면 비율에 따라 명당형 평면과 흉가형 평면으로 건축물의 기운이 달라지게 되는데 건물평면 비율이 1:1.7에서 정사각형에 가까우면 명당형 평면으로 볼 수 있지만 평면 비율이 1:2 이상이면 흉가형 평면으로 분석된다.

파산서원의 주건물인 사당의 평면 형태를 보면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 5.2m 세로(건물 앞면의 길이) 7.4m이고, 찰륄당의 평면 형태를 보면 가로(건물 깊이의 길이) 4.6m 세로(건물 앞면의 길이) 11m로 구성되어 각각 1:1.42와 1:2.39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어 배향공간인 사당은 명당형 평면으로 볼 수 있지만 찰륄당은 흉가형 평면으로 분석된다

제 4절 분석결과 종합

지금까지 전통풍수 입지이론의 틀로써 파주지역 향교와 서원에 대한 입지를 분석하였다. <도 47 분석결과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형지세, 건물배치, 건물방위, 건물형태를 분석요소로 하여 연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교와 서원 간에 입지선정의 기본 구조로써 큰 차이는 보이지 않

고 있다. 관학과 사학, 건립시기에서는 차이점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교육 기관이라는 큰 울타리에서 묘(廟)와 학(學)이 함께하는 구조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둘째, 지형지세의 분석요소를 내룡맥, 혈장, 사세, 수세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향교와 서원의 내룡맥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사세, 혈장이 뚜렷한 혈지에 자리 잡고 있다.

사세가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수세가 이를 대신하기도 하는데 교하향교는 곡능천이 안산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며, 파산서원은 늘노천이 만곡수를 이루어 안산과 청백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용주서원의 경우 8부 능선의 암석으로 인하여 내룡맥이 뚜렷하게 뚫리지 못하고 넓게 퍼진 것으로 분석되고, 파주향교의 파구는 직거하여 산수동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직선적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전통문화의 결과로 여겨진다.

셋째, 건물배치는 배산임수, 전저후고, 산의 중심부 배치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향교와 서원에서 이러한 분석요소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주서원, 자운서원, 파산서원의 건축물은 건물 규모에 있어서 제향공간보다 큰 강학공간이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후면의 규모가 작은 제향공간을 높은 기단 위에 건축함으로써 전저후고의 기준에 부합되게 하고 있으며, 특히 파산서원의 경우 두 줄기의 내룡맥을 고려하여 병렬식 배치를 하면서도 규모가 작은 제향공간을 후면에 기단을 높여 건축함으로써 내룡맥의 산중심부에 전저후고 배치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건물방위는 동·서사택과 음양, 오행의 세 요소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향교와 서원의 동·서사택과 오행론이 풍수적 입지 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지형지세에 따라 주건물을 배치하되 삼문, 홍살문을 주건물의 일직선에 배치함으로써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주종관계, 위계질서를 중시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건물형태에서는 건물평면과 지붕형태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건물평면은 모든 향교와 서원에서 직사각형 평면형태를 이루었다.

직사각형 평면의 구성 비율을 분석하면, 자운서원은 사당과 강당이 모두 흥가형 평면 비율로 구성된 반면, 교하향교는 대성전과 강당이 모두 명당형 평면을 이루고, 그 외 파주향교, 적성향교, 용주서원, 파산서원의 평면은 두 공간 중 하나만 명당형 평면이고 다른 하나는 흥가형 평면을 이루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붕의 형태는 모든 향교와 서원의 지붕이 용마루가 길고 중간이 밑으로 늘어진 형태를 하고 있어 흥가형 지붕으로 분석된다.

구 분		향 교			서 원		
		교하향교	파주향교	적성향교	용주서원	자운서원	파산서원
지형지세	내룽맥	○	○	○	△	○	○
	혈 장	○	○	○	○	○	○
	사 세	○	○	○	○	○	△
	수 세	○	×	○	○	○	○
건물배치	배산임수	○	○	○	○	○	○
	전저후고	○	○	○	○	○	○
	산의중심	○	○	○	○	○	○
건물방위	사 택	×	×	×	×	○	○
	음 양	○	○	○	○	○	○
	오 행	×	×	×	×	×	×
건축형태	평면형태	○ ○	○ ×	× ○	○ ×	× ×	○ ×
	지붕형태	×	×	×	×	×	×
특 징		만곡수		회룡고조	지당수	진응수(가천)	만곡수

< 도 47 : 분석결과 비교표 >

※ ○ : 기준에 맞는다. △ : 기준에 조금 떨어진다. × : 기준에 맞지 않는다.

※ 평면형태는 문묘구역과 강학공간을 구분 분석하였다.

제 5장 결 론

풍수지리는 고대 이래 우리민족의 생활속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아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일상생활에서는 설화문학의 작은 소재거리로 또는 일월과 산천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지혜의 산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위난시에는 안전처를 갈망하는 십승지의 형태로, 안정기에는 이상향을 찾는 무릉도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까이는 조상을 편안히 모시고 일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마을을 정하고 도읍을 일으키는 국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중기(현종5년, 1127년) 이후 공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향교와 16세기(중종3년, 1543년) 이후 사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서원을 건축함에 있어 풍수지리적 입지선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파주지역의 향교와 서원을 대상으로 건물의 입지를 분석하였다.

입지분석 결과에서 필자는 우리 조상들이 전통 교육기관을 건축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요소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지리적 환경체계를 고려한 장소를 선택하여 자리를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선택된 장소에서 공간배치 구도를 짜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첫 번째, 지리적 환경체계로서의 장소를 선택하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주변 산천의 지형지세를 분석하여 내룡맥이 끝나는 산진처에 사신사가 사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령을 찾아 장소를 정하고, 전면이 넓게 트이고 후면의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배산임수, 전저후고의 산중심지에 자리 잡아 풍수지리의 입지선정 기준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공간의 배치구도에 있어서는 건물의 기본형태를 종으로 일정한 중심축을 설정하고 전면에서부터 홍살문, 삼문(외삼문), 강학공간, 내삼문, 제향공간을 일렬로 배치하였다. 그 다음에 주건물(강학, 제향공간)의 좌우에 부속건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전통질서 체계에 알맞은 공간적 위계질서와 정연성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즉 당시의 지방정부나 사대부들은 국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먼저 “지령은 인결”이라는 명제에 따라 주변의 지형지세

를 면밀히 살펴 땅속에 흐르는 생기를 받아 훌륭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선택하고 자리 잡은 다음, 그 토대위에서 선비정신을 기르고 상하 위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기본질서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지향하던 직선적 위계질서는 오늘날 다양한 사고체계로 변화 되었지만, 신성한 장소에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대해(大海)를 이루는 파주는 한북정맥의 마지막 행룡이 머무는 오두산이 두 강을 사이에 두고 한남정맥의 행룡이 다하는 문수산과 예성정맥의 행룡이 멈추는 백마산을 마주하여 정담을 나누는 형국을 취하고 있다. 즉, 삼 맥(三脈)이 회동하고, 두 물(二水)이 합수하는 교회(交會)의 땅이고 충화(沖和)의 땅이다. 또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뱃음의 땅이고,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조화의 땅이다.

풍수지리는 하늘과 땅, 바람과 물 등의 자연현상 속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생기를 찾아 그에 알맞은 용처를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자연과 함께 어울려 안정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필자가 연구한 파주지역의 향교와 서원은 당시 우리 조상들이 지령을 찾아 세운 전통교육기관이며, 오늘날 새로운 사고체계에 부합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풍수지리가 지향하는 안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소로 분석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한국의 경기지역 서원』, 국학자료원, 2004.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경기도의 향교건축』,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 권동희, 『지형도 읽기』, 도서출판 한울, 1998.
- 김광주, 『정통 풍수지리학』, 명성출판사, 1994.
- 김달위, 『건축과 생활풍수』, 주택문화사, 2000.
- 김동규·역, 『인자수지』, 명문당, 1992.
- 김두규, 『우리풍수 이야기』, (주)북하우스, 2003.
-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우당, 1995.
-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도서출판 발언, 1993.
- 김호년, 『땅을 알고 터를 잡자』, 동학사, 1994.
- 김호일, 『한국의 향교』, 대원사, 2004.
- 모종수, 『기풍수 연구』, 동학사, 1999.
- 박성태, 『신 산경표』, 조선일보사, 2005.
- 박시익, 『풍수지리로 본 서양건축과 음악』, 일빛, 2006.
-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 박왕희, 『한국의 향교와 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
- 서유구·저·안대희·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 신성은·역, 『금낭경·청오경』, 자유문고, 2005.
- 신평·역, 『고전 풍수학 설심부』, 관음출판사, 1997.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서원, 한국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안동대학교, 2003.
- 양주군, 『양주군지』, 양주문화원, 1992.
- 윤인희, 『현대 기후학』, 시그마프레스(주), 2004.
- 이문호, 『뽕슈이 사이언스』, 도원미디어, 2003.
- 이윤희, 『파주의 향교와 서원』, 파주문화원, 2004.
- 이중환·저, 이익성·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3.
-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주)북하우스, 2005.
 장영훈, 『조선시대 명문사학 서원을 가다』, 도서출판 담디, 2005.
 장용득, 『명당론』, 양정사, 1980.
 정경연, 『부자되는 양택풍수』, 평단문화사, 2005.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평단문화사, 2003.
 조석필, 『태백산맥은 없다』, 산악문화, 1997.
 조정동·저, 김경훈·역, 『양택3요』, 자연과 삶, 2003.
 채성우·저, 김두규·역,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천인호, 『풍수사상의 이행』, 세종출판사, 1999.
 철원군, 『철원군지』, 철원군, 1992.
 촌산지순·저, 최성길·역,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0.
 최완기, 『한국의 서원』, 대원사, 1991.
 최재운 배영희 공저, 『초시대 풍수지리』, 민속원, 2006.
 최창조,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1992,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파주군, 『파주군지』, 파주군, 1995.
 파주문화원, 『파주의 역사와 문화』, 파주문화원, 1995.
 파주문화원, 『파주문화유산』, 파주문화원, 2005.
 파주향교, 『파주향교지』, 회상사, 1997.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사 연구2』, 도서출판 발언, 2003.
 한동환,성동환,최원석 공저, 『자연을 읽는 지혜』, 푸른나무, 1994.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도서출판 큰기획, 1999.
 현진상·역, 『한글 산경표』, 도서출판 풀빛, 2002.
 호신순·저, 김두규·역, 『지리신법』, 비봉출판사, 2001.

<논 문>

기태우, 「통조사의 풍수지리적 입지특성 연구」, 대구한의대 석사논문, 2003.
 강상구, 「울산광역시시의 풍수지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5.
 공순진, 「풍수사상의 측면에서 본 주거지 입지에 관한 연구」, 동의대

- 학교 석사논문, 2004.
- 유재백, 「풍수에 의한 양택의 공간배치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 석사논문, 2003.
- 이우선, 「현대공공건물 입지조건에 대한 전통입지논리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0.
- 임수현, 「사찰의 입지선정과 풍수지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04.
- 정대영, 「안동가거지의 풍수적 입지특성 및 공간구성」, 부경대학교 석사논문, 2003.
- 정인옥, 「영양 주실의 풍수지리적 고찰」,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04.
- 정해경, 「전원주택의 입지 및 주거환경에 대한 풍수지리적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2006.
- 차홍도, 「전통향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적 해석」,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04.
- 최원석, 「풍수의 입장에서 본 한민족의 산 관념」,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2.

ABSTRACT

A Feng-shui Analysis of the Location of Hyang-gyo and Seo-won in Paju Area

Hwang, Chi-Yeon

Major in Feng-shui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Hansung University

Our ancestors observed the change of the sun, the moon, mountains and river, water and wind and appropriately used the phenomenon for their life in this land. Feng-shui, a traditional Korean topography, was formed in the usage of such natural phenomenon as a creative cultu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theory of land location in Feng-shui was used in the positioning of *Hyang-gyo*, established after the middle era of the *Goryeo* dynasty, and *Seo-won*, established after the middle era of the Joseon dynasty in order to give warning to the damage of environment which is being more aggravated by the rampant logic of economy and development and find a good principle for the co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the nature.

Moreover, a new way for the utilization of the numerous *Hyang-gyo* and *Seo-won* scattered around the nation and remaining in existence as a place for rituals by a few Confucian scholars and offer useful sugges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First, an outline of Feng-shui and the theory of the selection of locations, the arrangement of the buildings according to the Feng-shui the theory of the shape and direction of building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Hyang-gyo* and *Seo-won*, their

function, structure and placement were examined.

Next, the history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of Paju were reviewed and the topographically favorable location and the process of the topography of Mt. a forefather in Paju area were analyzed. In addition, based on the location theory of Feng-shui, the specific locations of Gyoha Hyang-gyo, Paju Hyang-gyo, Jeokseong Hyang-gyo, Yongju Seo-won, Jaun Seo-won and Pasan Seo-won in Paju area were analyzed with the theory of Feng-shui.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lo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no noticeable difference in the basic structure in the selection of the locations for *Hyang-gyo* and *Seo-won*.

Secondly, the analysis of the factors in detail by inner the force of dragon, a spot where influences to one's fortune converge, the force of sand and the force of water shows that almost all the *Hyang-gyo* and *Seo-won* are connected endlessly by inner the force of dragon and the force of sand, and the force of water are located in a spot where influences to one's fortune converge.

Thirdly, by analyzing the placement of buildings in detail by the principles of 'mountain in the rear and water in the front', 'low in the front and high in the rear' and 'the placement in the center of the mountain', it was confirmed that all the *Hyang-gyo* and *Seo-won* corresponded right to such analysis factors.

Fourthly, the directions of the buildings were analyzed with the 3 factors of 'East-west 4 Houses',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five elements of the Chinese cosmogony, and there were some houses that did not correspond to such criteria of Feng-shui.

fifthly,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the buildings in detail by the plane surface and the shape of the roof, the plane surface of all *Hyang-gyo* and *Seo-won* was rectangle.

The ratio of the rectangular plane was mixed with the plane for propitious ones and the house of ill omen.

Regarding the shape of the roof, the roof of all *Hyang-gyo* and *Seo-won* was a long ridge which hung down in the middle, which is

the shape of a roof for house of ill omen.

Judging from the above analysis results, it is understood that our ancestors considered the following two aspects as most important factors when building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es.

firstly, the principles of Feng-shui theory were faithfully followed in the process of the selection of the sites in the geographical system of environment.

Secondly, in the arrangement of the space, the hierarchical order in space and orderliness was pursued by setting a certain central axis for the basic shape of the building and arranging the space for the red gate, outer 3 gates, lecturing space, inner 3 gates and the space for rituals from the front in a row.

In other words, the then local governments or the noble class examined the topography on the periphery when they were establishing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fostering of talents for the nation according to the proposition of "the soul of land is a distinguished person". Therefore, they first selected a good place for the education of distinguished figures with the favor of the fresh energy flowing in the land and taught the spirit of scholars to maintain the traditional basic order respecting the order between the top and the bottom.

Feng-shui attempts to pursue health and the happiness of people and achieve the balance and harmony between human beings and the nature by selecting the appropriate lands that can give benefit to people. the *Hyang-gyo* and *Seo-won* in Paju area researched in this study are the tradi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set up by our ancestors looking for the soul of land. It can also be a meaningful criteria in providing the stage of education that corresponds to today's new system of thoughts. Moreover, they are regarded as places of stability and harmony pursued in the Feng-shui theory.